

연구보고서 2021-19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양성평등
경북
+
여성일자리
창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요약





연구요약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9년 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음. 코로나19는 단기간 내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화를 야기시켰고, 의료용품, 비대면 소비와 관련된 기존·신산업의 성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촉발시키는 효과도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제 봉쇄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며, IMF,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여성의 위기’로 일컬어지며 여성·가족의 삶에 위기와 변화 초래하였음. 여성들은 코로나 충격이 큰 분야(음식, 숙박업, 돌봄 등) 종사 비중이 높고 저임금, 비정규직,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인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아 위기에 더 취약함. 또한 자가격리, 학교 폐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증가를 초래했으며, 과부하 상태인 보건체계, 의료공급 부족 등은 출산과 질병 관련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됨
-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된 성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위기가 촉발한 변화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우선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여성·가족의 경험과 인식, 정책요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여성가족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도출
-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및 여성가족정책 요구도 조사·분석
-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전략 개발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코로나19 및 이와 관련한 여성가족 관련 연구,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 조사·분석
- 통계분석 : 여성 일자리와 고용, 가족생활과 보육·돌봄, 젠더 폭력 등 관련 통계 조사·분석
- 설문조사 : 도민(여성, 남성) 대상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생활상의 변화와 어려움, 정책요구도 등 조사·분석
- 간담회(FGD) 및 인터뷰, 서면조사 : 여성가족정책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인터뷰, 서면조사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현안 및 지원방향 도출
- 전문가 자문 :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현안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활용

2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경제활동(일자리, 노동) 분야임.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소득감소, 일자리 위기 등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서 성별 고용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



남. 2020년 기준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74.9%)은 전년 대비 0.2% 하락한데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53.5%)은 1.0% 하락으로 남녀의 경제활동참가 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남. 전국 여성 고용은 2021년 상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서며(51.1%→51.2%)이 증가한데 반하여, 경북 여성고용은 1.3% 하락하여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여성 고용 악화를 드러냄

- 코로나19 이후이후 성별 고용격차가 커진 것은 팬데믹 위기에 취약한 여성 고용의 구조적 특징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임. 종사상 지위를 보면 경북 여성은 임시/일용직에서만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용 근로자의 여성 비중이 타지역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고용 안정성이 더 낮아졌음을 드러냄. 여성의 주요 취업 직종은 사무종사, 서비스종사, 판매종사, 단순노무종사이며,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이 중 2019년 대비로 2020년 고용이 증가한 직종은 사무종사자이며, 업종으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만이 증가함
- 전반적 여성 고용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코로나 19로 인한 타격이 컸던 고대면의 단순 노무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근로자는 노동 여건상 감염 취약성이 큰 반면 고용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코로나19 위기가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동 제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해 가족 간 밀집도 상승, 생활시간의 변화 등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자 교육·돌봄 제공을 하는 곳으로 전제되면서 여성들의 이중노동이 심화됨.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의 심화는 돌봄 영역에서 특히 많이 논의되었음. 그동안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이 일과 중 상당시간을 보냈던 학교와 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당초 보육과 교육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사실상 사회적 돌봄의 대표적인 기관이었음. 이들 기관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 구조에서 그간 꾸준히 확충해온 사회적 돌봄시스템이 쉽게 무력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돌봄의 가정화 및 여성화로 쉽게 회귀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 사회조사를 통해 경북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2018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49.1%에서 2020년 54.7%로 5.6%p 상승했지만,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도 2018년 5.3%에서 2020년 7.9%로 오히려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층에서는 부인이 가사분담을 전담해야 한다는 경향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돌봄 노동을 해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가족 내 갈등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조치, 휴관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 대응이 어려웠음
 - 코로나19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보호시설(쉼터)를 제외한 가정폭력 상담소는 정부의 휴관 권고에 따라 운영됨. 또 감염병으로부터 피해자와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이유로 가정폭력 관련 캠페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면활동이 대부분 중지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역시 기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입소자의 입소가 기존보다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었음. 이러한 휴관 권고 및 운영제한 지침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권을 위한 조치이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시기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개입 상담(초기 긴급 상담)을 담당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관련기관을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상담 실적을 보면 2020년 현재 총 상담건수는 16,167건임. 이중 폭력피해 상담이 약 78.3%이며, 일반상



담이 21.6%를 차지함. 일반 상담을 제외한 폭력피해 상담(총12,590건)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이 11,330건(9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성폭력 640건(5.1%), 데이트 폭력 538건(4.3%), 디지털 성범죄 76건(0.6%), 성매매 68건(0.5%), 스토킹 14건(0.1%) 순으로 나타남. 일반상담(총2,204건)의 유형으로는 정서 및 정신건강 상담 1,970건(89.4%), 가족문제 211건(9.6%), 이주 지원 23건(0.2%)이 있었음

- 상담 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부터 22,895명, 2019년 22,469명으로 22천명을 상회하였지만, 2020년에는 16,162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긴급피난처 입소자 역시 2018년 643명, 2019년 581명으로 500명 이상을 상회하였으나 2020년 271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위기 시기에 상담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율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할 필요 있음. 다수의 전문가는 가정폭력 신고건수 감소를 가정폭력 사건 자체의 축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함.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서 가해자의 일상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이 더욱 고립될 수 있음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함

3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 조사

【 설문 조사 】

-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민 생활 변화 및 정책요구도 조사를 위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코로나19 관련 인식

-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63.2%로 10명 중 6명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



-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음. 남성(56.4%)보다 여성(70.5%)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경험했던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25.8%)과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23.7%),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22.5%)를 주요한 어려움으로 답함.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어려움이 컸던 항목은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남성 21.8%, 여성 23.2%), 가족 구성원 등 돌봄 문제(남성 9.7%, 여성 10.2%), 일자리 문제(남성 6.0%, 여성 7.1%), 가족 구성원 갈등 등 가족 관계 문제(남성 2.2%, 여성 2.7%), 각종 앱 설치 등 온라인 사용 어려움(남성 2.1%, 여성 2.9%)이었음
 -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성,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49.3%로 절반 수준을 차지함.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생활 방식이 지속될 것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86.3%로 지역사회 변화의 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76.4%를 차지해 코로나19가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음. 한편,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적 돌봄체계가 강화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층이 56.6%, 공감하지 않는 층이 43.4%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남녀갈등이 심화될 것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31.1%,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29.3%로 성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지원(34.5%)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강/의료 지원(29.3%)과 일자리 지원(16.7%) 비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과 감염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 이 외에 돌봄이나 교육 지원(10.9%), 심리적 서비스 지원(8.2%)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성별로는 유사하게 응답함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를 소득, 지출, 일하는 시간에 평균 점수로 알아본 결과(매우 감소에서 매우 증가까지 5점 척도로 측정),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태도를 보임. 항목별로는 지출(평균 2.99)과 일하는 시간(평균 2.84)에 대해서는 약간 감소했다는 태도인 반면, 소득(임금, 용돈 등)에 대해서는 평균 2.46으로 다소 감소한 폭이 크다는 태도를 보였음. 소득감소는 남성(2.56점)에 비해 여성(2.34점)에서 크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화가 없다(취업 유지)는 층이 74.3%를 차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두거나(현재 무직)(1.7%),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후 재취업(창업)(3.0%)한 경우가 4.7%를 차지하였음. 코로나19 시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은 10.6%였음.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변화없음이 78.4%였고, 코로나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재취업 한 비율이 4.8%였으며, 이 시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에 불과함. 하지만 여성은 변화없음이 69.9%인 가운데 이 시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8%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코로나로 인해 일을 그만 두거나 재취업 한 비율은 남성보다 약간 낮은 4.6%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이유로는 일(매출/고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자영업자, 프리랜서 등)(41.5%)가 주된 이유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한편,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사직권고, 임금체불/삭감 등)(16.6%), 해고됨(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포함)(8.5%) 등 직장 여건으로 인해 그만 둔 층이 25.1%를 차지했으며, 코로나 감염 등의 두려움 때문에 그만 둔 층이 16.7%, 자녀 등 가족 돌봄 문제로 그만 둔 층이 8.3%를 차지함.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주로 일이 급격하게 감소해서(남성 48.3%, 여성 33.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 순위에서 남성은 코로나 감염 등 우려 때문에(23.9%)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자녀 등 가족 돌봄 문제 때문(17.7%)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해고로 인한 원인은 남성 8.0%, 여성 8.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음



-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과 관련해 어려운 점으로는 비교적 다양한 인식을 보였는데, 특히 일자리 알선 서비스(29.5%)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부족(21.1%)이라는 응답이 50.6%를 차지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구직활동의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남. 이밖에, 온라인 방식의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참여 어려움이 12.8%, 직업훈련 과정 부족이 11.3%, 돌봄 부담으로 구직활동 시간 부족이 4.1%였음.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일자리 알선 서비스 부족(40.0%)으로 인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은 재택 근무 등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부족(21.1%)과 직업훈련 과정 부족(19.9%)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은 대해서는 안전문제(코로나19 감염 위험)가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량(강도) 증가(14.6%), 업무상의 제약이 많아짐(14.4%), 휴가사용 어려움(11.3%) 응답이 많아 감염 위험에 따른 활동 제약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나 인원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이 일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남. 이밖에, 재택근무 사용 어려움이 7.3%,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등 고용불안이 2.9%, 무급 휴가/휴직 강요가 1.0%, 임금체불/임금삭감(반납)이 0.4%였음. 남녀 관계없이 안전문제(남성 38.1%, 여성 39.1%)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가운데, 안전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이 비해 조금 더 높았음. 이외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휴가 사용의 어려움(남성 10.5%, 여성 12.2%),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등 고용 불안(남성 1.4%, 여성 4.7%), 임금 체불/임금 삭감(남성 0.3%, 여성 0.6%)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음
- 현 직장의 근무조건으로는 가족돌봄휴가(휴직)(37.2%)와 재택근무(원격근무)(32.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선택제(27.4%), 시차출퇴근제(22.1%), 선택근무제(14.6%) 순이었으며, 제시한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층이 48.8%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음. 제시한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 근로자가 55.2%로 남성 근로자 43.7%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에서 남성 근로자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요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나 부모님 등 가족 돌봄 방법을 알아본 결과, 연차 사용(25.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18.5%),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12.1%) 순으로 코로나19가 근무시간 축소를 위해 직장에서 운영 중인 제도 이용률을 높이는 데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연차 사용(남성 25.6%, 여성 24.4%), 가족돌봄 휴가 사용(남성 20.6%, 여성 15.8%) 모두 남성이 많았고,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남성 10.9%, 여성 13.6%)은 여성이 많았음
-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때문에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실태를 보면,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함(13.7%)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됨(8.5%),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평판을 들음(2.4%), 기존의 업무나 부서가 변경됨(1.3%)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2배 이상(남성 5.8%, 여성 12.0%)으로 나타남
- 한편,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일 자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취소/매출 감소가 61.7%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15.8%), 일시휴업 상태로 인한 소득 감소(14.6%), 종업원 축소로 인한 노동시간이 증가(4.1%)했다고 응답함. 성별로 보면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 항목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남성 21.5%, 여성 9.7%),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취소/매출 감소 비중이 높았고(남성 59.5%, 여성 64.5%), 일시 휴업 상태로 인한 소득 감소(남성 12.9%, 여성 16.5%), 종업원 축소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남성 1.8%, 여성 6.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알아본 결과, 소득보전 지원 대책(25.7%)과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대책(25.0%)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감염병 유행기 위기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집중 관리(16.3%),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대책(13.4%), 일/생활 균형(돌봄) 지원 대책(12.6%),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6.1%) 순이었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생활 균형(돌봄) 지원 대책에 대한 요구(남성 10.8%, 여성 14.8%),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대책(남성 12.9%, 여성 13.8%)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필요한 코로나 지원 정책을 알아본 결과, 재난 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30.0%)가 가장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여 안정적인 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 확대(16.7%)가 많았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난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돌봄휴가 확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재난 시 긴급돌봄이 가능한 별도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31.8%), 보육교사/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27.7%),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보미 양성과정 운영 및 인력 확보(23.6%) 비율이 높아 안전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인력 양성 등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음. 감염병 예방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도 16.5%를 차지해, 일상적 방역에 대한 필요성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난시 긴급돌봄이 가능한 별도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남성 29.0%, 여성 34.8%), 아이돌보미/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보미 양성과정 운영 및 인력 확보(남성 21.2%, 여성 26.3%)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가족생활 및 보육·돌봄

-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상 생활에서 달라진 점으로 자녀(가족) 동반이나 자신의 외출자제(55.2%)가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출자제로 인해 파생되는 변화로 집에서의 음식준비와 배달음식 증가(22.1%), 집에서의 자녀(가족)와 함께 있는 시간 증가(13.8%), 온라인 장보기 횟수 증가(8.5%) 순이었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가족)동반이나 자신의 외



- 출자제(남성 53.8%, 여성 56.7%), 온라인 장보기 횟수 증가(남성 7.3%, 여성 9.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0대 연령층, 전업주부층에서 집에서 자녀(가족)와 함께 있는 시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유형별로 매우 감소에서 매우 증가까지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5점 만점 기준), 자녀 학습지원의 어려움(평균 3.63)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돌봄 필요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평균 3.48),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평균 3.42), 부부 간 가사노동과 돌봄 역할 분담의 어려움(평균 3.41)이 증가하였다는 반응으로 전반적으로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평균 3.39) 또한 다소 늘어났다는 반응임.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다소 더 증가하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의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약간 증가하였다는 반응을 보였음.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층에서 돌봄과 자녀 학습, 가사노동 등에서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코로나 전과 현재의 돌봄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직접 돌봄이 코로나 전(42.7%)과 현재(47.2%) 모두 주된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혼자 두고 출근(코로나 전 19.6%, 현재 25.2%) 비율이 높았음. 현재 주된 돌봄 방법으로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직접 돌봄 비율이 코로나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혼자 두고 출근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늘어난 돌봄 부담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구 내 성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담당했다는 층이 53.1%, 가구 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했다는 층이 44.5%인 반면, 가구 내 남성이 대부분 담당했다는 층은 1.6%로 주로 함께 하거나 여성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에서 가구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였다는 비율이 다소 더 높은 반면, 남성은 가구내 성인여성과 남성이 함께 담당하였다는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라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음. 한편,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였다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



- 고 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층에서 가구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늘어난 돌봄 부담을 담당하는 방법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층이 42.2%로 주로 휴가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무시간을 줄임(26.2%),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이나 서비스로 충당함(13.6%), 하던 일을 그만둠(8.1%) 순으로 일자리나 소득, 과도한 비용 발생에 영향 없이 돌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임.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가족돌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 비율이 다소 더 높은 반면(남성 52.6%, 여성 32.0%), 여성에서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이나 서비스로 충당함(남성 9.4%, 여성 17.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층이 47.5%를 차지한 가운데, 일시 휴직할 것이다 10.2%,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구할 것이다 4.9%, 그만둘 것이다 2.6%로 응답해 17.7%는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함. 여성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3.3%로 남성 42.3%에 비해 많았으며,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9.6%로 남성 34.7%에 비해 적었음
 -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을 알아본 결과, 공립 돌봄 시설의 시설 수와 정원 확대(29.7%), 휴원/휴교 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이용 보장(28.6%)이 가장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출퇴근시간대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18.7%),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1.2%), 다문화/조손가정 자녀 등 취약가정 자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6.0%), 마을돌봄공동체 활성화(4.4%) 순으로 응답함.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휴원/휴교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이용 보장(남성 26.4%, 여성 31.0%),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남



- 성 3.5%, 여성 5.4%)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 코로나 이후 주로 갈등이 발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었다는 층이 50.9%로 절반 수준인 가운데, 배우자(24.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11.2%), 나의 부모(6.5%), 나의 형제(2.4%), 배우자의 부모(2.0%), 그 외 동거인(0.9%) 순으로 나타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주된 대상으로 확인됨. 여성이 경우 남성보다 자녀를 꼽은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남성 9.9%, 여성 12.7%)
 - 가족 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으로서는 가사 및 돌봄역할 분담(21.4%), 경제적 어려움(21.2%), 의사소통 및 대화부족(20.7%), 자녀교육 문제/자녀의 학습 및 성적(13.0%)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 등이 심화되었을 때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함께 있어야 해서 대응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많이 참았다는 응답이 57.9%,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는 응답이 23.3%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가족 간 갈등이나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한편,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다는 응답이 10.5%,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2%였음. 성별에 따라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에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남성 7.3%, 여성 13.2%)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고용 분야 대응 강화(근무형태 다양화, 재택근무 여건 지원, 노동시간 단축 등)(20.0%)와 가족돌봄휴가제도 개선(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대상 확대 등)(16.5%),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개선(11.2%)이 가장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 일자리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한부모 등 취약층을 위한 방문돌봄인력 파견 확대(9.5%), 가족갈등/코로나블루 등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지원강화(8.9%),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6.6%), 비대



면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6.5%)순으로 나타남.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 돌봄 휴가 제도 개선(남성 15.4%, 여성 17.5%), 공적 돌봄 서비스 인력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남성 3.2%, 여성 6.5%)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에 대한 경험 정도를 확인한 결과, SNS 댓글, 채팅 등을 통한 성적영상물への 일방적 노출 및 전송에 대한 경험이 증가했다는 층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분별한 성인광고(18.6%), 불법 이미지 유포(13.5%), 성적 영상물(음란물) 시청(12.1%), 온라인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9.0%) 순이었음. 한편, 온라인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감소함 13.0%)를 제외하면 감소했다는 층에 비해 증가했다는 층이 많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에서의 위해요소 경험률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모든 문항에서 여성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남성 6.3%, 여성 15.4%), 눈 댓글 채팅 등을 통한 성적 영상물への 일방적 노출 및 전송(남성 21.7%, 여성 29.6%), 무분별한 성인광고(남성 17.6%, 여성 21.2%) 경험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조사 : 간담회, 인터뷰 등 】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와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유관기관 및 지역 전문가와 도민 36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인터뷰 및 서면 의견 조사 실시
 - 주요 질문은 코로나 19 이후의 중요 키워드와 여성경제활동, 가족생활/일·생활 균형, 출산·보육·돌봄, 폭력 예방과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 및 대응 과제, 각 기관 또는 개인이 겪은 어려움과 대응방안으로 구성됨
- 코로나 이후 우리사회의 중요 키워드는 비대면, 디지털(디지털 양극화, 디지털 전환, 유튜브), 치유/힐링으로 나타남. 특히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이후 디지털 기술이 변화시킬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담고 있음
- 4개 분야별 코로나19 위기 이슈와 대응과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노동에 관련된 주요 이슈는 여성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지위 불안에 집중되었음. 다음으로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어려움과 변화된 사회에 대응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보임. 제기된 여성 경제활동/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제로 불완전 노동 증가에 따른 여성 취업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와 여성근로자를 위한 신규 직종 발굴, 여성집중 업종인 돌봄 노동자 지원 제도 등이 제안됨
- 가족생활/일·생활 균형 지원에 대한 주요 이슈로는 소통과 양성평등한 관계, 가족 갈등 발생, 일과 생활의 불균형, 대인관계 단절/축소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언급됨. 제기된 가족생활/일·생활 균형 지원에 대한 대응과제로는 가족상담지원과 비대면 가족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가족 위라벨을 위한 정책, 남녀가 함께 하는 일과 돌봄의 균형 등이 제안됨
- 출산보육돌봄에 대한 주요 이슈로는 돌봄 부담과 저출산 심화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돌봄 부담 관련 이슈로는 여성의 돌봄 스트레스 심화, 가정보육으로 인한 맞벌이부부 업무 어려움 등이, 저출산 심화에 대해서는 임신과 출산 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기관 이용 불편함 등이 언급됨. 제기된 출산보육돌봄에 대한 대응과제로는 돌봄 부담의 경우 돌봄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 긴급휴가지원정책, 긴급보육전담교사 증원이, 저출산 심화 관련 대응과제로는 임신부를 위한 의료지원 체계 연구와 산후조리와 아기 돌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 연구, 일반기업에서도 출산 휴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이 제안됨
- 폭력예방, 안전에 대한 주요 이슈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의 증가가 다수 의견이었음. 제기된 폭력예방, 안전에 대한 대응과제로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위기 가정에 대한 전담 상담원 배치 및 센터 연계 등이 제안되었으며, 상담원들의 심리적지원이 필요, 비대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매뉴얼 개발 등의 의견도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은 사업 중단 및 유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감염에 대한 불안정성의 응답이 많았으며, 개선사항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 및 방역에 대한 인원 지원 및 지침 균질화 등의 의견이 있었음

5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 방향과 과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코로나 위기와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의 목표와 전략과제, 세부 정책과제를 경제활동/노동, 돌봄, 가족, 젠더폭력의 4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함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목표	전략 과제	세부 정책과제
새로운 일자리 대응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확산	여성 취업 취약업종의 일자리 확대
		지원기관 강화를 통한 4차 산업 대응 여성 일자리 교육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여성일자리 정보 격차 완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면단위 까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운영
		쉽고 빠른 매칭, 여성 누구나 일자리 플랫폼 구축
여성집중 일자리 노동 여건 개선	고대면, 필수 노동 근로자 지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제도권화 기반 구축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다양한 근무유형과 제도 활용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지원
		원격, 재택 근무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기반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	아동중심의 평등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
		지자체-정부 협력 아동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이동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운영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학교-마을돌봄협의회 구성·운영
아동돌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
		경북지역 다양한 가족의 성평등 문화 확산
새로운 젠더폭력 및 코로나 대응력 강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 강화
	코로나 대응 기반 및 체계 강화	경북형 폭력예방 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방지 유관기관/시설 지원강화		



목 차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연구 내용과 방법 6
- 3. 연구 수행체계 7

II.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 / 9

- 1.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분석 11
- 2. 코로나19 이후 여성가족정책 환경 분석 19

III.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23

- 1. 경제활동 25
- 2. 가족생활·돌봄 36
- 3. 젠더 폭력 45



VI.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49

- 1. 조사 개요 51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57
- 3. 전문가 및 도민 의견조사 결과 분석 124

V. 워드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 147

- 1. 워드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목표, 전략과제 149
- 2. 세부 정책과제 151

참고문헌 / 194

부록 / 197

- 설문지 199



표 목차

- <표 II-2-1> 코로나19관련 노동(고용) : 연구 및 조사 12
- <표 II-2-2> 코로나19관련 가족 : 연구 및 조사 14
- <표 II-2-3> 코로나19관련 돌봄 위기 : 연구 및 조사 16
- <표 II-2-4> 코로나19관련 여성의 건강과 젠더폭력 : 연구 및 조사 18
- <표 II-3-1> 코로나19로 인한 성불평등 이슈 및 현재 상황 20

- <표 III-1-1> 성별 종사상 지위 구성 27
- <표 III-1-2> 성별 종사상 지위 변화 30
- <표 III-2-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경북) 40
- <표 III-2-2> 경상북도·도교육청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 현황 43
- <표 III-2-3> 지자체-여성가족부 협력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현황 44
- <표 III-3-1>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상담건수(2020) 46
- <표 III-3-2> 경북 여성긴급전화 1366 내외국인 상담 실적 47

- <표 IV-1-1> 조사 권역 51
- <표 IV-1-2> 인구수 비례 표본할당표 52
- <표 IV-1-3> 조사 표본 수 53
- <표 IV-1-4> 조사대상 지역 54
- <표 IV-1-5> 조사 내용 54
- <표 IV-1-6> 조사대상자 특성 56
- <표 IV-2-1>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 58



<표 IV-2-2> 코로나19 이후 생활 부문별 나빠진 정도	60
<표 IV-2-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62
<표 IV-2-4>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4
<표 IV-2-5>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66
<표 IV-2-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	69
<표 IV-2-7>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71
<표 IV-2-8> 현 근무형태	75
<표 IV-2-9> 코로나19로 인한 일에서의 어려움	77
<표 IV-2-10> 현 직장의 근무조건	79
<표 IV-2-11>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및 휴가 빈도	80
<표 IV-2-12>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이익	83
<표 IV-2-13>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85
<표 IV-2-14>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필요한 정부정책	87
<표 IV-2-15>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코로나 지원 정책	89
<표 IV-2-16>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	92
<표 IV-2-17>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	94
<표 IV-2-18> 코로나 전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서의 어려움 변화	96
<표 IV-2-19> 평소 가정 내 돌봄 대상	99
<표 IV-2-20> 코로나 전 주된 돌봄 방법	101
<표 IV-2-21> 현재 주된 돌봄 방법	101
<표 IV-2-22> 늘어난 돌봄을 담당할 가족 구성원	103
<표 IV-2-23> 늘어난 돌봄부담 담당 방법	105
<표 IV-2-24> 돌봄문제 지속 시 현재 일에 대한 태도	106
<표 IV-2-25>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	109
<표 IV-2-26> 코로나19 이후 갈등이 발생한 주된 가족 구성원	112
<표 IV-2-27>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	114



<표 IV-2-28>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	115
<표 IV-2-29>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으로 겪는 어려움	117
<표 IV-2-30>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119
<표 IV-2-31>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 경험 정도	123
<표 IV-3-1>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 키워드	125
<표 IV-3-2>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경제활동/노동)	129
<표 IV-3-3>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경제활동/노동)	131
<표 IV-3-4>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가족생활/일·생활 균형)	134
<표 IV-3-5>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가족생활/일·생활 균형)	135
<표 IV-3-6>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출산·보육·돌봄)	137
<표 IV-3-7>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출산·보육·돌봄)	139
<표 IV-3-8>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폭력예방, 안전)	141
<표 IV-3-9>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폭력예방, 안전)	142
<표 IV-3-10>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 주요 이슈	144
<표 IV-3-11>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 대응과제	145
<표 V-1-1>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150



그림 목차

<그림 I-1-1>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위기	5
<그림 I-3-1> 연구 절차	7
<그림 III-1-1> 경기침체시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	25
<그림 III-1-2> 경기침체시 성별 고용률 변동	26
<그림 III-1-3> 전국 여성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분기별)	28
<그림 III-1-4> 경북 여성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분기별)	29
<그림 III-1-5> 종사상 지위별 남녀 성별 격차	31
<그림 III-1-6> 직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변화	32
<그림 III-1-7> 전국 직종별 여성 취업자 증감(2019~2021 1/4분기)	33
<그림 III-1-8> 전국 업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변화	34
<그림 III-1-9> 경북 업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변화	35
<그림 IV-2-1>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	57
<그림 IV-2-2> 코로나19 이후 생활 부문별 나빠진 정도	59
<그림 IV-2-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61
<그림 IV-2-4>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3
<그림 IV-2-5>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66
<그림 IV-2-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	68
<그림 IV-2-7>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70
<그림 IV-2-8>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이유	72



<그림 IV-2-9>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73
<그림 IV-2-10> 현 근무형태	74
<그림 IV-2-11> 코로나19로 인한 일에서의 어려움	76
<그림 IV-2-12> 현 직장의 근무조건	78
<그림 IV-2-13>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및 휴가 빈도 ...	80
<그림 IV-2-14>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이익	82
<그림 IV-2-15>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 비임금근로자	84
<그림 IV-2-16>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필요한 정부정책	86
<그림 IV-2-17>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코로나 지원 정책	88
<그림 IV-2-18>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	91
<그림 IV-2-19>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	93
<그림 IV-2-20> 코로나 전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서의 어려움 변화	95
<그림 IV-2-21> 평소 가정 내 돌봄 대상	98
<그림 IV-2-22> 코로나 전후 주된 돌봄 방법	100
<그림 IV-2-23> 늘어난 돌봄을 담당한 가족 구성원	102
<그림 IV-2-24> 늘어난 돌봄부담 담당 방법	104
<그림 IV-2-25> 돌봄문제 지속 시 현재 일에 대한 태도	106
<그림 IV-2-2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	108
<그림 IV-2-27> 코로나19 이후 갈등이 발생한 주된 가족 구성원	111
<그림 IV-2-28> 주된 갈등 원인	113
<그림 IV-2-29>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으로 겪는 어려움	116
<그림 IV-2-30>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118
<그림 IV-2-31>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 경험 정도	121
<그림 IV-3-1>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 키워드	124
<그림 IV-3-2>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경제활동/노동)	127



<그림 IV-3-3>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가족생활/일·생활 균형) 132

<그림 IV-3-4>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출산보육돌봄) 136

<그림 IV-3-5>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폭력예방, 안전) 140

<그림 IV-3-6>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143



I. 서론





1.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코로나19 전세계 강타, 삶의 전 영역에 영향 미치며 급격한 변화 초래

2019년 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후 불과 한 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1천 명대에 진입하고, 3월 12일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사상 초유의 마스크 대란, 개학 연기, 등교 중단, 재택 근무 등이 이루어졌고 비대면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는 단기간 내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화를 야기시켰고, 의료용품, 비대면 소비와 관련된 기존·신산업의 성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촉발시키는 효과도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제 봉쇄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며, IMF,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안, 우울, 자살생각 등 주요 정신 건강 지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 우울위험군, 자살생각률 모두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우울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20년 20.0%까지 크게 늘었고, 자살



생각률도 4.7%에서 13.4%로 역시 늘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을 통해 코로나가 촉발한 위기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나마 잠깐 동안 시행되었던 단계적 일상회복도 확진자 및 사망자 급증 등으로 인해 재검토되며, 일상복귀와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지역사회 지원이나 자원으로부터의 단절과 고립 초래, 불확실성 야기하였다.

나. 코로나19 위기는 ‘여성의 위기’

코로나 시대의 위기는 ‘여성의 위기’로 일컬어진다. 코로나가 촉발한 경기침체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 중 많은 부분이 여성 집중 일자리였다. 또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멈추자 여성은 ‘독박 돌봄’에 허덕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쉬세션(Shecession)¹⁾’이라고 부른다. 여성(She)과 경기침체(recession)를 합친 신조어로 코로나19 고용 한파의 타격이 여성에게 집중되었다는 의미다(여성신문, 2021.2.22., K자 양극화 멈추고 ‘돌봄민주화’ 시작하자).

특히 여성들은 코로나 충격이 큰 분야(음식, 숙박업, 돌봄 등) 종사 비중이 높고, 저임금, 비정규직,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인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아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가 격리, 학교 폐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었고, 과부화 상태인 보건체계, 의료공급 부족 등은 출산과 질병 관련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돌봄은 공동체가 생존하고 재생산하는 데 꼭 있어야 하는 ‘필수노동’이지만, 감염 위험/불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적 돌봄 기능의 약화에 따른 돌봄의 재가족화와 여성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며 위기가 드러났다.

OECD(2020), UN(2020), UN women(2020)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코로나가

1)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약시오스가 쓴 표현으로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생길 수 있는 경기 후퇴를 의미한다.



젠더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크게 네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직 및 소득감소가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돌봄노동의 측면에서는 학교, 육아시설, 노인/장애인 돌봄시설등의 폐쇄와 전염병 확산으로 가족 건강 관리 부담 증가로 가정 내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건강의 측면에선, 소위 말해서 코로나블루라고 불리는 우울과 불안, 자살의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 제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을 비롯한 아동과 노인에 대한 폭력의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자료 : OECD(2020), UN(2020), UN women(2020)

< 그림 I-1-1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위기

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코로나 위기는 근무방식의 변화, 비대면, 홈코노미, O2O증가 등 일하는 방식과 일상생활 실질적 변화 지속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당연



시되던 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젠더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된 성 불평등에 심화된 위기,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 반복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도약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위기가 촉발한 변화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우선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여성·가족의 경험과 인식, 정책요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여성가족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0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도출
-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및 여성가족정책 요구도 조사·분석
- 셋째, 코로나 위기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전략 개발

나. 연구 방법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첫째, 문헌연구 : 코로나19 및 이와 관련한 여성가족 관련 연구,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 조사·분석
 - 둘째, 통계분석 : 여성 일자리와 고용, 가족생활과 보육·돌봄, 젠더 폭력 등 관련 통계 조사·분석



셋째, 설문조사 : 도민(여성, 남성) 대상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생활상의 변화와 어려움, 정책요구도 등 조사·분석

넷째, 간담회(FGD) 및 인터뷰, 서면조사 : 여성가족정책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인터뷰, 서면조사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현안 및 지원방향 도출

다섯째, 전문가 자문 :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현안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활용

03 연구 수행체계

이상의 연구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3-1> 연구 절차

II.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





II.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

01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분석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 폭력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여성가족정책은 여러 영역을 다루지만, 이중 일자리는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역 중 하나이다.

여성 고용 위기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19로 유발된 변화의 방향과 전반적 경제 및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중 일부 여성 고용을 다루는 연구와 여성 고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뉜다.

먼저 경제 전반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19로 유발된 변화가 비대면의 산업·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되며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 혁명을 가속화시키고, 이후 산업구조 변화까지 유발할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자국 중심 생산체제로의 회귀를 전망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제조업의 본국 회귀는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이전과 다른 노동 풀 수요와 함께 산업 구조를 재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여성고용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노동 위기를 누적된 성별 불평등에 의해 조성된 여성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는 주로 여성고용 구조의 불평등 문제와 취약계층의 노동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첫째,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성 일자리의 편중된 형태를 지적한다. 여성 일자리는 고대면접촉 일자리(판매직, 대면 서비스업, 돌봄 노동 등) 중심이며, 임시/일용직 비중이 커서 고용불안정성도 크다. 때문에 경제 위기상황에서 해고 0순위로 내몰리고 있어 코로나 위기에 더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여성노동 시장의 위축 속에 특히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과 20대의 경력이 짧은 임시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이 매우 큰 계층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가중된 업무를 부담하는 돌봄 노동자와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여성노동자에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노동 실태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와 불평등의 요소를 뚜렷히 드러내고 있다.

<표 II-2-1> 코로나19 관련 노동(고용) 연구 및 조사

주제	제목	유형	발행처
취약집단 보호, 일자리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역, 경제 위기 극복 대토론회	토론회자료집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고용안전망, 여성노동자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갈등과 대응전략 (노동, 복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갈등과 대응전략	협동연구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성 노동	젠더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노동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노동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노동 위기현황과 정책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 노동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과 정책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여성 노동	젠더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와 정책대응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노동	코로나19 이후 여성일자리 정책의 전망과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노동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팬데믹 vs 일반적인 경기침체 비교를 중심으로	정기간행물	한국은행



II.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

여성 노동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코로나시대 국가적 차원의 여성인적자원 관리 방안	학술대회자료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여성 노동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일자리	학술대회자료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여성 노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울산지역 여성고용 특성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취업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취업변동과 고용위기 대응정책	2020년 일시휴직자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정기간행물	한국경제연구원
여성 일자리 정책	코로나19 이후 여성 일자리 정책의 전망과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혜원·김미정·노경혜·정요한(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 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pp. 15.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및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한 가족 간의 밀집도 상승은 가족관계와 생활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삶의 방식과 생활시간의 변화는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김지현·최영준(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그리고 돌봄 피해를 겪은 가구의 가족 구성원 간 관계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6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위기를 경험했는데 이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보다도 돌봄 공백이 더 큰 위기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지만 가사분담에 대한 성별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기존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은 가사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남성의 가사노동 증가율은 약 28%에 못 미친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율은 37%에 달해 가정 내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연·이재림·장영은(2020)²⁾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이



증가하여 가사노동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비율이 33.0%나 되었고, 자녀 돌봄이 힘들어졌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1%였으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노동과 돌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 내 돌봄과 가사노동의 성별화가 더욱 심각해진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표 II-2-2> 코로나19 관련 가족 연구 및 조사

주제	제목	유형	발행처
가족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토론회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가족갈등	코로나19에서 겪는 가족갈등, 가족 내 성평등, 나아가 소통	정기간행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탐색-센터 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학술연구논문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한부모 가족, 주거 스트레스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 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영향요인	학술연구논문	대한부동산학회
1인 가구 주거 불안, 주거정책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 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정기간행물	국토연구원
가족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학술연구논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가족 정책	가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지도, 이용정도, 이용만족도 및 요구도	학술연구논문	한국가족정책학회
가족생활	소셜 빅데이터로 알아본 코로나19와 가족생활: 토픽모델 접근	학술연구논문	한국콘텐츠학회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코로나19 상황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실태와 요구	정기간행물	육아정책연구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COVID-19팬데믹 기간 동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지원 요구	학술연구논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가족관계 만족도, 남성 가사분담	코로나19 시기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남성 가사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학술연구논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정혜원·김미정·노경혜·정요한(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 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pp. 16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정부의 1차 관심이 방역과 경제회복에 집중되면서 다양

2)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연·이재림·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Environ.Res. Vol.58, No3, pp.447-461.



한 영역에서 여성 소외가 일어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연스레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자 교육·돌봄 제공을 하는 곳으로 전제되면서 여성들의 이중노동이 보다 심화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의 심화 현상은 돌봄 영역에서 특히 많이 논의되었다.

김영란(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가구(67.9%)와 외벌이(89.9%)가구의 여성 모두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 자녀를 주로 돌보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돌봄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가구의 남성은 5.9%만이 자녀를 주로 돌본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가구 여성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의 돌봄을 부담한 것에 그쳤다.

2020년 9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돌봄 공백의 대응과 관련해 분석하고 있는 김지현(2021)³⁾의 연구는 돌봄 공백의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를 이용한 가구는 18%에 그쳤고 여성, 임시직, 특고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돌봄 관련 제도를 더 많이 이용했고, 긴 시간동안 이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데도 관련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제도가 없거나 있는지 몰라서’(16.5%)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고, 남성은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12.1%)거나, ‘돌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9.8%)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이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이후의 시기와는 상관없이 자녀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공적 돌봄 영역에도 적용되어 성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위기의 남녀 인식 차이가 가정 내 성역할 분업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코로나19가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친 커다란 변화 중 한 가지는 아동이 혼자 집에 있거나 온라인 원격수업 등을 혼자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돌봄 공백의 문제이다. 굿네이버스가 조사한 「아동 재난 대응 실태 조사」⁴⁾ 결과에 따르면,

3) 김지현(2021). 코로나19는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복지국가연구센터 [이슈특집]

4) 이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6개 권역 만 4~18세 아동과 보호자 약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만 집에 있었던 날’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내내’라고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고등학생(28.1%), 중학생(22.7%), 초등 고학년(15.5%), 초등 저학년생(4.5%), 미취학 아동(0.5%)순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만 집에 있었던 날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증가’했다고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이 30.3%(‘해당 없음’을 제외하면 68.1%에 해당함)나 되었다(이봉주 외, 2020). 또 김영란(2020)⁵⁾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2%였으며, 맞벌이가정(8.8%/평균시간 2시간 46분)의 미취학 아동이 외벌이가정(3.5%/평균시간 2시간 14분)의 미취학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8.3%이며 맞벌이가정(50.5%/평균시간 4시간 45분)이 외벌이가정(26.6%/2시간 23분)에 비해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 자녀보다 초등 돌봄 아동 자녀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돌봄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꾸준히 확충해온 사회적 돌봄시스템이 너무도 쉽게 무력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돌봄의 가정화, 여성화로 쉽게 회귀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표 II-2-3> 코로나19 관련 돌봄 위기 연구 및 조사

주제	제목	유형	발행처
유,무급 돌봄 노동자/자녀돌봄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무급 돌봄노동 /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	정기간행물	한국노동연구원
아동돌봄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시사점	정기간행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돌봄, 성평등	성평등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아동돌봄 불평등 쟁점과 시사점	정기간행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정책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5)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rief 60호.



II.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

육아분야 대응체계, 돌봄 유치원, 어린이집의 대응체계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방문돌봄 서비스 대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돌봄노동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주소:2008~2019 돌봄노동자 규모와 임금변화를 중심으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양립 현실	코로나-19 속 한국의 일가족 양립 현실, 위기로 끝낼 것인가, 변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정기간행물	한국자치학회
아동돌봄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학술연구 논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유아 놀이 지원 방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교실의 변화와 놀이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학술연구 논문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학술연구 논문	한국행정학회
아동·청소년 일상생활, 행복감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와 행복감의 관계	학술연구 논문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의 삶	빅카인즈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학술연구 논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긴급보육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보육의 실태와 과제	학술연구 논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과제	코로나19시대의 보육: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과제	학술연구 논문	한국보육지원학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학술연구 논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학술연구 논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아동의 정서, 학업발달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와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	학술연구 논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인적자본투자 불평등	코로나19와 불평등-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학술연구 논문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폭력, 학대, 가정폭력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경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 논문	한국아동복지학회
돌봄정책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생아 돌봄	신생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2021 업데이트	학술연구 논문	한국모자보건학회
돌봄정책	코로나19 이후 젠더 정의를 위한 돌봄정책의 재설계	세미나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돌봄의 공공성, 국가 역할	코로나19 위기 속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학술연구 논문	경남대학교 극동문 제연구소

정혜원·김미정·노경혜·정요한(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pp. 17~18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이 제한, 위축되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현실에서는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정책 대응이 오히려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 블루로 일컬어지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불안, 우울, 불면과 자살 경향성 등이 증가되며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들도 필요하다.

<표 II-2-4> 코로나19 관련 여성의 건강과 젠더폭력 연구 및 조사

주제	제목	유형	발행처
젠더폭력, 가정폭력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자료집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프랑스 정책 대응	코로나19 이동 제한 시기에 급증한 가정폭력 문제와 프랑스의 정책 대응	정기간행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젠더폭력, 가정폭력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정기간행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학술연구논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신건강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학술연구논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부부갈등	코로나-19시대 재택근무로 전환된 부부의 갈등	학술연구논문	한국가족학회



II.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

	경험과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아내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신건강	학술연구논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불안과 불면증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예비연구: P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학술연구논문	한국심리학회
정신건강	코로나19 팬데믹 1년 경과, 멘탈데믹[정신건강 팬데믹] 경고!	정기간행물	경기연구원
건강안보	코로나19와 인간안보	정기간행물	서울특별시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불안과 스트레스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중심으로	학술연구논문	한국콘텐츠학회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권	코로나 시대의 취약계층근로자의 건강권보호	학술연구논문	건강정책학회

정혜원·김미정·노경혜·정요한(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
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pp. 19

02 코로나19 이후 여성가족정책 환경 분석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초래한 팬데믹 상황은 여성들이 이미 취약한 경제활동, 폭력, 건강 등의 영역에서 오히려 차별적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UN과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여성에게 초래할 손실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특정 역할(돌봄 등), 여성이 확보한 권력과 자원에서의 격차 모두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건강, 돌봄, 노동, 젠더폭력 등의 영역에서 여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장은하·김희, 2020).

UN와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코로나19가 여성에게 가져올 손실 내용을 분류한 영역을 기준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성불평등 이슈와 위기,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면 <표 II-3-1>과 같다(정혜원·김미정·노경혜·정요



한, 2021 : 20)

<표 II-3-1> 코로나19로 인한 성불평등 이슈 및 현재 상황

구분	성불평등 이슈	기존성불평등위기+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중첩	코로나19와 현재 상황
노동	고용이탈, 소득감소	노동시장내 여성의 낮은 자위 +대면기반활동의 중단·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로 인한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직 및 소득 감소의 심화, 고용 유지 어려움 - 여성의 빈곤화 가속
돌봄	돌봄 집중 심화, 사회적 돌봄 공백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여성 편중과 가치절하 + 공적 돌봄 중단·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돌봄 증가) 학교, 육아 시설, 노인/장애인 돌봄 시설 등의 폐쇄로 가정 내 여성에게 돌봄 부담 증가 - (가정 내 돌봄 증가) 전염병 확산으로 가족 건강관리 부담 증가 - (가정 밖 돌봄 증가) 가정 밖에서도 여성의 돌봄노동 증가 (필수노동자의 대부분이 돌봄 노동자이자 여성 노동자)
건강과 젠더 폭력	건강	의료접근 제한 감염위험에의 노출 스트레스와 우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대응 중심의 의료 지원으로 일상적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 여성직종인 보건·돌봄 종사자의 전염병 감염 위험 증가와 안전 체계 미구축 -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 자살의 증가
	젠더 폭력	가정폭력 증가 디지털 성범죄 증가 감염병대응을 위한 피해자지원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 가정 내 격리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II.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

			계 폐쇄	거리 두기 실패, 피해지원시설 접근 제한 등 - 학교 폐쇄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량 증가 및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증가
--	--	--	------	---

정혜원·김미정·노경혜·정요한(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pp. 20.

Ⅲ.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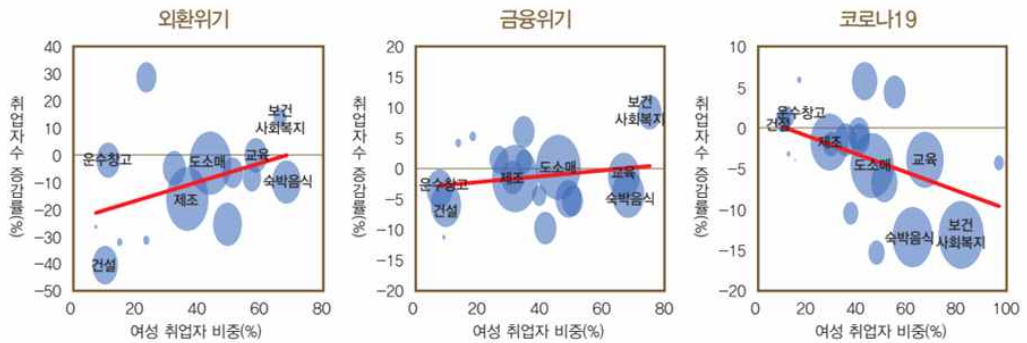




III.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01 경제활동

코로나로 인한 고용악화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경기침체시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그림 III-1-1>은 1990년대 이후 겪은 3차례의 위기 상황에서 고용의 남녀 성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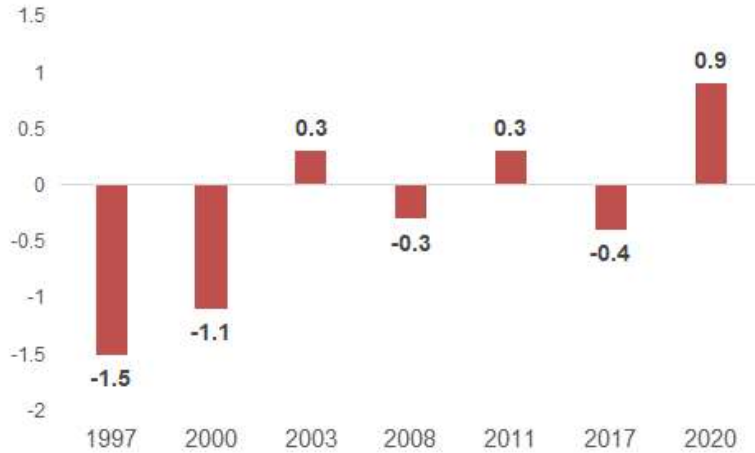
- 주 1) 산업 대분류 기준
- 2) 취업자수 증감률은 외환위기(1996) 97.11월~99.2월, 금융위기(2007) 08.8월~09.2월, 코로나19(2019) 20.2월~21.1월 기준
- 3) 원의 크기는 취업자수 규모를 나타냄
- 4) 선은 추세선을 나타냄

자료: BOK 이슈노트 No. 2021-8

<그림 III-1-1> 경기침체시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률



세 시기 중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여성집중 업종에서 취업자의 비중의 감소 폭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 교육 등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큰 업종의 취업자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 1) 여성 고용률 하락폭 - 남성 고용률 하락폭. 양수이면 여성 고용률 하락폭이 더 큼
 2) 해당연도는 경기침체가 시작된 해. 변동폭은 경기침체기 직전월 대비 경기침체기중 최소값의 차이
 자료: BOK 이슈노트 No.2021-8

<그림 III-1-2> 경기침체시 성별 고용률 변동

성별 고용률 하락폭⁶⁾으로 보면, 1997~2000년과 2008년은 -값으로 남성 고용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2020년은 0.9%로 여성 고용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전 경기 침체시에는 오히려 여성 집중 업종의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까지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구조 조정 등으로 남성 실직이 나타나며 여성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는 뚜렷한 여성 고용 하락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의 2021년 5월 발표에서도 코로나19 발생이후 월별 여성취업자수가 코로나 이전(2021년 1월과 2020년 2월 비교)보다 5.4% 가량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6) 여성고용률 하락폭과 남성 고용률 하락폭의 차이를 비교한 수치이다.



가.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 변화

전국과 경북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고용 추이 등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서 성별 고용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Ⅲ-1-1> 성별 종사상 지위 구성

		전국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2019	전체	44,601	28,373	16,228	63.6	61.7
	여자	22,658	12,248	10,410	54.1	52.5
	남자	21,943	16,125	5,818	73.5	71.1
2020	전체	44,853	28,117	16,736	62.7	60.4
	여자	22,785	12,056	10,729	52.9	51.1
	남자	22,067	16,060	6,007	72.8	70.0
		경북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2019	전체	2,319	1,502	816	64.8	62.9
	여자	1,163	634	529	54.5	53.4
	남자	1,156	868	288	75.1	72.3
2020	전체	2,320	1,489	831	64.2	62.0
	여자	1,162	622	540	53.5	51.6
	남자	1,158	867	291	74.9	72.4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2021년 10월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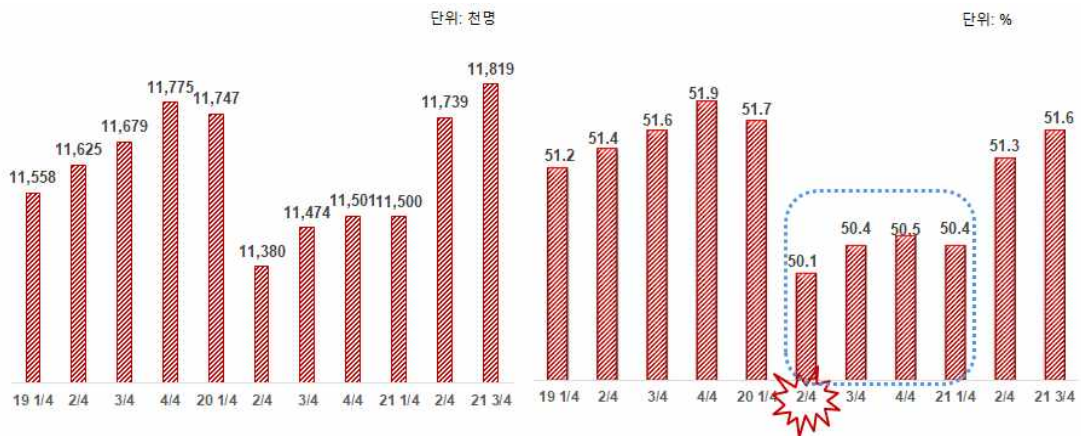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72.8%)은 전년 대비 0.7% 하락한데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52.9%)은 1.2% 하락해 성별 경제활동참가 격차가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9년 대비로 남녀 모두 감소하였으나, 남성은 189천명 감소, 여성은 319천명 감소로 여성 감



소폭이 더 크다.

경상북도는 2020년 기준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74.9%)이 전년 대비 0.2% 하락한 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53.5%)은 1.0% 하락해 남녀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9년 대비로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였으나, 남성은 3천명, 여성은 11천명 감소해 4배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는 남녀 공통이지만, 경북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여성 고용 하락이 뚜렷하다.



자료: 통계청, 계절 조정 경제활동 인구 조사(2021년 10월 검색)

<그림 III-1-3> 전국 여성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분기별)

<그림 III-1-3>의 여성 취업자수와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2020년 2/4분기가 최저 수준(이전분기 대비 36만 7천명 감소)이며, 이후 소폭 상승 우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낸다. 이는 백신접종 확대 때문으로 이후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률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2020년 2/4분기부터 2021년 1/4분기까지 매우 낮게 나타난다.



III.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자료: 통계청, 계절 조정 경제활동 인구 조사(2021년 10월 검색)

<그림 III-1-4> 경북 여성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분기별)

<그림 III-1-4>을 통해 여성 취업자수와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경북은 코로나 확산 초기 피해가 컸던 탓에 2020년 1/4분기의 감소(전분기 대비 4만 3천 명 하락)가 뚜렷하다. 이후 2/2 분기부터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고용률 하락폭도 낮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탓이다. 하지만, 전국과 비교할 때 각 연도 1/4분기가 더 낮은 고용율은 경북의 여성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기간제 비중이 높음을 드러낸다. 뿐만아니라 2021년 이후 백신 접종과 함께 전국 여성 고용률이 0.1% 상승한데 반해 경북은 1.3% 하락하고 있어, 코로나19가 경북의 여성 일자리에 더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여성 고용구조

코로나19 이후 성별 고용격차가 커졌으며, 특히 경북은 타지역보다 여성 고용 여건이 더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팬데믹 위기에 취약한 여성 고용의 구조적 특징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종사상 지위 및 업종, 직종별 성별 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2> 성별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천명(%))

		전국			경북		
		합계	여자	남자	합계	여자	남자
2019	상용(임금)	14,216	5,680 (40.0)	8,536 (60.0)	607	231 (38.1)	376 (61.9)
	임시/일용직(임금)	6,224	3,405 (54.7)	2,819 (45.3)	280	154 (55.0)	126 (45.0)
	비임금	6,683	2,576 (38.5)	4,108 (61.5)	534	214 (40.1)	319 (59.9)
	합계	27,123	11,660	15,463	1,422	599	823
2020	상용(임금)	14,521	5,855 (40.3)	8,667 (59.7)	634	237 (37.4)	397 (62.6)
	임시/일용직(임금)	5,811	3,173 (54.6)	2,637 (45.4)	266	149 (56.0)	116 (43.6)
	비임금	6,573	2,495 (38.0)	4,077 (62.0)	536	213 (39.4)	324 (60.4)
	합계	26,904	11,523	15,381	1,437	599	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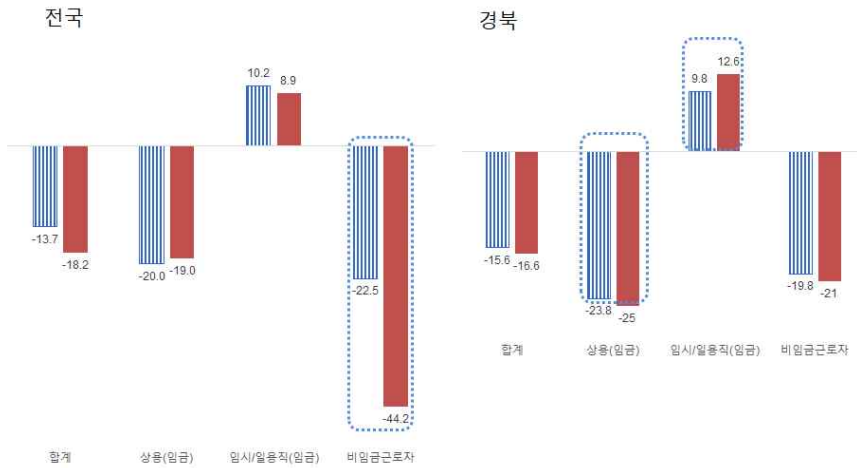
자료: 경북e 보이는 젠더 통계(<http://gs.forwoman.or.kr/main/index.do>) 2021년 12월 검색

성별 종사상 지위는 2020년 기준으로 상용은 여성(40.3%)이 남성(59.7%)보다 낮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도 여성(38.0%)이 남성(62.0%)로 낮은데 반해, 임시/일용직은 여성(54.6%)이 남성(45.4%)보다 높다. 경북의 경우 상용은 여성(37.4%)이 남성(62.6%)보다 낮고, 비임금도 여성(39.4%)이 남성(60.4%)로 낮은데 반해, 임시/일용직은 여성(56.0%)이 남성(43.6%)보다 높다.

여성의 낮은 상용근로자 비중과 임시/일용직의 높은 비중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정규직 비중과 함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국평균보다 더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을 통해 여성 고용 취약성이 더 뚜렷하다.



III.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주: 종사상 지위별 여성 비중 - 종사상 지위별 남성 비중. 양수이면 여성 고용 비율이 더 높음
 비임금 근로자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고용인 있는/없는)를 포함함
 자료: 경북e 보이는 젠더 통계(2021년 12월 검색), 연구자 작성

<그림 III-1-5> 종사상 지위별 성별 격차

<그림 III-1-5>는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성별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값은 남성 비중이 크다는 의미하고, +값은 여성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임시/일용(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는 이전 연도보다 여성비중이 감소했으나, 오히려 상용직은 여성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북은 임시직 여성 비중만 증가하고, 상용직과 비임금 모두 여성 비중의 감소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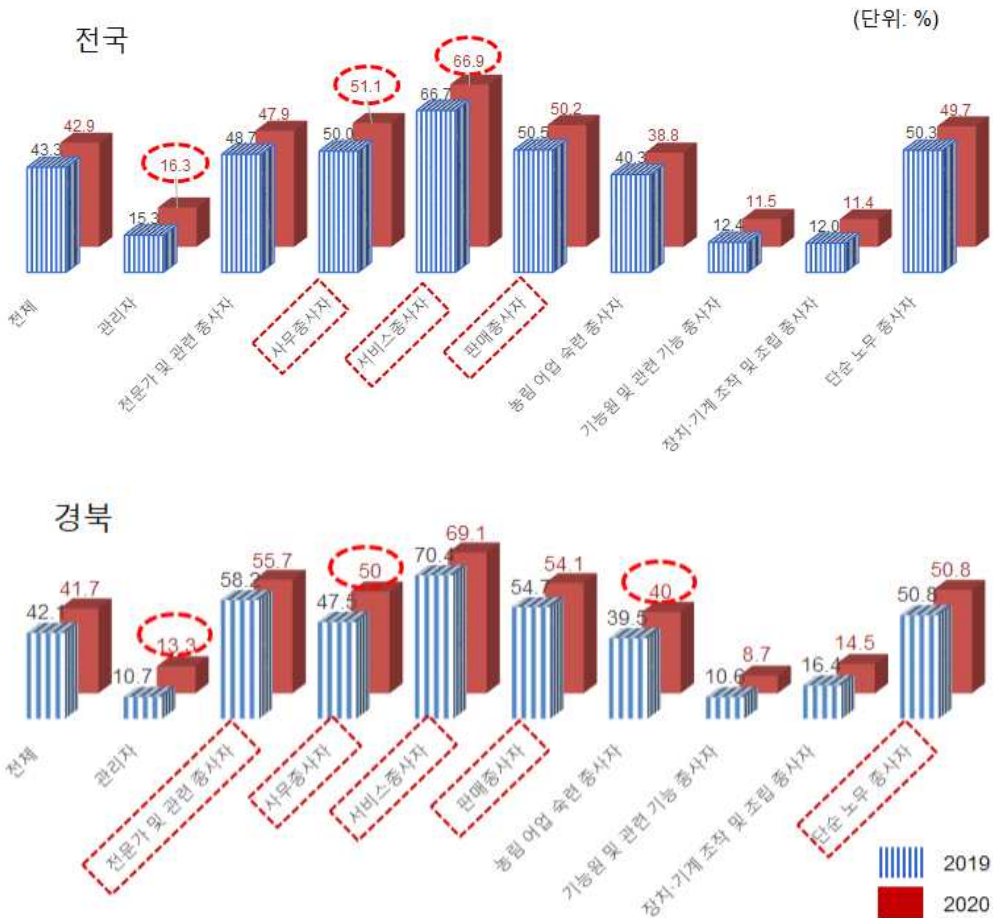
경북 여성 취업자의 상용직 및 비임금 비중 감소와 임시 일용직의 증가는 경북 여성 고용률 하락과 함께 일자리의 안정성의 악화를 드러낸다.

전국에서 여성취업 비중이 높은 직종은 2020년 기준으로 서비스 종사자(66.9%), 사무종사자(51.1%), 판매종사자(50.2%), 단순노무종사자(49.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7.9%) 순이며, 여성 취업 비중이 낮은 직종은 관리자(1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1.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1.4%)순이다.

경북의 여성취업비중이 높은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69.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5.7%), 판매종사자(54.1%), 단순노무종사자(50.5%), 사무종사자(50.0%) 순이며, 여성 취업 비중이 낮은 직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4.5%), 관리자(13.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7%) 순이다.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21년 10월 검색)

<그림 III-1-6> 직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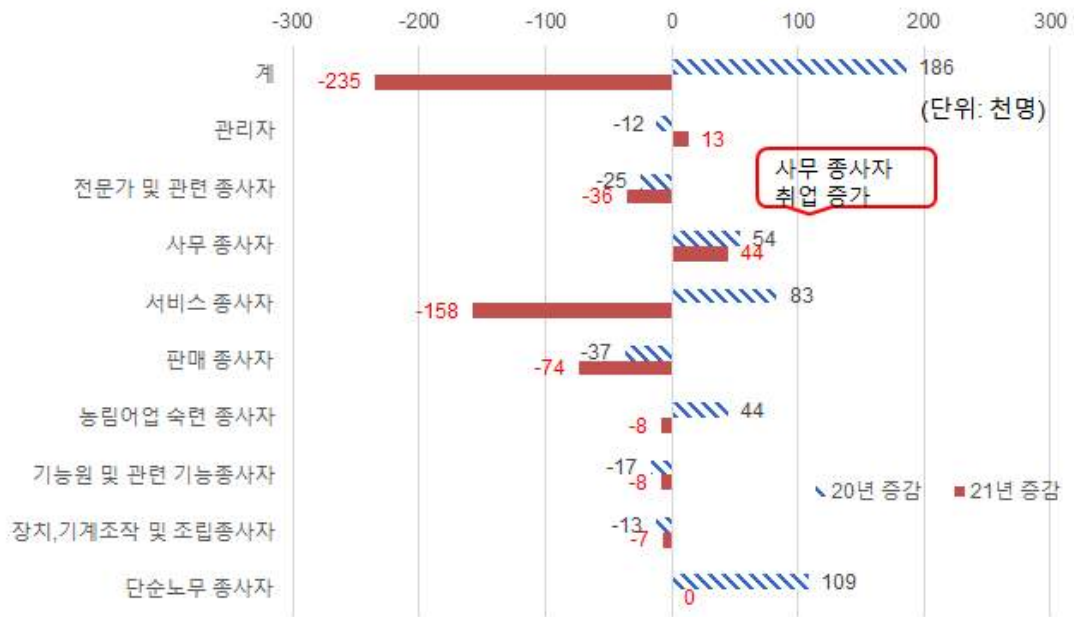
전국과 경북의 여성 취업 비중을 비교해 보면, 경북은 여성취업비중이 높은 직종으로의 편향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다양한 분야 진출에 대한 제약을 드러낸다. 또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III.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 취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볼수도 있으나, 실제 현실은 차이를 보인다. 최희선(2017)은 노동 시장내 여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의 증가와 임금격차의 문제를 분석하며, 전문직내 여성집중 직업으로 영양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보건의로 관련 종사자, 큐레이터/사서 등 6가지 직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여성 전문직의 확대는 저임금의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유치원 교사 등 돌봄 노동자가 주도했음을 알수 있다. 경북의 높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도 아이돌봄부터 노인돌봄까지 복지와 결합된 여성의 돌봄 노동 취업 비중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전년대비 2020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취업률은 전국(43.3%→42.9%)과 경북(42.1%→41.7%) 모두 감소 추세이다. 여성 취업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전국적으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이며, 경북은 관리자·사무종사자·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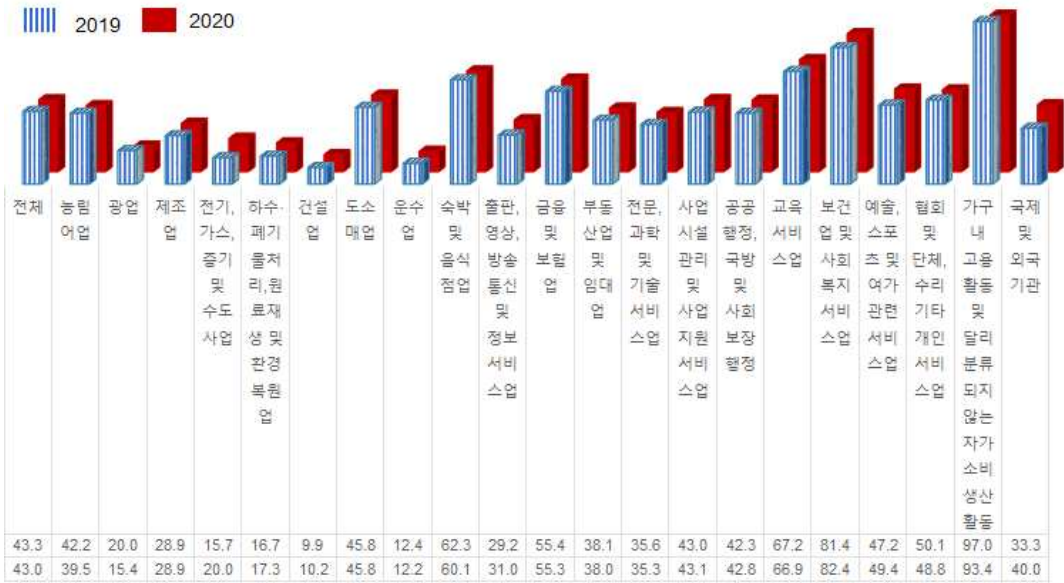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계절 조정 경제활동 인구 조사 (2021년 6월 검색)

<그림 III-1-7> 전국 직종별 여성 취업자 증감(2019~2021 1/4분기)



<그림 III-1-7>을 통해 전국의 직종별 여성 취업자 증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이 여성 취업자 감소 업종이며, 사무종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대면 서비스업의 감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2021년 10월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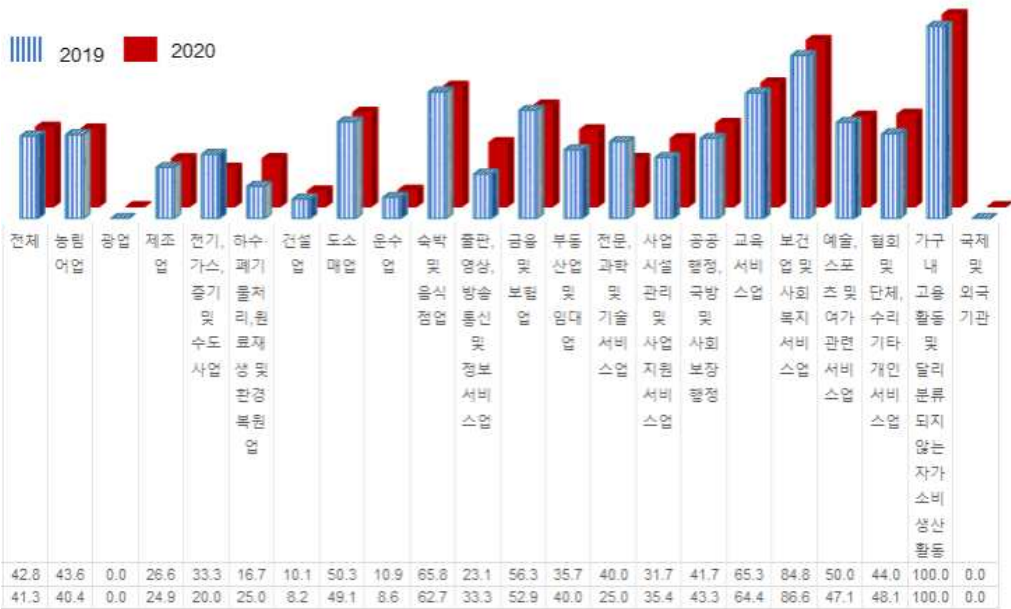
<그림 III-1-8> 전국 업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변화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93.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2.4%), 교육서비스업(66.9%), 숙박 및 음식점업(60.1%), 금융 및 보험업(55.3%)로 모두 여성 고용이 50% 이상이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여성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업종으로는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III. 여성가족의 삶의 변화와 주요 이슈

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이다. 여성 취업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여성 고용 비중이 낮은 기술직이나 기능 등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여성 비중이 낮은 편인 업종이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2021년 12월 검색

<그림 III-1-9> 경북 업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변화

경북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10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6%), 교육서비스업(64.4%), 숙박 및 음식점업(62.7%), 금융 및 보험업(52.9%) 순으로 여성 비중이 높으며, 모두 여성 고용이 50% 이상이다. 전년 대비로 2020년 여성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으로 전국보다 여성 취업



비중이 증가한 업종이 적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여성 고용 하락은 분명한 현상이며, 또한 성별 고용 불평등이 강화되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경북 여성은 임시/일용직에서만 남성보다 높은 취업 비중을 보이며, 코로나 이후 상용 근로자의 비중도 감소해 타지역보다 여성 고용 여건이 하락했음을 드러낸다. 또한 주요 여성집중 직종은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이며,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에 여성취업이 집중되어 있다. 여성 고용이 집중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에서 여성 비중이 높다.

지위와 직종 및 업종을 통해 본 여성의 주요 일자리는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고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비필수 고대면 업종은 고용악화로 실직의 위협을, 필수 고대면 업종은 저임금에 업무 가중과 감염의 위험성까지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는 늘어나고 있는 여성 고용의 문제점을 뚜렷히 드러내고 있다.

02 가족생활·돌봄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국경 폐쇄, 여행 금지 등의 이동 제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수용에 따른 의료 체계의 붕괴,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교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봉주·장희선·선우진희·길보라, 2020; 정익중, 2020)⁷⁾⁸⁾. 이

7) 이봉주·장희선·선우진희·길보라(2020).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사회복지지법인 굿네이버스.

8)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여름호 Vol.13, pp. 47-59.



러한 미증유의 위기는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사회의 돌봄(아동)과 가족 영역의 변화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아동) 영역의 변화와 영향

우리나라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약 2년 가까이 4차례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돌봄 교실, 유치원·어린이집과 도서관 등의 공적 교육·돌봄체계가 5차례 이상의 휴원·휴업·휴관 조치로 재연장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긴급 돌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고 개별 가정에서는 자녀 돌봄과 학교 교육이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학교의 역할을 병행하게 되었다(최윤정, 2021)⁹⁾.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조치 후 공적 돌봄과 학교의 역할을 개별 가정에 분담하였지만, 여전히 교육·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변화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적 돌봄의 공백과 초기 대응 정책의 한계로 자녀 돌봄의 책임이 국가에서 가족으로 회귀되면서 자녀양육가구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이다.

최윤정(2020)¹⁰⁾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양육가구의 소득과 근로 시간은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고 부모의 학력에 따라 부의 경제활동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가구의 소득 감소는 자녀 돌봄 공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0년과 2021년 모두 소득 수준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는 가정에 비해 ‘나홀로 아동’과 아동의 결식 경험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타임즈, 2021.7.5.).¹¹⁾

9) 최윤정(2011). 코로나19와 아동 돌봄. 통계청·통계개발원 2021 사회동향.

10)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CEC) 전략. 보건복지포럼(2020.12.), pp.50-63.

11) 복지타임즈(2021.7.5.) “코로나19 1년...경제 불평등·돌봄 공백, 양육 스트레스 심화(인출일: 2021.12.17.)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1>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분석 연구한 은기수(2020)¹²⁾¹³⁾는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돌봄에 대한 성별 불평등과 여성 간의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격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은기수는 만 0~12세 자녀를 한 명이라도 둔 기혼남녀에게 본인의 무급 자녀 돌봄 시간과 배우자의 무급 자녀 돌봄 시간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 부부 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무급 자녀 돌봄에 하루 평균 5시간 3분을 사용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맞벌이가구의 일하는 여성은 하루 평균 6시간 57분을 무급 자녀 돌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9시간 6분을 자녀 돌봄에 사용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유치원·유아원·학교의 등교 정지로 인해 자녀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더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에 큰 격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가구에 속하는 일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 평균 50분 더 증가한 3시간 54분을 무급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전업주부이며 홀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약 30분 정도 더 증가한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을 무급 자녀 돌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변화와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도 자녀양육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조사한 2021년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안함, 지루함,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이 2020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 무기력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6.7점에서

12) 서울대 국제대학연구소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 돌봄 설문조사(자녀돌봄조사)의 온라인 서베이 자료”로 만 0~12세까지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약 25일간에 걸친 자녀 돌봄조사에 1,252명이 응답하였다.

13)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2021년 7.1점(10점 만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과 보호자는 각각 7.2%, 10.4%로 나타났다(복지타임즈, 2021.7.5.).

종합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 돌봄의 변화와 영향은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돌봄 공백의 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양육 스트레스의 심화는 돌봄을 주로 맡고 있는 여성(전업주부, 맞벌이가정의 여성 등)에게서 가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는 맞벌이가구, 취약가구, 초등 돌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와 가정 내 돌봄 지원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의 돌봄 인식에 대한 전환과 돌봄 제도의 안내가 필요하고 남성 돌봄 분담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나. 코로나19와 가족 영역의 변화와 영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지만, 가정 내에서의 돌봄 분담과 여성, 특히 맞벌이 가정의 여성과 전업주부의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 2018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49.1%에서 2020년 54.7%로 5.6%p 상승했지만,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도 2018년 5.3%에서 2020년 7.9%로 오히려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층에서는 부인이 가사분담을 전담해야 한다는 경향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코로나19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 III-2-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경북)

구분		15세이상인구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8	계	100.0	5.3	43.9	49.1	1.4	0.3
	여자	100.0	4.3	41.9	52.5	1.1	0.2
	남자	100.0	6.4	45.9	45.7	1.7	0.4
2020	계	100.0	7.9	35.1	54.7	1.6	0.7
	여자	100.0	5.9	31.4	60.1	2.0	0.6
	남자	100.0	9.9	38.8	49.4	1.2	0.7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한국리서치 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변화(조사기간: 2020.3.13.~3.24.)’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내일신문, 2020.5.4.)¹⁴⁾,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비율은 코로나19 전에는 10.3%인데 반해 코로나19 이후에는 56.3%로 46.0%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학 연기로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학업 등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공부를 생각하니 걱정된다’(55.2점),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해 불만’(47.0점), ‘집에 있는 동안 살찌고 외모가 못생겨질까봐 걱정’(33.1점),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해 짜증이 났다’(29.0점) 순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코로나19와 경북지역의 돌봄·가족의 변화와 영향

코로나19 확산 직후, 경북지역의 청도, 봉화, 의성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요 육아지원 인프라의 휴원·휴업 조치가 내려지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가 적용되었을 때도 우리 나라의 아동 돌봄의 변화와 영향과 마찬가지로 공적 돌봄과

14) 내일신문(2020.5.4.) “초등생 절반, 코로나19 개학연기 기간 성인보호자 없이 지내”



학교의 역할이 가정 내 여성에게 가중되었다. 이 시기에 조사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¹⁵⁾ 결과를 보면, 돌봄 공백을 겪은 가구는 2020년 3월 36.2%, 2020년 7월 37.5%로 나타났으며,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구,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봉화, 의성), 취약가구,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가구의 돌봄 취약특성이 드러났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돌봄 공백이 외벌이가구에 비해 컸고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외벌이가구의 돌봄 공백도 약 30%로 증가하여 돌봄의 취약성을 보여 주었다. (최윤경, 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휴원·휴업 기간 동안 경북지역의 아동 돌봄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직접 돌봄이 높았으며,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조부모/친인척 돌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아동 돌봄 가구 내에서도 영유아 자녀 가구보다 초등 돌봄 자녀 가구의 돌봄 공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지역 초등 돌봄 방과후돌봄서비스 필요도는 2020년(39.4%)에 비해 2021년(47.6%)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저학년일수록 필요도가 높았다(김수연·정서린·진혜민·유은경, 2021).¹⁶⁾

공적 돌봄 체계의 휴원·휴업 및 긴급돌봄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연령 및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증가와 사교육 및 민간돌봄 서비스 이용이 많아졌고, 특히 아동 돌봄 가구에서는 돌봄 공백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경제활동 및 소득의 변화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직장생활유지의 어려움 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확산은 여러 차원의 가족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최윤경, 2021).

경북 e-보이는 젠더 통계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여성(60.7%)이 남성(59.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2016년 대비

15)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의 자녀양육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16) 김수연·정서린·진혜민·유은경(2021). 경상북도 마을돌봄지원센터(가칭) 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1-5.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9년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여성(59.8%)이 남성(58.9%)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가사분담률을 보면,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에 답한 비율이 여성 48.7%, 남성 51.9%로 가장 많았다.

최근 본 연구와 관련하여 조사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민 생활 변화 및 정책요구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이 ‘나빠졌다’라는 응답이 63.2%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 층에서, 세대수가 많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삶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희(2021)¹⁷⁾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생활 패턴(활동저하, 수면의 질 저하, 초조 등)과 코로나19 감염 불안 등으로 인해 우울과 외로움,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가족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60대 연령층과 전업주부층에서는 자녀(가족)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에서의 음식준비와 배달음식 주문의 증가, 그리고 1인 가구/형제·자매 층에서는 온라인 장보기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다소 감소하였는데 여성(53.0%)이 남성(75.5%)에 비해 22.5%p 낮아 성별 격차가 나타났고 자녀 돌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취업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손제희, 2020).¹⁸⁾ 이에 대한 다차원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7) 이소희(2021).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유행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대한 소아청소년저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18) 손제희(2020). 2020 젠더통계로 보는 경북 여성가족의 삶. 연구보고서 2020-10.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의 돌봄·가족 정책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산 시기 동안 재난 취약·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지원시책을 진행해 왔다. 그 중에서 여성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원 시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의료진·방역인력 특례’,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격리자 생활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위기가구 등)’이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문화가정·특수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운영, 23개 시·군의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표 III-2-2> 경상북도·도교육청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현황

지원 분야	지원 시책	주요 내용	진행여부
경상북도 (생활·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의료진·방역인력 특례	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요금(시간당 10,040원)의 80%~100%(전액 무료) 할인	진행
	아이돌봄서비스 일반 특례	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요금(시간당 10,040원)의 70%~100%(전액 무료) 할인	진행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조건 만족자에 대해 1회(1개월분) 1인 474,600원 지원	진행
	긴급복지지원(위기가구 등)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진행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종료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종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일반·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	사업종료
	격리자 주거비 지원	조건 만족자에 대해 월 임대료 20%(가구당 한도 10만원) 지원	사업종료
도교육청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 인파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온종일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경북형 온 돌봄교실	진행중
	지역돌봄협의체	23개 시군별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	진행중
	특수학교(급)를 위한 올바른 도전행동 중재 환경 마련 사업	코로나19 사태 속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내 특수교육 학생 지원(심리안정실과 배려공간 강화, 교실환경 개선, 놀이·치유·쉼터 등의 여가공간 등)	진행중



다문화 학생, 특수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춘 경북 소재 4개 대학교(안동, 대구, 영남, 구미대)를 선정해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을 주말과 방학 기간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진행중
--------------------------	---	-----

자료: 경북도청홈페이지_경북도청 코로나19 대응 시책(2021.12.21.인출); 매일신문(2021.11.15.)¹⁹⁾²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학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여성가족부 협력 가정내 돌봄지원과 시설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다문화·한부모·조손·맞벌이 가정에 방문교육지도사, 배움지도사, 아이돌보미, 건가다가센터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초등·중학생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원격학습에 필요한 시설, 원격학습 등을 지원하였다.

<표 III-2-3> 지자체-여성가족부 협력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현황

방식	사업	대상	지원 서비스
가정내 돌봄 지원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원격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배움지도사	한부모 조손가족초등 학생	
	아이돌보미	맞벌이가정등 초등학생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 등 준비물 보조 학습 분위기 조성(소음 억제 등) -돌봄대상아동의 학습상황 관찰 등
	건가다가센터	초·중학생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온라인 학습지원(지역 교육지원청 연계)
시설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4학년~중등 3학년	방과후아카데미 원격수업지원 원격수업지원으로 인력 부족 시 대학 근로장학생 활용 원격수업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망(Wi-Fi) 및 시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생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원격 학습 지원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0. 4. 14) ,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학습지원에 나선다.

19) 경북도청홈페이지_경북도청 코로나19 대응 시책(2021.12.21.인출)

20) 매일신문(2021.11.15.) ‘온(온)종일 행복한 돌봄교실...경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03 젠더 폭력

코로나19 위기 이후 젠더 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은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및 봉쇄 등의 정부 지침으로 인해 폭력의 양상이 가정 바깥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더욱 교묘히 확산되는 가정폭력을 UN Women은 ‘그림자 전염병(shadow pandemic)’라 명명하였다(UN Women, 2020).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보호시설(쉼터)를 제외한 가정폭력 상담소는 정부의 휴관 권고에 따라 운영되었다. 휴관 권고는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가 출근 등 정상 근무를 하되,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도록 한 운영방식이다. 또 감염병으로부터 피해자와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이유로 가정폭력 관련 캠페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대면활동은 대부분 중지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역시 기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입소자의 입소가 기존보다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휴관 권고 및 운영제한 지침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권을 위한 조치이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시기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다.²¹⁾ 이중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개입 상

21) 경북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기반으로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총 46개소의 지원기관이 있다. 이중 가정폭력 관련 기관이 19(상담소 17, 보호시설 2)개소, 성폭력 관련 기관 11(상담소 9, 보호시설 2)개소, 성매매 피해자 관련 기관이 3(상담소 1, 보호시설 2)개소이며,



담(초기 긴급 상담)을 담당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관련기관을 연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현황 파악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건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상담 실적을 보면 2020년 현재 총 상담건수는 16,167건이다. 이중 폭력피해 상담이 약 78.3%이며, 일반상담이 21.6%를 차지한다. 일반 상담을 제외한 폭력피해 상담(총12,590건)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이 11,330건(9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성폭력 640건(5.1%), 데이트 폭력 538건(4.3%), 디지털 성범죄 76건(0.6%), 성매매 68건(0.5%), 스토킹 14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상담(총2,204건)의 유형으로는 정서 및 정신건강 상담 1,970건(89.4%), 가족문제 211건(9.6%), 이주 지원 2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상담건수(2020)

(단위 : 건수)

계	폭력피해 상담						일반상담			기타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가족 문제	정서 및 정신건강	이주 지원	
16,167	11,330	640	68	538	14	76	211	1,970	23	1,277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2020)

상담 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부터 22,895명, 2019년 22,469명으로 22천명을 상회하였지만, 2020년에는 16,162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피난처 입소자 역시 2018년 643명, 2019년 581명으로 500명 이상을 상회하였으나 2020년 27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폭력피해이주여성관련 보호시설 3개소, 해바라기센터 3개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개소, 긴급피난처 6개소가 있다(배옥현, 2021, 경상북도 폭력피해 여성 지원방안 연구, p. 17-18)



<표 III-3-2> 경북 여성긴급전화 1366 내외국인 상담 실적

(단위 : 명)

구분	상담 건수			긴급피난처 입소자	
	전체	내국인	외국인	총입소자	동반자녀
2015	16,920	14,312	2,608	666	(140)
2016	15,832	13,591	2,241	705	(155)
2017	16,986	14,453	2,533	533	(141)
2018	22,895	19,408	3,487	643	(184)
2019	22,469	19,649	2,820	581	(122)
2020	16,162	13,559	2,603	281	(62)

주 : ()는 동반자녀수이고, 긴급피난처 총입소자에 포함

자료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자료방 「상담통계」(2015-2020), <http://www.kbwomen1366.org>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경북e-보이는 센터통계, <http://gs.forwoman.or.kr/sub/stats.do?num=40>

코로나 위기 시기에 상담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코로나 시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 신고 건수의 감소만으로 이러한 폭력이 줄었다는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신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9년에 시행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피해 유경험자의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혜 외, 2019). 다수의 전문가는 가정폭력 신고건수 감소를 가정폭력 사건 자체의 축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 가정 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원정·구미영·류임량·유화정·임연우(2020)의 연구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와 여성 긴급전화 1366의 월별 상담건수의 변동을 비교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때,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염 위험을 우려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를 자제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고나 상담을 저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아울러 동 연구에서는 전화, 내방 및 방문 상담은 감소한 반면 사이버 상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상



담건수의 증감 자체보다는 사이버 상담 증가 등 상담방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김원정·구미영·류임량·유화정·임연규, 2020 : 202-207).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서 가해자의 일상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이 더욱 고립될 수 있음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²²⁾

22)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만 6,866명으로 1년 전 1만 4,38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를 통계로 산출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자체가 늘어난 데다 검경이 디지털성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21. 12.7. '코로나속 디지털 성범죄 급증...작년 1만 6,866명 적발')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0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및 대상, 방법

코로나19에 대한 경북도민의 경험과 어려움, 정책요구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북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부터 60대까지 성인 남녀로 하였으며, 지역, 연령별 인구 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를 산정하고, 조사는 표본 수를 기준으로 과소 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 표집(quota sampling) 하였다.

표본 수는 500명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37p$ 이내이다.

지역의 경우, 23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연령별 구간은 25~39세, 40~50대, 60대로 나누어 인구 수 비례 표본 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당 표집하였다.

<표 IV-1-1> 조사 권역

구분	시	군
동부권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남부권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의성군
서부권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
북부권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청송군



<표 IV-1-2> 인구수 비례 표본할당표

전체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합계	1,681,810	100.0%	500	874,970	52.0%	259	806,840	48.0%	241
25-39세	429,390	25.5%	127	234,081	13.9%	69	195,309	11.6%	58
40-50대	843,170	50.1%	251	437,948	26.0%	130	405,222	24.1%	121
60대	409,250	24.3%	122	202,941	12.1%	60	206,309	12.3%	62
동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합계	552,641	32.9%	163	284,906	16.9%	84	267,735	15.9%	79
25-39세	136,614	8.1%	40	74,804	4.4%	22	61,810	3.7%	18
40-50대	278,899	16.6%	82	142,762	8.5%	42	136,137	8.1%	40
60대	137,128	8.2%	41	67,340	4.0%	20	69,788	4.1%	21
남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합계	427,599	25.4%	127	226,397	13.5%	67	201,202	12.0%	60
25-39세	105,602	6.3%	31	58,313	3.5%	17	47,289	2.8%	14
40-50대	212,301	12.6%	64	112,867	6.7%	34	99,434	5.9%	30
60대	109,696	6.5%	32	55,217	3.3%	16	54,479	3.2%	16
서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합계	464,866	27.6%	139	241,163	14.3%	72	223,703	13.3%	67
25-39세	136,393	8.1%	41	73,507	4.4%	22	62,886	3.7%	19
40-50대	235,296	14.0%	70	121,159	7.2%	36	114,137	6.8%	34
60대	93,177	5.5%	28	46,497	2.8%	14	46,680	2.8%	14
북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인구수	비율	표본수
합계	236,704	14.1%	71	122,504	7.3%	36	114,200	6.8%	35
25-39세	50,781	3.0%	15	27,457	1.6%	8	23,324	1.4%	7
40-50대	116,674	6.9%	35	61,160	3.6%	18	55,514	3.3%	17
60대	69,249	4.1%	21	33,887	2.0%	10	35,362	2.1%	11

주 :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말 기준)



<표 IV-1-3> 조사 표본 수

전체			
구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529	268	261
25-39세	128	68	60
40-50대	266	140	126
60대	135	60	75
동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63	87	76
25-39세	37	22	15
40-50대	85	45	40
60대	41	20	21
남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31	66	65
25-39세	30	15	15
40-50대	66	36	30
60대	35	15	20
서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43	74	69
25-39세	39	20	19
40-50대	74	39	35
60대	30	15	15
북부권			
구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92	41	51
25-39세	22	11	11
40-50대	41	20	21
60대	29	10	19

주 : 할당 표집(quota sampling)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해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ivew)로 진행하였으며, 4개 권역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 중 시 지역 1곳과 군 지역은 1곳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1-4> 조사대상 지역

권역	조사대상 지역(시)	조사대상 지역(군)
동부권	포항시	영덕군
남부권	경산시	칠곡군
서부권	구미시, 김천시	-
북부권	안동시	예천군

다. 조사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민 생활 변화 및 정책요구도 조사를 위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코로나 19 관련 인식, 경제 활동, 가족생활 및 돌봄으로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V-1-5> 조사 내용

부문	세부 항목
코로나19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일에서의 어려움 • 현 직장의 근무조건 •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및 빈도 •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이익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필요한 정부정책 •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코로나 지원 정책 •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보육·돌봄 및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 • 코로나 전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서의 어려움 변화 • 평소 가정 내 돌봄 대상 • 코로나 전후 주된 돌봄 방법 • 늘어난 돌봄을 담당할 가족 구성원 • 늘어난 돌봄부담 담당 방법 • 돌봄문제 지속 시 현재 일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 정책 • 코로나19 이후 갈등이 발생한 주된 가족 구성원 및 갈등 원인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으로 겪는 어려움 •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 경험 정도

라. 조사의 분석

할당 표집을 통해 조사된 표본은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전체 결과는 인구 비례 표본 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하였다.

마. 응답자 특성

조사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은 동부권(32.0%)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남성(52.0%)이 여성(48.0%)에 비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59.9%) 학력층과 고졸(29.7%) 학력층이 많았으며, 기혼(배우자 있음)층이 71.3%를 차지하였다.

가구 유형은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4.2%로 가장 많은 가운데, 1인 가구가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및 자녀 가구가 2.8%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층이 8.0%였으며, 600만원 이상 상대적 고소득층이 12.8%였다.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45.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판매종사자(17.9%), 서비스 종사자(10.4%)가 많았다.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층(22.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연령은 해당 없는 층이 58.4%를 차지한 가운데,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층이 2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생(10.7%), 영유아(~7세)(9.7%) 순이었다.



<표 IV-1-6>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구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합계		500	100.0				
권역	동부권	160	32.0	직업	관리자	27	5.4
	남부권	125	2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2.7
	서부권	140	28.0		사무종사자	226	45.2
	북부권	75	15.0		서비스 종사자	52	10.4
성	남성	260	52.0		판매종사자	90	17.9
	여성	240	48.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0	1.9
연령	25-39세	105	2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1.8
	40대	150	30.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1.0
	50대	115	23.0		단순노무 종사자	13	2.6
	60대	130	26.0		군인	4	0.8
학력	중졸 이하	24	4.9		전업주부	23	4.7
	고졸	148	29.7		무직	25	5.0
	대학 재학	17	3.4		기타	3	0.6
	대졸	298	59.9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대학원 이상	10	2.1	임시근로	35		7.1	
결혼 여부	미혼	103	20.8	일용직 근로		9	1.7
	기혼(배우자 있음)	354	71.3	자영업		114	22.9
	이혼/별거	23	4.6	무급가족종사자		10	2.1
	사별	16	3.3	해당 없음		70	14.0
가구 유형	1인 가구	88	17.7	기타	3	.6	
	부부가족	132	26.5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9.7
	부부 및 미혼자녀	220	44.2		초등학생	53	10.7
	부부 및 기혼자녀	19	3.8		중학생 이상	105	21.2
	한부모 및 자녀	14	2.8		해당 없음	290	58.4
	3세대 이상	16	3.2				
	형제자매	5	1.0				
	부부와 부모	5	1.0				
월평균 소득	소득없음	13	2.7				
	100만원 미만	26	5.3				
	100-200만원 미만	72	14.6				
	200-300만원 미만	107	21.6				
	300-400만원 미만	89	17.9				
	400-500만원 미만	86	17.3				
	500-600만원 미만	39	7.8				
600만원 이상	63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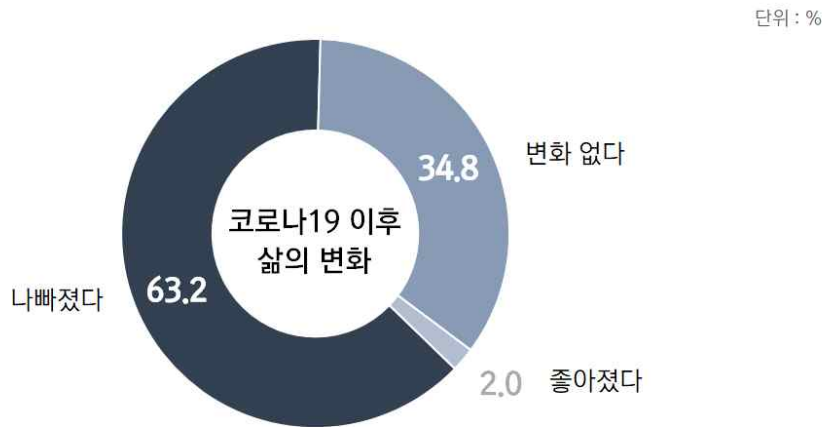


0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코로나19 관련 인식

1)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63.2%로 10명 중 6명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으며, 변화 없다는 응답이 34.8%를 차지하였다.



<그림 IV-2-1>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

계층별로 보면, 남성(56.4%)보다 여성(70.5%)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미혼층에 비해 기혼층, 세대수가 많을수록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판매/서비스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욱 많아 이들 계층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300만원 미만인 층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표 IV-2-1>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삶의 변화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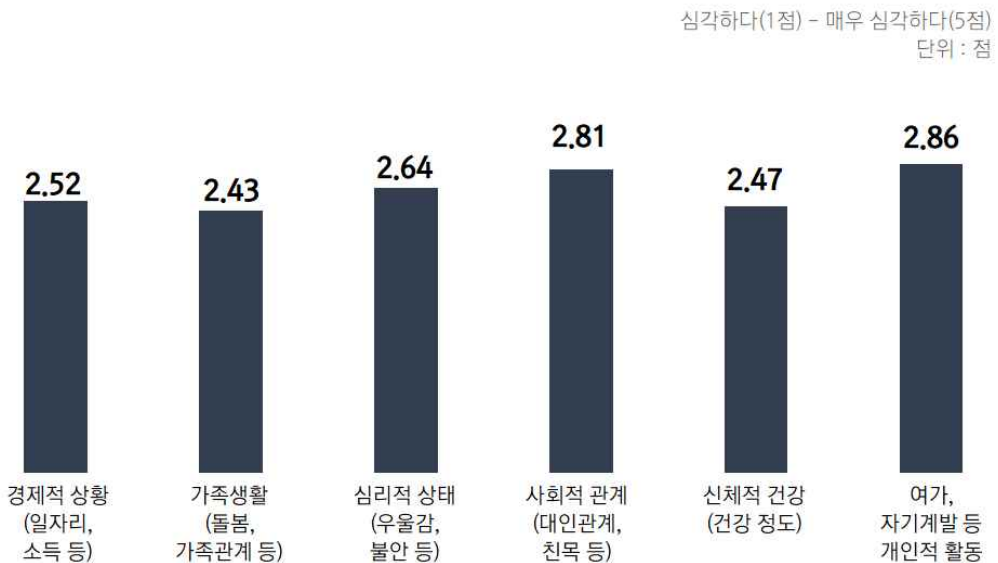
구분		나빠졌다	변화 없다	좋아졌다
합계 (500)		63.2	34.8	2.0
성별	남성 (260)	56.4	41.6	1.9
	여성 (240)	70.5	27.4	2.1
연령대	25-39세 (105)	54.0	45.1	1.0
	40-50대 (265)	62.7	33.9	3.4
	60대 (130)	71.6	28.4	
결혼 여부	미혼 (103)	53.8	44.3	1.9
	기혼 (354)	65.9	32.4	1.7
	이혼/별거/사별 (39)	64.5	30.3	5.1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3)	55.1	41.7	3.3
	2세대 (376)	64.2	34.0	1.9
	3세대 (16)	93.7	6.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8)	65.5	33.6	0.9
	300-500만원 미만 (174)	60.5	36.6	2.9
	500만원 이상 (102)	60.5	36.6	3.0
직업	경영/사무직 (266)	59.8	37.9	2.3
	판매/서비스직 (142)	80.4	18.2	1.4
	전문기술직 (27)	46.9	53.1	
	일반작업직 (13)	49.3	43.1	7.6
	전업주부 (23)	49.4	50.6	
	무직/기타 (28)	42.1	54.4	3.6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56.5	40.4	3.1
	임시/일용직 (44)	66.6	31.2	2.3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84.1	15.9	
	해당 없음 (73)	49.0	49.6	1.4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나빠졌다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문별로 어느 정도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심각하다(1점)에서 매우 심각하다(5점)로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여가, 자기계발 등 개인적 활동(평균 2.86),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친목 등)(평균 2.81) 등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심리적 상태(우울감, 불안 등)(평균 2.64)와 더불어 경제적 상황(일자리, 소득 등)(평균 2.52)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건강(건강 정도)(평균 2.47)과 가족생활(돌봄, 가족관계 등)(평균 2.43)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았지만 타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2> 코로나19 이후 생활 부문별 나빠진 정도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가족생활(돌봄, 가족관계 등) 항목에서 남성과의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일자리, 소득 등)이 나빠졌다는 태도가 강한 반면,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여가/자기계발 등 개인적 활동이 나빠졌다는 태도가 강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상황(일자리, 소득 등)이 나빠졌다는 태도가 강한 반면, 300-500만원 미만인 층에서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친목 등), 300만원 이상인 층에서 여가/자기계발 등 개인적 활동이 나빠졌다는 태도가 강했다.

한편,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더불어 일반작업직에서, 고용 형태별로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와 더불어 임시/일용직에서 경제적 상황(일자리, 소득 등)이 나빠졌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표 IV-2-2> 코로나19 이후 생활 부문별 나빠진 정도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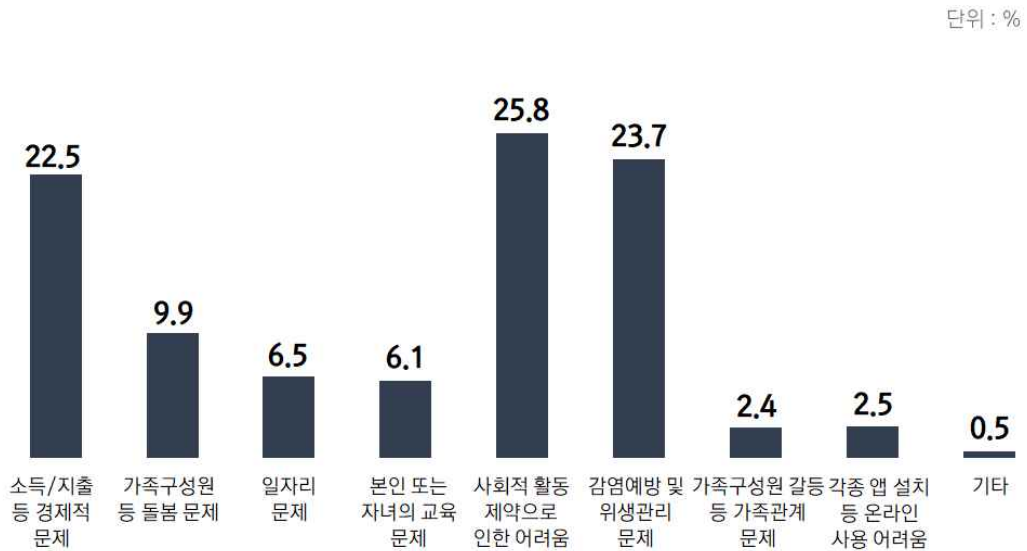
구분		경제적 상황 (일자리, 소득 등)		가족생활 (돌봄, 가족관계 등)		심리적 상태 (우울감, 불안 등)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친목 등)		신체적 건강 (건강 정도)		여가/ 자기계발 등 개인적 활동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298	2.52	309	2.43	313	2.64	315	2.81	310	2.47	315	2.86
성별	남성	140	2.50	147	2.32	147	2.58	147	2.76	146	2.42	147	2.78
	여성	158	2.53	163	2.53	166	2.69	168	2.85	164	2.51	168	2.94
연령대	25-39세	53	2.21	57	2.30	57	2.59	57	2.87	57	2.41	57	2.97
	40-50대	158	2.38	163	2.48	165	2.61	165	2.89	160	2.60	165	2.99
	60대	87	2.94	90	2.42	91	2.70	93	2.63	93	2.29	93	2.57
결혼 여부	미혼	51	2.18	55	2.26	55	2.57	55	2.70	55	2.38	55	2.83
	기혼	225	2.53	230	2.47	231	2.60	232	2.82	227	2.49	232	2.91
	이혼/별거/사별	20	3.30	23	2.60	25	3.16	25	2.90	25	2.50	25	2.59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44	2.54	49	2.52	50	2.81	51	2.71	51	2.52	51	2.71
	2세대	232	2.51	237	2.42	241	2.61	241	2.83	236	2.47	241	2.90
	3세대	15	2.21	15	2.41	15	2.61	15	3.00	15	2.24	15	3.1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33	2.77	138	2.34	141	2.68	142	2.63	141	2.39	142	2.64
	300-500만원 미만	100	2.39	105	2.60	105	2.71	106	3.04	105	2.63	106	3.08
	500만원 이상	58	2.19	61	2.34	61	2.45	61	2.86	58	2.40	61	3.04
직업	경영/사무직	150	2.15	157	2.28	159	2.56	159	2.77	155	2.51	159	2.85
	판매/서비스직	108	3.01	110	2.60	112	2.65	113	2.77	112	2.44	113	2.84
	전문기술직	13	2.69	13	3.15	13	2.91	13	2.76	13	2.69	13	3.00
	일반작업직	6	4.07	6	3.62	6	4.05	6	3.67	6	3.52	6	3.82
	전업주부	10	2.23	11	2.10	12	2.78	12	2.94	12	2.12	12	2.78
	무직/기타	12	1.98	12	1.74	12	2.40	12	2.99	12	1.75	12	2.75
고용 형태	상용근로	138	2.07	146	2.31	146	2.56	146	2.80	143	2.54	146	2.93
	임시/일용직	28	3.07	29	2.76	29	2.87	29	3.09	29	2.86	29	3.11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99	3.02	100	2.56	104	2.63	105	2.69	103	2.34	105	2.72
	해당 없음	33	2.39	34	2.30	35	2.77	35	2.94	35	2.22	35	2.81



2)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경험했던 어려움을 3순위까지로 알아본 결과(순위별 가중치 부여 후 100% 환산),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25.8%)과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23.7%),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22.5%)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9.9%)로 어려움을 겪은 층이 다소 나타났으며, 일자리 문제(6.5%),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문제(6.1%), 각종 앱 설치 등 온라인 사용 어려움(2.5%), 가족구성원 갈등 등 가족관계 문제(2.4%)에서 어려움을 겪은 층이 일부 나타났다.



<그림 IV-2-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어려움이 컸던 항목은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남성 21.8%, 여성 23.2%), 가족 구성원 등 돌봄 문제(남성 9.7%, 여성 10.2%), 일자리 문제(남성 6.0%, 여성 7.1%), 가족 구성원 갈등 등 가족관계 문제(남성 2.2%, 여성 2.7%), 각종 앱 설치 등 온라인 사용 어려움



움(남성 2.1%, 여성 2.9%)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혼/별거/사별층,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판매/서비스직, 일반작업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2-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중복응답 : 합계 100% 환산(1순위*3+2순위*2+3순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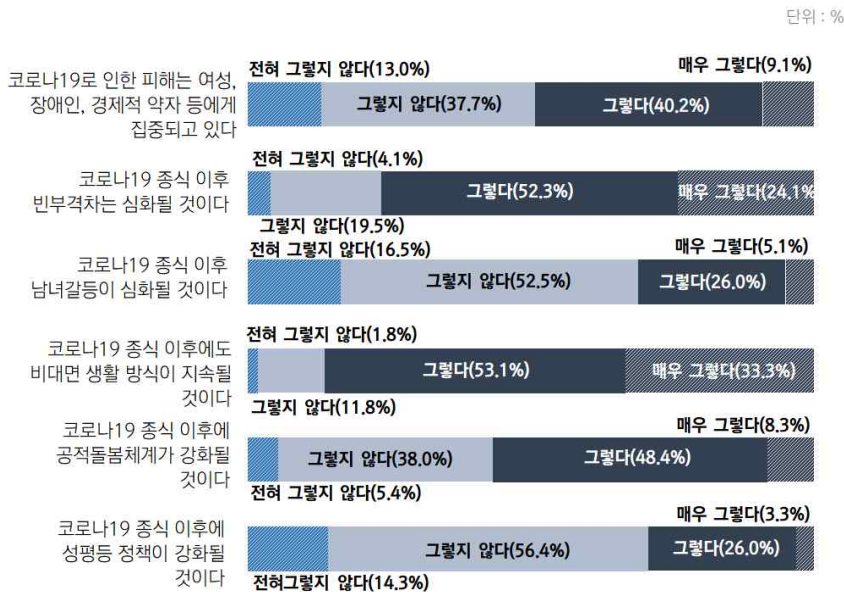
구분		소득/지출 등 경제적 문제	가족 구성원 등 돌봄 문제	일자리 문제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문제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	가족 구성원 갈등 등 가족 관계 문제	각종 앱 설치 등 온라인 사용 어려움	기타	
합계		(498)	22.5	9.9	6.5	6.1	25.8	23.7	2.4	2.5	0.5
성별	남성	(259)	21.8	9.7	6.0	7.2	26.6	23.9	2.2	2.1	0.5
	여성	(239)	23.2	10.2	7.1	4.8	24.9	23.6	2.7	2.9	0.5
연령대	25-39세	(104)	12.9	10.0	10.0	4.4	30.6	28.4	1.6	1.3	0.8
	40-50대	(265)	19.3	11.8	4.4	8.8	25.8	24.4	2.5	2.4	0.6
	60대	(129)	36.6	6.2	7.9	2.0	21.8	18.5	3.3	3.4	0.1
결혼 여부	미혼	(102)	16.7	4.1	12.8	2.9	32.7	25.7	1.4	2.2	1.5
	기혼	(354)	22.7	12.5	4.5	7.4	24.4	23.5	2.6	2.2	0.3
	이혼/별거/사별	(39)	36.3	0.4	9.3	2.2	22.1	21.2	2.7	5.8	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7)	30.4	6.7	9.1	3.1	24.0	21.0	2.5	2.6	0.6
	300-500만원 미만	(174)	19.4	11.4	5.2	6.5	27.5	24.3	2.7	2.3	0.7
	500만원 이상	(101)	10.4	14.4	3.3	11.9	27.2	28.4	1.8	2.5	0.2
직업	경영/사무직	(266)	12.4	12.7	4.5	8.6	28.4	28.7	2.0	2.2	0.5
	판매/서비스직	(142)	39.8	6.3	8.6	2.3	21.8	16.7	2.3	1.6	0.7
	전문기술직	(27)	26.3	15.0	7.5	2.5	16.9	23.1	3.8	5.0	0.0
	일반작업직	(13)	34.9	6.0	21.7	8.4	10.8	12.0	3.6	2.4	0.0
	전업주부	(23)	21.0	6.3	0.0	7.0	29.4	21.0	7.0	8.4	0.0
	무직/기타	(27)	22.9	3.2	13.4	2.5	33.1	19.7	2.5	1.9	0.6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11.8	13.5	4.2	8.7	28.2	28.4	2.4	2.3	0.6
	임시/일용직	(44)	24.7	8.2	20.2	5.2	21.3	16.9	2.2	0.7	0.4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43.3	5.2	5.0	1.9	21.6	18.4	2.2	1.8	0.6
	해당 없음	(71)	23.6	6.4	8.8	4.5	27.4	20.0	3.6	5.3	0.2

3)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성,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49.3%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생활 방식이 지속될 것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86.3%로 지역사회 변화의 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다에 대한 공감하는 층이 76.4%를 차지해 코로나19가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적돌봄체계가 강화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층이 56.6%, 공감하지 않는 층이 43.4%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남녀갈등이 심화될 것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31.1%,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29.3%로 성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2-4>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성평등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적돌봄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남녀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인식에 있어 남녀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가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여성,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에 대한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4점 척도 / 그렇다(합)(매우 그렇다 + 그렇다) 기준 / 단위 : %(명)

구분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여성,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빈부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남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생활 방식이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적돌봄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합계		(500)	49.3	76.4	31.1	86.3	56.6	29.3
성별	남성	(260)	47.3	74.2	27.0	85.1	51.1	30.6
	여성	(240)	51.6	78.8	35.4	87.6	62.7	27.9
연령대	25-39세	(105)	32.3	70.1	25.7	88.7	52.3	26.3
	40-50대	(265)	50.0	78.9	30.1	87.6	61.6	27.8
	60대	(130)	61.8	76.5	37.4	81.9	50.1	34.8
결혼 여부	미혼	(103)	37.1	72.4	27.4	86.5	53.3	26.5
	기혼	(354)	52.9	77.6	30.4	86.5	57.3	28.8
	이혼/별거/사별	(39)	51.9	76.3	44.9	83.0	62.8	41.1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3)	44.8	69.2	37.0	81.5	54.3	34.4
	2세대	(376)	51.3	77.7	29.2	87.2	56.5	28.8
	3세대	(16)	39.8	93.7	35.6	100.0	76.5	18.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8)	53.1	74.0	33.9	86.5	57.2	31.5
	300-500만원 미만	(174)	48.2	79.6	31.4	85.6	57.3	27.1
	500만원 이상	(102)	43.3	74.8	25.1	88.3	53.7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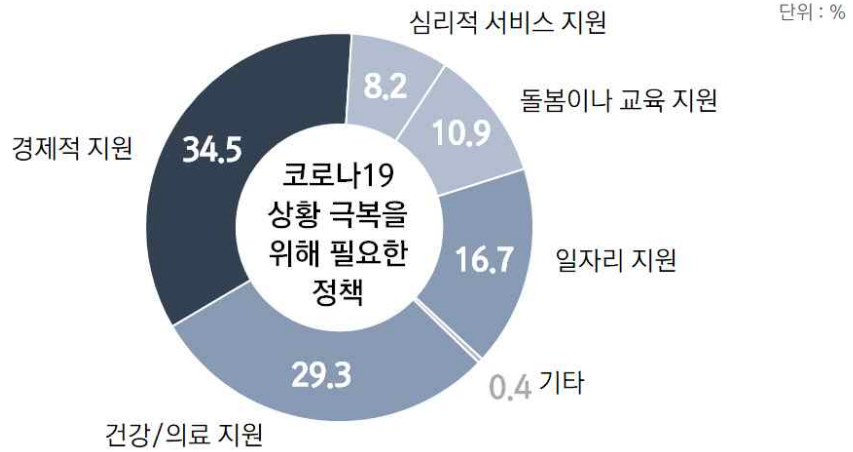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구분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여성,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빈부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남녀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생활 방식이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적돌봄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합계		(500)	49.3	76.4	31.1	86.3	56.6	29.3
직업	경영/사무직	(266)	44.7	77.0	27.3	88.9	59.2	27.1
	판매/서비스직	(142)	52.6	76.6	30.2	87.8	58.2	30.5
	전문기술직	(27)	50.7	57.6	28.8	72.0	35.8	18.1
	일반작업직	(13)	71.9	100.0	70.0	100.0	78.2	71.9
	전업주부	(23)	61.8	74.2	48.9	77.6	49.1	41.9
	무직/기타	(28)	54.7	79.5	40.6	69.5	41.4	23.7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46.1	76.4	27.7	90.0	59.2	28.3
	임시/일용직	(44)	38.7	79.6	31.8	81.3	56.3	23.3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55.9	75.8	31.2	86.6	58.3	32.3
	해당 없음	(73)	55.8	75.4	42.3	75.9	44.9	31.1

4)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지원(34.5%)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강/의료 지원(29.3%)과 일자리 지원(16.7%) 비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과 감염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돌봄이나 교육 지원은 10.9%, 심리적 서비스 지원은 8.2%를 차지하였다.



<그림 IV-2-5>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에 따라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인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판매/서비스직, 일반작업직, 임시/일용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강했다.

한편, 영유아(~7세) 막내 자녀가 있는 층에서 돌봄이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층에서 건강/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표 IV-2-5>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단위 : %(명)

구분		건강/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 서비스 지원	돌봄이나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기타
합계		(496) 29.3	34.5	8.2	10.9	16.7	0.4
성별	남성	(258) 32.0	36.9	8.3	8.3	13.8	0.7
	여성	(238) 26.3	31.9	8.2	13.7	19.8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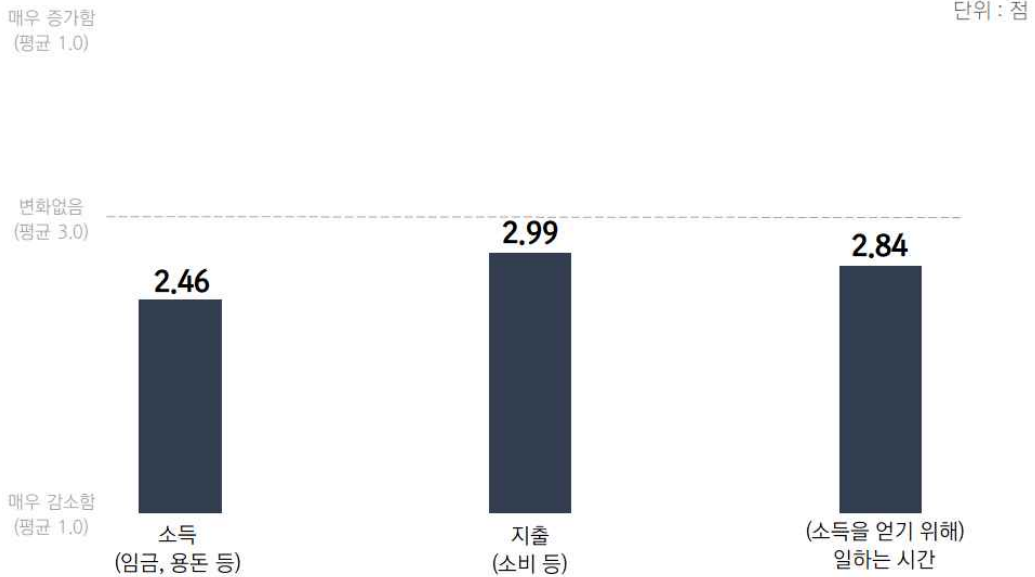
구분		건강/ 의료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 서비스 지원	돌봄이나 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기타
합계 (496)		29.3	34.5	8.2	10.9	16.7	0.4
연령대	25-39세 (104)	23.9	24.5	9.9	16.6	24.3	0.9
	40-50대 (264)	32.5	29.8	8.2	11.8	17.3	0.4
	60대 (128)	27.0	52.4	6.9	4.4	9.2	
결혼 여부	미혼 (103)	23.7	28.8	13.2	6.0	27.4	0.9
	기혼 (352)	31.5	35.8	5.5	13.1	13.8	0.3
	이혼/별거/사별 (38)	23.7	36.9	18.3	5.2	15.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6)	22.5	44.3	10.3	6.4	16.1	0.4
	300-500만원 미만 (172)	31.6	30.7	8.1	10.6	19.2	
	500만원 이상 (102)	40.5	19.2	4.8	20.7	13.8	1.0
직업	경영/사무직 (264)	34.4	25.6	6.4	16.6	16.3	0.7
	판매/서비스직 (142)	22.4	51.9	5.3	3.2	17.1	
	전문기술직 (27)	20.9	25.6	25.0	10.7	17.8	
	일반작업직 (12)	8.2	52.0	15.5	8.2	16.1	
	전업주부 (23)	36.5	21.0	21.7	7.7	13.1	
	무직/기타 (28)	26.5	43.1	10.2		20.2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6)	34.3	25.0	6.9	18.3	14.7	0.8
	임시/일용직 (43)	14.7	45.1	6.2	4.9	29.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20.3	52.7	7.9	1.6	17.5	
	해당 없음 (72)	35.3	30.4	14.8	4.4	15.2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33.3	16.5		43.3	7.0	
	초등학생 (52)	41.4	18.7	5.8	24.6	9.5	
	중학생 이상 (105)	33.3	38.3	7.4	4.8	15.2	1.0
	해당 없음 (288)	24.9	38.7	10.5	5.3	20.3	0.3



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동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를 소득, 지출, 일하는 시간의 평균 점수로 알아본 결과(매우 감소에서 매우 증가까지 5점 척도로 측정),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항목별로는 지출(평균 2.99)과 일하는 시간(평균 2.84)은 약간 감소했다로 응답한 반면, 소득(임금, 용돈 등)에 대해서는 2.46점으로 감소 폭이 컸다.



<그림 IV-2-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출은 유지되지만, 일하는 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고용형태로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소득 감소가 컸다고 응답했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변화

단위 :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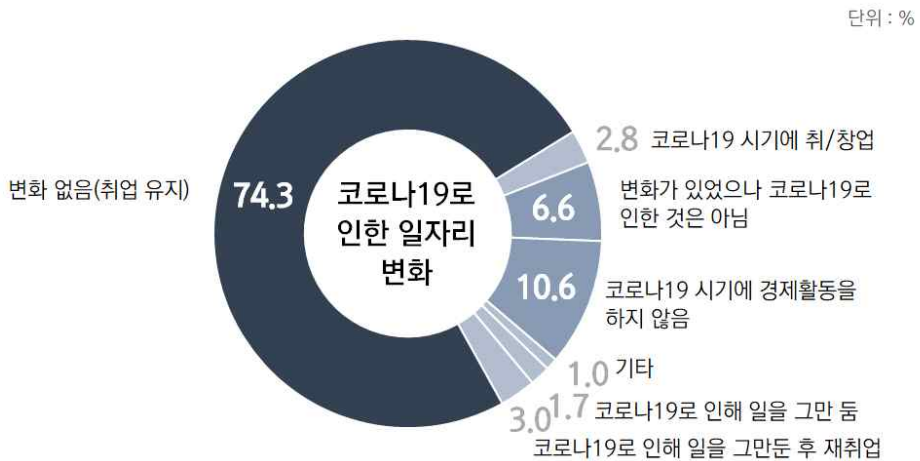
구분		소득(임금, 용돈 등)		지출(소비 등)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시간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489)	2.46	(493)	2.99	(475)	2.84
성별	남성	(254)	2.56	(257)	2.98	(250)	2.87
	여성	(235)	2.34	(236)	3.00	(225)	2.81
연령대	25-39세	(103)	2.88	(104)	3.36	(101)	3.33
	40-50대	(260)	2.53	(263)	3.02	(256)	2.87
	60대	(126)	1.97	(126)	2.63	(117)	2.35
결혼 여부	미혼	(99)	2.80	(102)	3.32	(99)	3.26
	기혼	(346)	2.39	(347)	2.92	(336)	2.75
	이혼/별거/사별	(39)	2.20	(39)	2.70	(36)	2.41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89)	2.53	(91)	3.07	(86)	2.96
	2세대	(370)	2.45	(372)	2.96	(360)	2.81
	3세대	(15)	2.13	(15)	3.04	(14)	2.8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2)	2.27	(215)	2.87	(207)	2.69
	300-500만원 미만	(170)	2.54	(171)	3.07	(165)	2.90
	500만원 이상	(101)	2.75	(101)	3.12	(98)	3.06
직업	경영/사무직	(260)	2.77	(263)	3.13	(256)	3.11
	판매/서비스직	(142)	1.87	(142)	2.80	(142)	2.43
	전문기술직	(26)	2.66	(27)	3.14	(27)	2.71
	일반작업직	(13)	2.37	(13)	2.88	(12)	2.38
	전업주부	(20)	2.35	(20)	2.62	(14)	2.57
	무직/기타	(27)	2.44	(27)	2.86	(23)	2.96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1)	2.84	(255)	3.17	(249)	3.10
	임시/일용직	(44)	2.50	(44)	3.27	(43)	2.79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1.70	(125)	2.61	(125)	2.39
	해당 없음	(69)	2.43	(69)	2.84	(58)	2.71



2)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화가 없다(취업 유지)는 층이 74.3%를 차지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두거나(현재 무직)(1.7%),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후 재취업(창업)(3.0%)한 경우가 4.7%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시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은 10.6%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변화없음이 78.4%였고, 코로나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재취업한 비율이 4.8%였으며, 이 시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에 불과하지만 여성은 변화없음이 69.9%, 이 시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8%로 남성에 비해 일자리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자리 변동은 60대 이상에서 높았으며, 일반작업직과 전문 기술직, 임시/일용직에서도 취업 유지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다. 특히 40대 이하(취업유지 69.6%)와 미혼(취업유지 62.0%)의 응답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어려움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V-2-7>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7>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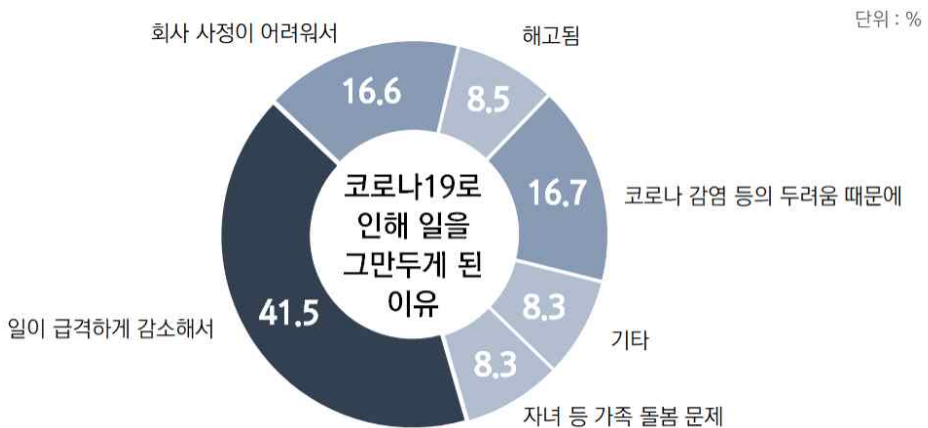
구분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후 재취업	코로나19 시기에 취/창업	변화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아님	변화 없음 (취업 유지)	코로나19 시기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	기타
합계		(500)	1.7	3.0	2.8	6.6	74.3	10.6
성별	남성	(260)	2.1	2.7	2.4	7.0	78.4	5.9
	여성	(240)	1.2	3.4	3.2	6.2	69.9	15.8
연령대	25-39세	(105)	1.4	1.2	11.5	8.6	69.6	6.8
	40-50대	(265)	1.5	3.7	0.7	6.4	84.6	3.0
	60대	(130)	2.3	3.0		5.4	57.0	29.3
결혼 여부	미혼	(103)	1.0	2.7	11.1	13.5	62.0	8.7
	기혼	(354)	1.5	2.9	0.7	4.5	80.4	8.8
	이혼/별거/사별	(39)	5.1	5.0		7.7	51.2	31.1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3)	2.2	6.1	4.0	8.3	64.1	15.4
	2세대	(376)	1.4	2.2	1.9	4.5	79.1	9.6
	3세대	(16)	6.0	6.3	10.6	18.4	52.6	6.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8)	2.5	3.8	2.9	6.6	65.0	17.6
	300-500만원 미만	(174)	1.1	2.9	1.8	8.2	79.8	6.3
	500만원 이상	(102)	1.0	1.9	3.6	3.3	85.4	3.8
직업	경영/사무직	(266)		1.8	3.5	4.4	89.7	0.7
	판매/서비스직	(142)	1.4	4.2	2.0	9.8	75.1	7.0
	전문기술직	(27)	3.6	3.6	3.5	3.6	57.8	20.6
	일반작업직	(13)		22.8	7.6	14.5	49.1	6.0
	전업주부	(23)	8.4	1.9				89.7
	무직/기타	(28)	12.3			16.0	14.2	50.4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2.7	2.8	2.6	91.5	0.4
	임시/일용직	(44)		9.6	11.5	22.7	46.0	10.3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1.9	1.6	0.4	8.4	80.7	6.4
	해당 없음	(73)	8.1	2.7	1.7	8.0	19.6	54.4



(1) 일을 그만 둔 이유와 구직활동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이유로는 일(매출/고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자영업자, 프리랜서 등)(41.5%)가 주된 이유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사직권고, 임금체불/삭감 등)(16.6%), 해고됨(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포함)(8.5%) 등 직장 여건으로 인해 그만 둔 층이 25.1%를 차지했으며, 코로나 감염 등의 두려움 때문에 그만 둔 층이 16.7%, 자녀 등 가족 돌봄 문제로 그만 둔 층이 8.3%를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주로 일이 급격하게 감소해서(남성 48.3%, 여성 33.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 순위에서 남성은 코로나 감염 등 우려 때문에(23.9%)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자녀 등 가족 돌봄 문제때문(17.7%)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해고로 인한 실직은 남성 8.0%, 여성 8.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IV-2-8>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과 관련해 어려운 점으로는 비교적 다양한 인식을 보였는데, 특히 일자리 알선 서비스(29.5%)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부족(21.1%)이라는 응답이 50.6%를 차지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구직활동의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온라인 방식의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 참여 어려움이 12.8%, 직업훈련 과정 부족이 11.3%, 돌봄 부담으로 구직활동 시간 부족이 4.1%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일자리 알선 서비스 부족(40.0%)으로 인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은 재택 근무 등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부족(21.1%)과 직업훈련 과정 부족(19.9%)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9>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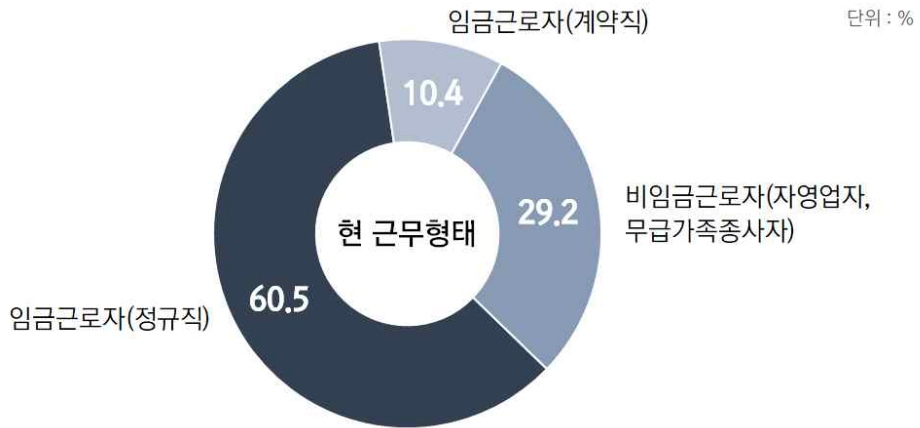


[2] 취업자의 특성 및 근로 실태

□ 취업자의 근무형태

취업자의 현 근무형태는 임금근로자(정규직)가 6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29.2%), 임금근로자(계약직)(10.4%) 순이다. 성별로 보면 임금 근로자는 남성(68.3%)이 여성(51.5%)보다 많다.

임금근로자(정규직)은 39세 미만 청년층과 경영 사무직종에서 많으며, 일반작업직은 임금근로자(계약직) 비중이 크고, 판매/서비스직과 전문기술직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크다.



<그림 IV-2-10> 현 근무형태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8> 현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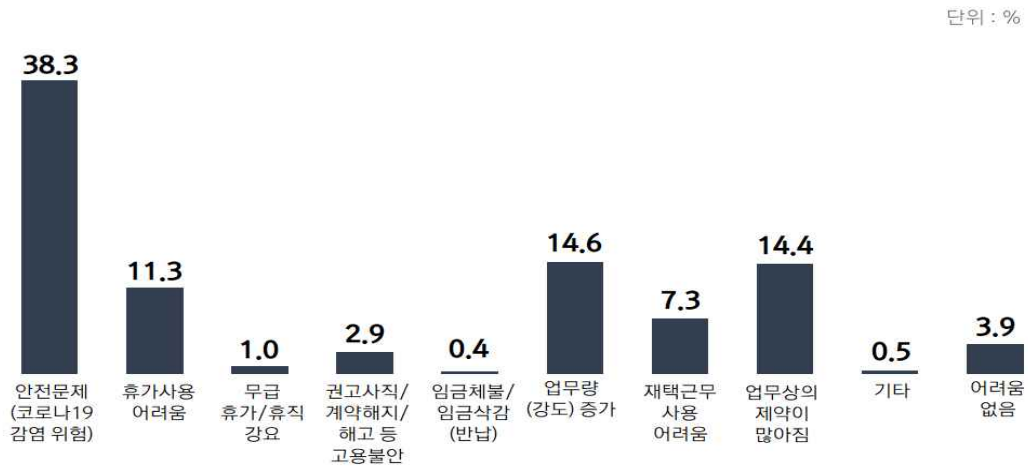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계약직 등)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427) 60.5	10.4	29.2
성별	남성	(229) 68.3	3.9	27.8
	여성	(198) 51.5	17.8	30.7
연령대	25-39세	(91) 82.0	13.0	5.0
	40-50대	(248) 70.3	9.2	20.5
	60대	(88) 10.2	10.8	79.1
결혼 여부	미혼	(87) 78.1	16.2	5.7
	기혼	(311) 58.3	8.1	33.5
	이혼/별거/사별	(26) 26.5	18.4	55.0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74) 68.9	14.6	16.5
	2세대	(330) 59.2	8.8	32.0
	3세대	(13) 61.4	15.4	23.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8) 45.1	14.6	40.2
	300-500만원 미만	(161) 65.1	6.9	28.0
	500만원 이상	(91) 83.4	7.0	9.6
직업	경영/사무직	(256) 85.9	7.5	6.6
	판매/서비스직	(137) 21.1	9.2	69.7
	전문기술직	(18) 39.4	10.9	49.7
	일반작업직	(12) 23.0	69.1	8.0
	무직/기타	(1) 32.3	32.3	67.7



□ **코로나19로 인한 일에서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은 대해서는 안전문제(코로나19 감염 위험)가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량(강도) 증가(14.6%), 업무상의 제약이 많아짐(14.4%), 휴가사용 어려움(11.3%) 응답이 많아 감염 위험에 따른 활동 제약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나 인원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이 일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택근무 사용 어려움이 7.3%,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등 고용불안이 2.9%, 무급 휴가/휴직 강요가 1.0%, 임금체불/임금삭감(반납)이 0.4%였다.



<그림 IV-2-11> 코로나19로 인한 일에서의 어려움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문제(남성 38.1%, 여성 39.1%)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가운데, 안전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이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휴가 사용의 어려움(남성 10.5%, 여성 12.2%),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등 고용 불안(남성 1.4%, 여성 4.7%), 임금체불/임금 삭감(남성 0.3%, 여성 0.6%)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고 있어 고용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등 고용 불안은 60대 이상과 판매/서비스직 및 일반 작업직, 임시/일용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사무직은 업무량 증가와 업무상 제약이 많아짐 등의 응답이 높았다.

<표 IV-2-9> 코로나19로 인한 일에서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안전 문제 (코로나19 감염 위험)	휴가 사용 어려움	무급 휴가/ 휴직 강요	권고 사직/ 계약 해지/ 해고 등 고용 불안	임금 체불/ 임금 삭감 (반납)	업무량 (강도) 증가	재택 근무 사용 어려움	업무 상의 제약이 많아짐	기타	어려움 없음	
합계		(282)	38.8	11.3	1.0	2.9	0.4	14.6	7.3	14.4	0.5	8.9
성별	남성	(157)	38.1	10.5	1.1	1.4	0.3	15.8	7.7	15.0	0.5	9.6
	여성	(125)	39.1	12.2	0.7	4.7	0.6	13.5	6.8	13.5	0.6	8.3
연령대	25-39세	(84)	33.0	13.1	1.1	2.4	0.4	17.9	10.2	11.5	0.0	10.4
	40-50대	(185)	41.2	11.1	0.7	2.3	0.3	13.5	6.2	16.0	0.8	7.9
	60대	(14)	38.2	3.9	3.9	13.2	2.6	13.2	3.9	7.9	0.0	13.2
결혼 여부	미혼	(76)	34.9	8.7	1.2	3.6	0.0	17.9	8.2	13.1	0.7	11.6
	기혼	(194)	39.3	11.8	0.8	2.3	0.5	14.6	6.9	15.4	0.5	8.0
	이혼/별거/사별	(10)	48.2	17.9	0.0	7.1	3.6	3.6	7.1	5.4	0.0	7.1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56)	36.6	11.4	2.0	3.6	0.7	15.4	9.2	10.5	0.0	10.8
	2세대	(211)	38.9	11.6	0.7	2.3	0.4	15.3	6.5	15.5	0.4	8.3
	3세대	(9)	44.0	8.0	2.0	4.0	0.0	8.0	12.0	8.0	0.0	14.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8)	38.1	10.6	1.4	3.9	0.8	18.4	6.8	10.8	0.0	9.1
	300-500만원 미만	(111)	39.3	12.0	1.1	2.4	0.5	14.7	6.7	15.4	0.6	7.3
	500만원 이상	(80)	38.4	10.4	0.2	2.4	0.0	11.3	8.7	16.4	0.9	11.1
직업	경영/사무직	(232)	38.9	11.0	0.8	1.4	0.2	16.2	7.7	15.5	0.6	7.6
	판매/서비스직	(33)	40.0	12.8	0.0	10.6	1.1	10.6	6.1	10.0	0.0	8.9
	전문기술직	(8)	32.4	14.7	2.9	0.0	0.0	0.0	0.0	2.9	0.0	47.1
	일반작업직	(8)	29.8	10.6	6.4	17.0	4.3	6.4	4.3	8.5	0.0	12.8
	무직/기타	(1)	50.0	0.0	0.0	16.7	0.0	0.0	0.0	0.0	0.0	33.3
고용 형태	상용근로	(247)	39.0	11.8	0.8	1.5	0.2	15.5	7.9	14.7	0.6	8.0
	임시/일용직	(34)	37.4	6.1	2.2	13.4	2.2	7.8	2.8	12.3	0.0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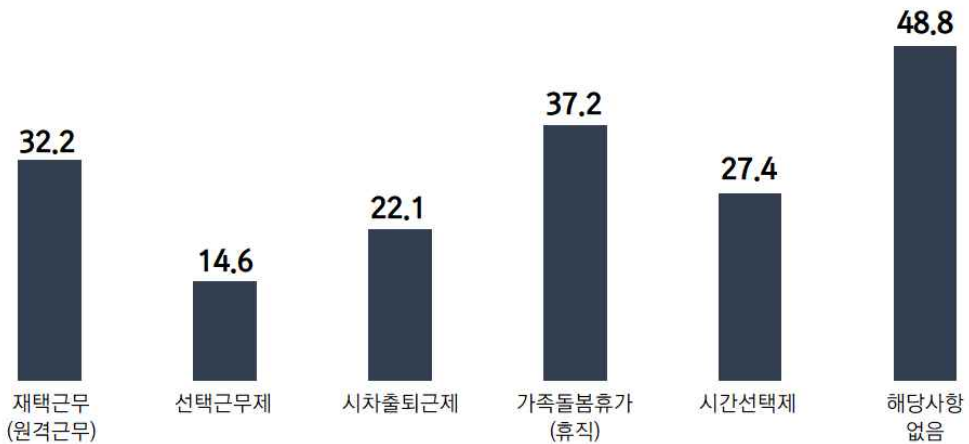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 조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48.8%)이 가장 많고, 활용 제도 중에는 가족돌봄휴가(휴직)(37.2%)와 재택근무(원격근무)(32.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선택제(27.4%), 시차출퇴근제(22.1%), 선택근무제(14.6%) 순이다. 제시한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 근로자가 55.2%로 남성 근로자 43.7%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에서 남성 근로자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재택근무는 남성(37.9%)과 여성(25.0%)의 활용도 차이가 크다. 제도의 활용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요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은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이하인 부모와 4·50대의 활용 비중이 높고, 경영/사무직과 상용 근로자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다.

단위: % / 각 항목별 100.0% 기준



<그림 IV-2-12> 현 직장의 근무조건



<표 IV-2-10> 현 직장의 근무조건

각 항목별 100.0% 기준 / 단위 : %(명)

구분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가족돌봄 휴가(휴직)	시간 선택제	해당사항 없음	
합계		(282)	32.2	14.6	22.1	37.2	27.4	48.8
성별	남성	(157)	37.9	15.3	24.1	37.7	27.9	43.7
	여성	(125)	25.0	13.6	19.5	36.7	26.8	55.2
연령대	25-39세	(84)	29.4	18.1	23.0	39.1	30.6	52.8
	40-50대	(185)	35.3	13.5	23.3	38.6	26.5	44.7
	60대	(14)	7.3	7.3		7.3	20.4	79.6
결혼 여부	미혼	(76)	29.2	13.4	19.5	34.3	31.0	53.5
	기혼	(194)	34.3	15.4	23.4	39.7	26.2	45.9
	이혼/별거/사별	(10)	10.4	10.4	9.8	10.4	20.0	70.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8)	22.0	10.6	13.5	23.9	22.2	65.5
	300-500만원 미만	(111)	43.0	17.3	27.8	44.8	31.9	35.9
	500만원 이상	(80)	29.6	15.7	24.3	42.7	27.9	46.6
직업	경영/사무직	(232)	37.0	16.4	25.6	43.1	30.9	41.6
	판매/서비스직	(33)	15.1	5.9	5.8	15.1	14.9	79.0
	전문기술직	(8)		11.9	11.9			88.1
	일반직업직	(8)					9.4	90.6
	무직/기타	(1)						100.0
고용 형태	상용근로	(247)	36.3	15.4	24.7	41.2	29.3	44.0
	임시/일용직	(34)	2.9	8.6	2.8	8.7	13.9	83.3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39)	42.0	18.1	35.2	53.3	31.7	37.1
	초등학생	(45)	35.2	19.2	27.9	52.7	26.0	34.2
	중학생 이상	(61)	34.5	16.4	21.4	28.2	22.9	50.7
	해당 없음	(134)	27.1	11.4	16.1	31.2	28.3	57.1

□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및 휴가 빈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을 위한 제도 이용은 연차 사용이 2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가 18.5%,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이 12.1%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을 제외한 모든 제도를 여성보다 더 많이 활용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야근등 근무시간 줄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족돌봄 휴가 사용은 남녀가 약 5%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사



용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은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을 남성보다 많이 활용했다. 성별 가족돌봄을 위한 제도 이용 격차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제도 활용이 어려운 근무조건이거나 고용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근무환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각 항목별 100.0% 기준 / 단위 : %



<그림 IV-2-13>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및 휴가 빈도

<표 IV-2-11>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및 휴가 빈도

단위 : %(명)

구분		연차 사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
합계 (282)		25.1	18.5	12.1
성별	남성 (157)	25.6	20.6	10.9
	여성 (125)	24.4	15.8	13.6
연령대	25-39세 (84)	21.3	11.8	7.1
	40-50대 (185)	28.7	22.8	15.2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구분		연차 사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
합계 (282)		25.1	18.5	12.1
결혼 여부	미혼 (76)	9.9	7.6	3.8
	기혼 (194)	31.6	23.4	15.6
	이혼/별거/사별 (10)	9.8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56)	8.7	8.7	1.7
	2세대 (211)	30.7	21.8	14.7
	3세대 (9)	10.9		11.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8)	13.9	7.6	4.5
	300-500만원 미만 (111)	29.8	24.6	16.2
	500만원 이상 (80)	31.7	21.4	15.1
직업	경영/사무직 (232)	28.0	20.7	12.9
	판매/서비스직 (33)	8.8	8.9	9.2
	전문기술직 (8)	24.5	12.5	12.5
	일반작업직 (8)	9.4		
고용 형태	상용근로 (247)	27.8	19.4	13.8
	임시/일용직 (34)	5.7	11.6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39)	48.2	48.6	33.2
	초등학생 (45)	44.2	33.3	28.9
	중학생 이상 (61)	26.2	14.8	5.0
	해당 없음 (134)	11.7	5.8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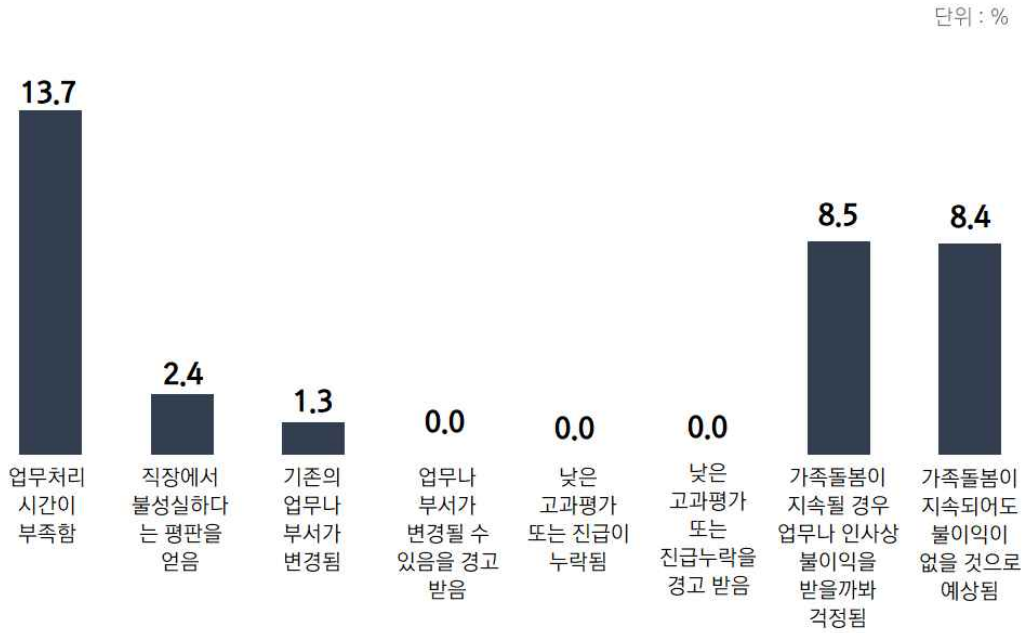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이익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때문에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경험은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함(13.7%)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됨(8.5%),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평판을 얻음(2.4%), 기존의 업무나 부서가 변경됨(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2배 이상(남성 5.8%, 여성 12.0%) 높게 나타났다.

가족 돌봄 휴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높은 응답률을 통해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함이나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수 있다.



<그림 IV-2-14>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이익



<표 IV-2-12> 코로나19 이후 돌봄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이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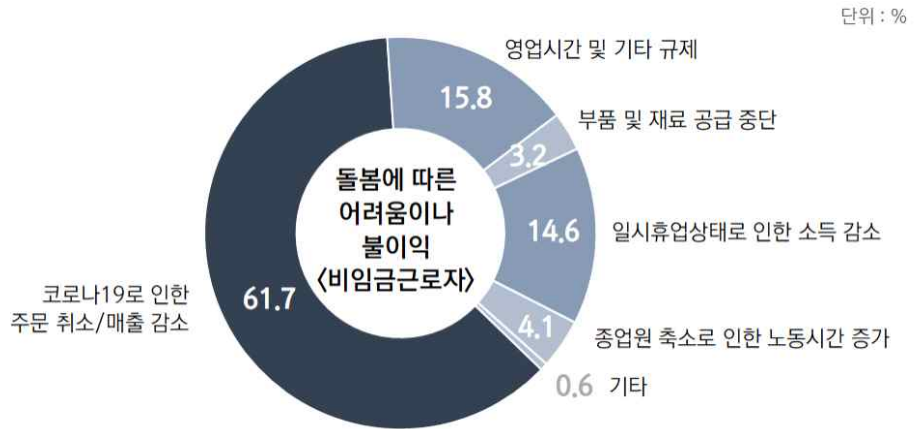
구분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함	직장에서 불성실하다 는 평판을 얻음	기존의 업무나 부서가 변경됨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됨	가족돌봄이 지속되어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합계		(282)	13.7	2.4	1.3	8.5	8.4
성별	남성	(157)	12.1	2.6	0.6	5.8	9.8
	여성	(125)	15.8	2.1	2.2	12.0	6.7
연령대	25-39세	(84)	17.4	0.8	2.1	8.3	6.7
	40-50대	(185)	13.1	3.3	1.1	9.2	9.2
	60대	(14)					7.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8)	10.7	2.3	3.4	2.1	5.6
	300-500만원 미만	(111)	15.3	4.2		11.3	10.3
	500만원 이상	(80)	15.3		1.0	12.0	9.2
직업	경영/사무직	(232)	15.1	2.0	1.3	8.7	8.1
	판매/서비스직	(33)	8.1	6.1		8.3	14.9
	전문기술직	(8)	12.5			12.5	
	일반작업직	(8)			9.4		
	무직/기타	(1)					
고용 형태	상용근로	(247)	15.1	2.7	1.5	8.6	9.1
	임시/일용직	(34)	4.2			7.7	2.9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39)	29.7	11.9	2.0	23.2	11.1
	초등학생	(45)	23.6	4.5		24.0	13.4
	중학생 이상	(61)	8.3			3.2	6.6
	해당 없음	(134)	8.4		2.2	1.5	6.8

(3) 코로나19가 비임금근로자에게 미친 영향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취소/매출 감소가 61.7%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15.8%), 일시휴업 상태로 인한 소득 감소(14.6%), 종업원 축소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 순이다. 성별로 보면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 항목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남성 21.5%, 여성 9.7%),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취소/매출 감소(남성 59.5%, 여성 64.5%) 및 일시 휴업 상태로 인한 소득 감소(남성 12.9%, 여성 16.5%), 종업원 축소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남성 1.8%, 여성 6.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연령대나 학력 등은 비임금 근로자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림 IV-2-15>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 비임금근로자



<표 IV-2-13>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 비임금근로자

중복응답 : 합계 100% 환산(1순위*2+2순위) / 단위 : %(명)

구분		코로나 19로 인한 주문 취소/매출 감소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	부품 및 재료 공급 중단	일시휴업 상태로 인한 소득 감소	종업원 축소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	기타	
합계		(110)	61.7	15.8	3.2	14.6	4.1	0.6
성별	남성	(57)	59.5	21.5	3.7	12.9	1.8	0.6
	여성	(53)	64.5	9.7	2.6	16.1	6.5	0.6
연령대	25-39세	(3)	66.7	22.2	0.0	11.1	0.0	0.0
	40-50대	(45)	64.1	15.3	2.3	12.2	5.3	0.8
	60대	(63)	60.1	15.7	3.9	16.3	3.4	0.6
학력	고졸 이하	(69)	57.0	16.5	4.0	18.0	3.5	1.0
	대재/대졸	(38)	68.2	15.0	1.9	8.4	6.5	0.0
	대학원 이상	(1)	66.7	33.3	0.0	0.0	0.0	0.0
결혼 여부	미혼	(3)	62.5	12.5	0.0	25.0	0.0	0.0
	기혼	(93)	62.3	15.7	3.7	14.2	3.4	0.7
	이혼/별거/사별	(13)	62.2	16.2	0.0	16.2	5.4	0.0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11)	63.3	13.3	0.0	23.3	0.0	0.0
	2세대	(93)	61.7	16.0	3.7	14.5	3.3	0.7
	3세대	(3)	50.0	25.0	0.0	0.0	25.0	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1)	62.1	16.1	2.9	15.5	3.4	0.0
	300-500만원 미만	(39)	61.2	18.1	1.7	12.9	4.3	1.7
	500만원 이상	(8)	59.1	4.5	13.6	9.1	13.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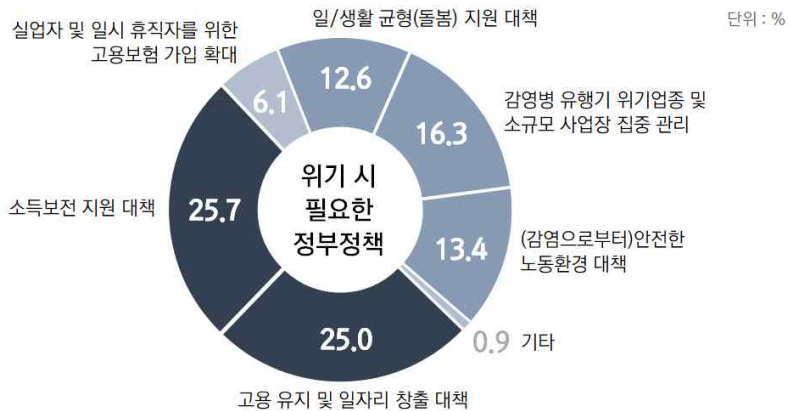
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필요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

□ 가장 필요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알아본 결과, 소득보전 지원 대책(25.7%)과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대책(25.0%)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녀 모두 유사한 응답률을 보인다. 다음으로, 감염병 유행기 위기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집중 관리(16.3%),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대책(13.4%), 일/생활 균형(돌봄) 지원 대책(12.6%),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6.1%) 순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생활 균형(돌봄) 지원 대책에 대한 요구(남성 10.8%, 여성 14.8%)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대책(남성 12.9%, 여성 13.8%)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16>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필요한 정부정책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반직업직과 임시/일용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소득보전 지원 대책은 여성비중이 큰 판매/서비스직과 전업 주부에서, 고용형태로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14>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필요한 정부정책

중복응답 : 합계 100% 환산(1순위*2+2순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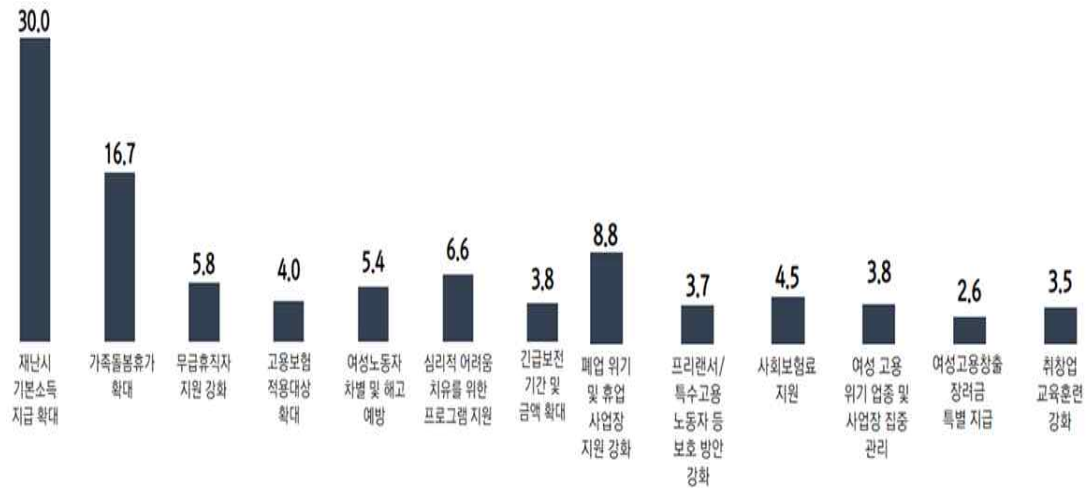
구분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대책	소득 보전 지원 대책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를 위한 고용 보험 가입 확대	일/생활 균형 (돌봄) 지원 대책	감염병 유행기 위기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집중 관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 환경 대책	기타	
합계		(500)	25.0	25.7	6.1	12.6	16.3	13.4	0.9
성별	남성	(260)	25.3	26.5	6.4	10.8	16.5	12.9	1.5
	여성	(240)	24.5	24.6	5.6	14.8	16.1	13.8	0.6
연령대	25-39세	(105)	30.9	13.5	4.8	18.6	17.0	12.9	2.3
	40-50대	(265)	27.5	21.8	4.7	13.2	17.0	15.1	0.6
	60대	(130)	15.2	43.3	9.8	7.0	13.9	10.3	0.5
결혼 여부	미혼	(103)	33.2	17.4	3.9	10.2	17.8	14.5	3.0
	기혼	(354)	23.0	26.5	6.5	13.9	16.7	13.0	0.3
	이혼/별거/사별	(39)	19.7	37.6	9.4	7.7	10.3	13.7	1.7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3)	23.5	26.0	6.9	9.7	14.8	16.2	2.9
	2세대	(376)	24.4	25.4	5.9	13.7	16.6	13.5	0.5
	3세대	(16)	38.0	20.0	10.0	16.0	12.0	4.0	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8)	23.6	32.7	7.6	9.6	13.2	11.9	1.4
	300-500만원 미만	(174)	26.7	25.0	5.4	12.4	16.3	13.6	0.6
	500만원 이상	(102)	23.8	12.2	4.6	19.8	21.8	17.2	0.7
직업	경영/사무직	(266)	28.2	15.2	3.4	18.0	18.3	15.6	1.1
	판매/서비스직	(142)	20.4	40.8	7.1	6.2	14.7	10.0	0.9
	전문기술직	(27)	23.8	28.6	7.1	10.7	14.3	13.1	2.4
	일반작업직	(13)	40.5	21.4	14.3	4.8	9.5	9.5	0.0
	전업주부	(23)	11.3	45.1	12.7	8.5	12.7	9.9	0.0
	무직/기타	(28)	20.2	29.8	15.5	4.8	14.3	14.3	1.2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28.6	15.8	3.8	17.9	16.4	16.4	1.2
	임시/일용직	(44)	33.8	23.1	6.9	9.2	13.8	11.5	1.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18.8	44.1	6.5	4.6	18.0	7.9	0.0
	해당 없음	(73)	17.5	30.9	13.4	9.7	14.3	12.9	1.4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21.2	15.1	2.1	32.9	17.1	11.6	0.0
	초등학생	(53)	23.4	17.7	3.8	26.6	11.4	17.1	0.0
	중학생 이상	(105)	27.1	27.4	4.8	7.3	18.5	14.6	0.3
	해당 없음	(290)	25.0	28.3	7.6	8.6	16.3	12.7	1.5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필요한 코로나 지원 정책은 재난 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30.0%)가 가장 높아 안정적인 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 확대(16.7%)와 폐업위기 및 휴업 사업장 지원강화(8.8%) 순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난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돌봄휴가 확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시 기본소득 지급확대는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47.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상용근로자(15.5%)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가족돌봄 휴가 확대는 경영/사무직과 상용 근로, 초등학교 이하 막내자녀 가구에서는 재난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직업과 고용형태별 코로나로 인한 소득과 일자리 유지의 차이 및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뚜렷히 드러낸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15>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코로나 지원 정책

중복응답 : 합계 100% 환산(1순위*2+2순위) / 단위 : %(명)

구분		재난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무급 휴직자 지원 강화	고용 보험 적용 대상 확대	여성 노동자 차별 및 해고 예방	심리적 어려움 치유를 위한 프로 그램 지원	긴급 보전 기간 및 금액 확대	
합계		(212)	30.0	16.7	5.8	4.0	5.4	6.6	3.8
연령대	25-39세	(45)	16.9	27.2	5.1	0.7	7.4	11.8	3.7
	40-50대	(118)	25.3	19.3	6.9	5.5	6.0	6.6	4.0
	60대	(48)	52.8	0.0	5.6	3.5	2.1	2.1	2.8
결혼 여부	미혼	(41)	18.9	12.3	6.6	0.0	11.5	15.6	1.6
	기혼	(154)	30.9	19.1	6.1	5.3	3.9	4.2	4.2
	이혼/별거/사별	(17)	45.8	4.2	6.3	2.1	4.2	6.3	4.2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37)	35.2	10.2	5.6	0.9	3.7	9.3	1.9
	2세대	(163)	29.5	18.1	6.2	4.1	4.7	6.4	4.1
	3세대	(7)	15.0	20.0	5.0	10.0	25.0	0.0	5.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8)	38.7	10.2	6.7	2.8	5.3	5.6	4.2
	300-500만원 미만	(59)	25.0	15.0	5.6	5.0	5.0	8.3	4.4
	500만원 이상	(51)	18.4	31.6	5.3	5.3	5.3	7.2	2.6
직업	경영/사무직	(118)	16.0	27.4	5.4	4.0	6.0	9.4	3.4
	판매/서비스직	(73)	46.8	3.7	5.5	4.6	3.7	3.2	5.0
	전문기술직	(8)	45.8	4.2	4.2	0.0	12.5	0.0	4.2
	일반작업직	(9)	50.0	3.6	17.9	3.6	7.1	0.0	0.0
	전업주부	(2)	40.0	0.0	0.0	0.0	0.0	20.0	0.0
	무직/기타	(2)	66.7	0.0	0.0	0.0	0.0	0.0	0.0
고용 형태	상용근로	(102)	15.5	29.4	5.6	3.6	7.6	9.9	3.3
	임시/일용직	(34)	38.6	6.9	8.9	3.0	5.9	5.0	3.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61)	47.5	3.3	6.6	1.7	1.7	2.8	4.4
	해당 없음	(15)	34.8	4.3	2.2	17.4	4.3	4.3	4.3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21)	16.4	42.6	3.3	3.3	9.8	1.6	0.0
	초등학생	(21)	22.6	48.4	6.5	1.6	3.2	9.7	0.0
	중학생 이상	(50)	31.1	11.9	7.3	6.0	3.3	5.3	5.3
	해당 없음	(119)	33.2	8.5	5.9	3.7	5.9	7.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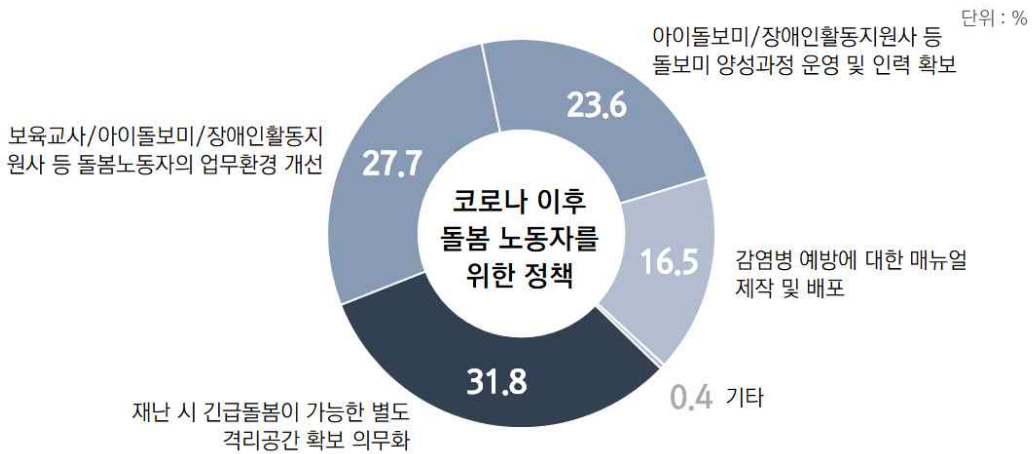


구분		폐업 위기 및 휴업 사업장 지원 강화	프리랜 서/특수 고용노 동자 등 보호 방안 강화	사회보 험료 지원	여성 고용 위기 업종 및 사업장 집중 관리	여성고 용창출 장려금 특별 지급	취창업 교육훈 련 강화	기타	
합계		(212)	8.8	3.7	4.5	3.8	2.6	3.5	0.8
연령대	25-39세	(45)	8.1	2.9	0.7	4.4	3.7	4.4	2.9
	40-50대	(118)	9.5	3.2	3.4	3.4	2.0	4.6	0.3
	60대	(48)	8.3	5.6	10.4	4.2	2.8	0.0	0.0
결혼 여부	미혼	(41)	9.8	5.7	2.5	4.9	3.3	4.9	2.5
	기혼	(154)	8.6	3.1	5.5	3.3	2.2	3.3	0.4
	이혼/별거/사별	(17)	6.3	4.2	2.1	6.3	6.3	2.1	0.0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37)	11.1	3.7	3.7	5.6	2.8	3.7	2.8
	2세대	(163)	8.7	3.5	5.2	3.5	2.5	3.1	0.4
	3세대	(7)	5.0	0.0	0.0	5.0	0.0	10.0	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8)	7.7	3.9	4.9	3.2	3.2	2.5	1.1
	300-500만원 미만	(59)	11.7	2.8	4.4	5.6	3.9	3.3	0.0
	500만원 이상	(51)	7.2	4.6	3.3	3.3	0.0	4.6	1.3
직업	경영/사무직	(118)	8.8	4.6	2.8	4.0	2.3	5.1	0.9
	판매/서비스직	(73)	10.6	2.3	6.9	3.2	2.3	1.4	0.9
	전문기술직	(8)	12.5	0.0	0.0	8.3	8.3	0.0	0.0
	일반직업직	(9)	0.0	0.0	7.1	3.6	7.1	0.0	0.0
	전업주부	(2)	0.0	40.0	0.0	0.0	0.0	0.0	0.0
	무직/기타	(2)	0.0	0.0	16.7	0.0	0.0	16.7	0.0
고용 형태	상용근로	(102)	6.9	4.0	3.6	3.6	2.0	3.3	1.7
	임시/일용직	(34)	3.0	5.0	4.0	5.0	4.0	7.9	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61)	17.1	1.1	7.7	2.2	2.8	1.1	0.0
	해당 없음	(15)	4.3	8.7	0.0	8.7	2.2	4.3	0.0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21)	4.9	1.6	0.0	3.3	8.2	3.3	1.6
	초등학생	(21)	3.2	0.0	0.0	0.0	0.0	3.2	1.6
	중학생 이상	(50)	9.3	4.6	4.6	4.6	2.0	4.6	0.0
	해당 없음	(119)	10.1	4.2	5.9	4.2	2.5	3.1	0.8

□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재난 시 긴급돌봄이 가능한 별도 격리공간확보 의무화(31.8%), 보육교사/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27.7%),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보미 양성과정 운영 및 인력 확보(23.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아 안전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인력 양성 등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도 16.5%를 차지해, 일상적 방역에 대한 필요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난시 긴급돌봄이 가능한 별도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남성 29.0%, 여성 34.8%), 아이돌보미/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보미 양성과정 운영 및 인력 확보(남성 21.2%, 여성 26.3%)에 대한 요구가 높아 돌봄에 대해 남성보다 높은 이해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림 IV-2-18>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



<표 IV-2-16>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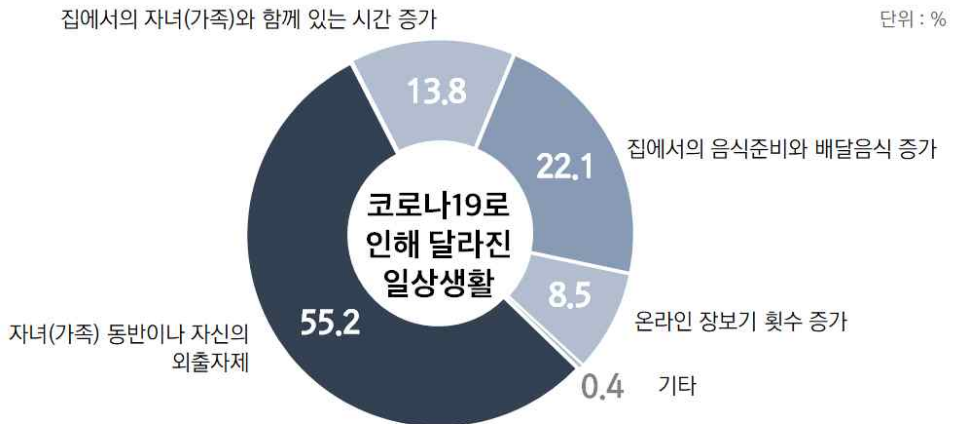
구분		재난 시 긴급돌봄이 가능한 별도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	보육교사/아이돌보미/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	아이돌보미/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보미 양성과정 운영 및 인력 확보	감염병 예방에 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기타	
합계		(495)	31.8	27.7	23.6	16.5	0.4
성별	남성	(258)	29.0	29.6	21.2	19.8	0.4
	여성	(237)	34.8	25.5	26.3	13.0	0.4
연령대	25-39세	(104)	26.3	42.3	22.1	9.3	
	40-50대	(265)	31.1	28.6	26.3	13.2	0.8
	60대	(126)	37.7	13.7	19.1	29.5	
지역	동부권	(159)	31.6	25.7	21.1	21.6	
	남부권	(124)	30.6	26.7	28.6	13.4	0.8
	서부권	(138)	33.6	28.9	22.9	13.9	0.7
	북부권	(74)	30.8	31.4	22.0	15.7	
학력	고졸 이하	(170)	33.0	17.1	22.7	26.6	0.6
	대재/대졸	(312)	31.9	32.8	23.9	11.1	0.3
	대학원 이상	(10)	7.5	54.3	38.1		
결혼 여부	미혼	(102)	28.9	37.1	19.9	14.0	
	기혼	(350)	32.9	26.8	23.9	15.8	0.6
가구 유형	이혼/별거/사별	(39)	27.6	11.2	30.3	30.9	
	1인 가구/형제자매	(92)	33.4	23.7	24.1	18.9	
	2세대	(373)	30.7	28.8	24.2	16.0	0.3
월평균 가구소득	3세대	(16)	48.3	16.3	22.9	12.4	
	300만원 미만	(215)	31.5	24.7	21.4	22.4	
	300-500만원 미만	(172)	32.7	27.7	24.7	14.3	0.6
직업	500만원 이상	(102)	28.8	34.6	27.8	7.8	1.0
	경영/사무직	(266)	27.6	33.5	27.2	10.9	0.8
	판매/서비스직	(138)	39.8	17.8	17.8	24.6	
	전문기술직	(27)	32.7	31.5	17.7	18.2	
	일반작업직	(13)	36.4	27.8	22.2	13.6	
	전업주부	(23)	25.5	16.4	32.9	25.3	
고용 형태	무직/기타	(27)	34.7	26.7	16.4	22.1	
	상용근로	(256)	27.6	35.1	25.9	11.0	0.4
	임시/일용직	(44)	30.4	30.2	24.0	15.4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3)	41.4	11.6	19.4	27.6	
막내 자녀 연령	해당 없음	(72)	31.3	27.1	22.2	18.0	1.4
	영유아(-7세)	(48)	29.5	42.1	18.3	10.1	
	초등학생	(53)	29.1	37.2	31.9	1.8	
	중학생 이상	(105)	32.1	25.3	22.8	17.9	1.9
해당 없음	(286)	32.2	24.6	23.2	20.0		



다. 가족생활 및 보육돌봄

1) 코로나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달라진 점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상 생활에서 달라진 점으로 자녀(가족) 동반이나 자신의 외출자제(55.2%)가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출자제로 인해 파생되는 변화로 집에서의 음식준비와 배달음식 증가(22.1%), 집에서의 자녀(가족)와 함께 있는 시간 증가(13.8%), 온라인 장보기 횟수 증가(8.5%) 순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그림 IV-2-19>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가족)동반이나 자신의 외출자제(남성 53.8%, 여성 56.7%), 온라인 장보기 횟수 증가(남성 7.3%, 여성 9.8%)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계층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자녀(가족) 동반이나 자신의 외출자제 비율이 높은 가운데, 60대 연령층, 전업주부층에서 집에서의 자녀(가족)와 함께 있는 시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에서의 음식준비와 배달음식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인 가구/형제자매층에서 온라인 장보기 횟수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17>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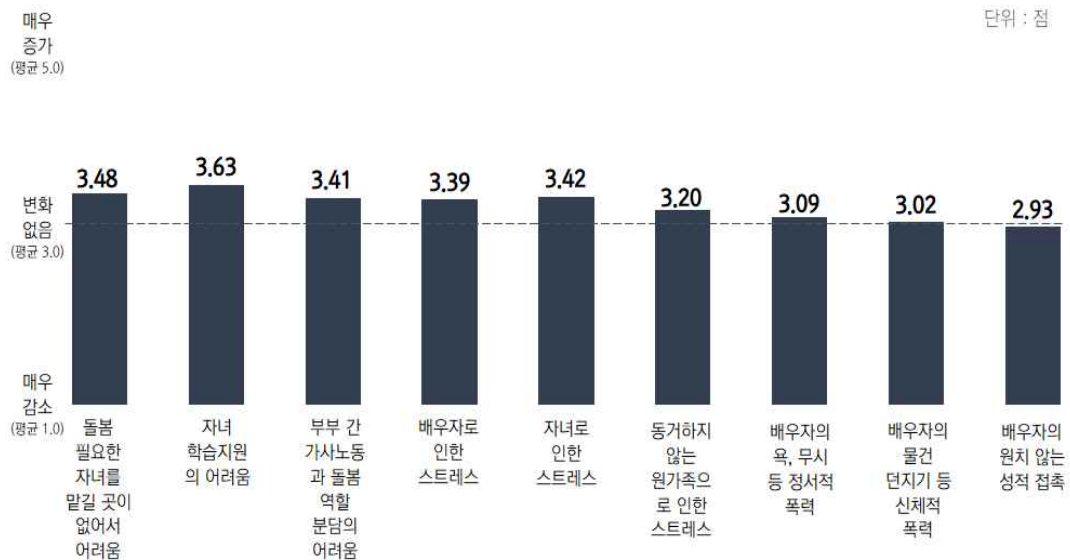
구분		자녀(가족) 동반이나 자신의 외출자제	집에서의 자녀(가족)와 함께 있는 시간 증가	집에서의 음식준비와 배달음식 증가	온라인 장보기 횟수 증가	기타	
합계		(494)	55.2	13.8	22.1	8.5	0.4
성별	남성	(256)	53.8	14.8	23.3	7.3	0.8
	여성	(238)	56.7	12.7	20.9	9.8	
연령대	25-39세	(105)	50.7	6.7	32.5	10.1	
	40-50대	(262)	54.8	12.5	22.4	9.5	0.8
	60대	(127)	59.5	22.1	13.0	5.3	
결혼 여부	미혼	(101)	50.2	3.9	31.2	13.7	1.0
	기혼	(353)	57.5	16.8	19.0	6.4	0.3
	이혼/별거/사별	(35)	46.6	10.6	26.6	16.3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87)	42.4	2.2	33.7	21.7	
	2세대	(376)	56.6	17.4	20.1	5.6	0.3
	3세대	(16)	83.3		10.6	6.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5)	52.4	15.7	21.8	10.1	
	300-500만원 미만	(171)	52.6	15.3	21.9	9.0	1.2
	500만원 이상	(102)	65.8	6.9	22.5	4.8	
직업	경영/사무직	(263)	54.5	12.1	23.6	9.0	0.8
	판매/서비스직	(141)	60.0	10.5	22.0	7.5	
	전문기술직	(26)	55.4	11.1	22.1	11.3	
	일반직업직	(13)	22.8	35.7	41.5		
	전업주부	(21)	36.9	35.2	14.0	13.8	
	무직/기타	(28)	66.5	21.4	5.8	6.4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5)	56.8	10.6	23.3	8.6	0.8
	임시/일용직	(44)	35.4	19.5	30.5	14.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4)	58.7	12.0	22.1	7.2	
	해당 없음	(70)	55.6	25.0	12.7	6.8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69.9	11.5	8.8	9.8	
	초등학생	(53)	59.8	23.7	16.5		
	중학생 이상	(105)	54.9	13.9	19.9	10.3	1.0
	해당 없음	(284)	51.8	12.4	26.1	9.3	0.4



2) 코로나 전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서의 어려움 변화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유형별로 매우 감소에서 매우 증가까지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5점 만점 기준), 자녀 학습지원의 어려움(평균 3.63)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돌봄 필요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평균 3.48),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평균 3.42), 부부 간 가사노동과 돌봄 역할 분담의 어려움(평균 3.41)이 증가하였다는 반응으로 전반적으로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평균 3.39) 또한 다소 늘어났다는 반응인 반면, 동거하지 않는 원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평균 3.20)와 배우자의 욕, 무시 등 정서적 폭력(평균 3.09), 배우자의 물건 던지기 등 신체적 폭력(평균 3.02), 배우자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평균 2.93) 등 배우자의 폭력이나 일방적 요구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림 IV-2-20> 코로나 전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서의 어려움 변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다소 더 증가하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의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약간 증가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층에서 돌봄과 자녀 학습, 가사노동 등에서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판매/서비스직, 임시/일용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배우자의 욕, 무시 등 정서적 폭력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반응이었다.

<표 IV-2-18> 코로나 전후 가족관계 및 역할에서의 어려움 변화

단위 : 점(명)

		돌봄 필요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		자녀 학습지원의 어려움		부부 간 가사노동과 돌봄 역할 분담의 어려움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168)	3.48	(174)	3.63	(198)	3.41	(219)	3.39	(175)	3.42
성별	남성	(99)	3.35	(102)	3.46	(108)	3.36	(100)	3.25	(82)	3.27
	여성	(70)	3.68	(72)	3.87	(91)	3.47	(119)	3.50	(93)	3.55
연령대	25-39세	(39)	3.30	(39)	3.35	(42)	3.43	(24)	3.27	(22)	3.32
	40-50대	(122)	3.55	(129)	3.71	(134)	3.43	(142)	3.34	(130)	3.44
	60대	(8)	3.36	(6)	3.65	(22)	3.21	(53)	3.56	(23)	3.42
결혼 여부	미혼	(21)	3.05	(22)	3.07	(23)	3.23	(4)	3.58	(4)	3.58
	기혼	(142)	3.55	(147)	3.73	(170)	3.43	(208)	3.38	(165)	3.42
	이혼/별거/사별	(1)	3.00	(1)	2.31	(1)	3.00	(3)	3.68	(3)	3.66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	3.43	(9)	3.43	(9)	3.43	(4)	3.76	(3)	4.33
	2세대	(148)	3.48	(153)	3.66	(177)	3.40	(207)	3.39	(164)	3.40
	3세대	(8)	3.59	(8)	3.55	(9)	3.50	(6)	2.97	(7)	3.5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8)	3.31	(36)	3.38	(54)	3.24	(69)	3.42	(46)	3.34
	300-500만원 미만	(74)	3.48	(79)	3.63	(84)	3.49	(95)	3.32	(81)	3.39
	500만원 이상	(55)	3.60	(57)	3.78	(60)	3.44	(52)	3.47	(47)	3.54
직업	경영/사무직	(130)	3.51	(136)	3.68	(139)	3.43	(120)	3.36	(107)	3.45
	판매/서비스직	(22)	3.33	(23)	3.54	(36)	3.40	(61)	3.38	(41)	3.40
	전문기술직	(5)	3.40	(5)	3.19	(7)	3.29	(12)	3.42	(8)	3.25
	일반직업직	(3)	4.36	(2)	4.00	(4)	3.51	(7)	3.46	(5)	3.62
	전업주부	(4)	3.66	(4)	3.66	(6)	3.32	(9)	3.55	(6)	3.46
	무직/기타	(4)	2.77	(4)	2.77	(6)	3.00	(10)	3.48	(7)	3.13
고용 형태	상용근로	(129)	3.55	(132)	3.67	(137)	3.47	(119)	3.32	(109)	3.41
	임시/일용직	(12)	3.63	(14)	4.04	(18)	3.49	(18)	3.59	(15)	3.7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4)	2.95	(15)	3.30	(27)	3.21	(60)	3.41	(33)	3.38
	해당 없음	(14)	3.27	(13)	3.18	(17)	3.10	(22)	3.54	(17)	3.30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1)	3.96	(42)	3.79	(41)	3.82	(35)	3.30	(34)	3.50
	초등학생	(50)	3.59	(51)	3.96	(51)	3.50	(43)	3.37	(43)	3.62
	중학생 이상	(35)	3.23	(38)	3.47	(41)	3.12	(57)	3.35	(54)	3.30
	해당 없음	(42)	3.12	(41)	3.23	(64)	3.27	(84)	3.46	(45)	3.32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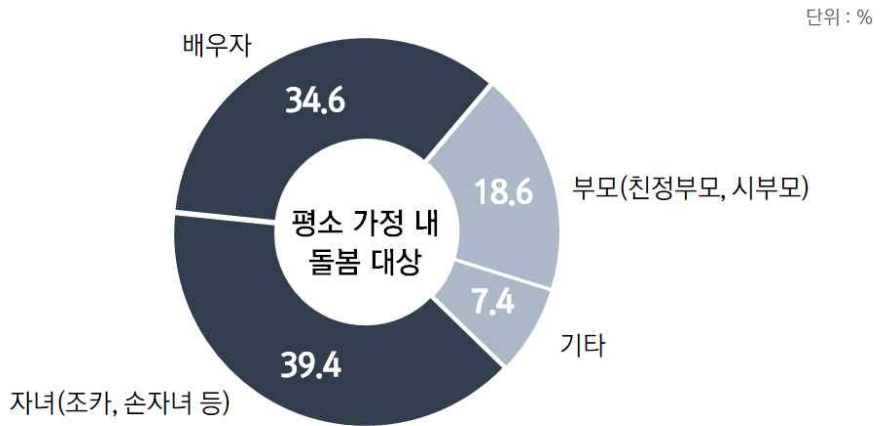
구분		동거하지 않는 원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배우자의 욕, 무시 등 정서적 폭력		배우자의 물건 던지기 등 신체적 폭력		배우자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162)	3.20	(140)	3.09	(131)	3.02	(129)	2.93
성별	남성	(79)	3.09	(72)	3.06	(65)	2.95	(64)	2.87
	여성	(84)	3.30	(69)	3.12	(66)	3.08	(65)	2.98
연령대	25-39세	(22)	2.97	(18)	3.04	(18)	2.95	(17)	2.95
	40-50대	(122)	3.20	(106)	3.04	(97)	3.00	(95)	2.91
	60대	(18)	3.48	(17)	3.47	(16)	3.19	(17)	3.00
결혼 여부	미혼	(7)	3.61	(5)	3.66	(5)	3.43	(4)	3.00
	기혼	(149)	3.16	(131)	3.05	(122)	3.00	(122)	2.93
	이혼/별거/사별	(3)	3.34	(1)	5.00	(1)	3.00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6)	3.67	(4)	4.50	(4)	3.51	(1)	3.00
	2세대	(150)	3.17	(131)	3.04	(121)	2.99	(122)	2.93
	3세대	(5)	3.18	(4)	3.00	(4)	3.00	(4)	3.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	3.22	(33)	3.18	(30)	2.96	(29)	2.93
	300-500만원 미만	(74)	3.23	(67)	3.09	(63)	2.99	(61)	2.90
	500만원 이상	(44)	3.12	(41)	3.02	(38)	3.10	(38)	2.94
직업	경영/사무직	(107)	3.17	(98)	3.05	(91)	2.99	(91)	2.90
	판매/서비스직	(35)	3.32	(19)	3.31	(14)	3.07	(14)	2.94
	전문기술직	(6)	3.17	(8)	3.13	(8)	3.00	(8)	3.00
	일반작업직	(5)	3.00	(5)	3.62	(5)	3.42	(4)	3.53
	전업주부	(4)	3.66	(4)	3.22	(6)	3.00	(5)	3.00
	무직/기타	(5)	2.82	(6)	2.54	(6)	3.00	(6)	2.85
고용 형태	상용근로	(108)	3.10	(95)	3.05	(90)	3.00	(88)	2.92
	임시/일용직	(17)	3.68	(13)	3.27	(11)	3.18	(10)	3.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24)	3.25	(18)	3.29	(14)	2.86	(16)	2.81
	해당 없음	(13)	3.31	(14)	2.93	(15)	3.13	(14)	3.07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33)	3.00	(29)	3.04	(29)	3.00	(28)	2.86
	초등학생	(41)	3.19	(37)	2.95	(35)	2.92	(35)	2.92
	중학생 이상	(42)	3.14	(33)	2.94	(30)	2.90	(31)	2.87
	해당 없음	(47)	3.39	(42)	3.37	(36)	3.22	(34)	3.06



3) 보육·돌봄 실태와 정책 요구

□ 평소 가정 내 돌봄 대상

평소 가정에서 주로 돌보아야 하는 대상을 알아본 결과, 자녀(조카, 손자녀 등)(39.4%)와 배우자(34.6%)가 주된 돌봄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친정부모, 시부모)가 18.6%였다.



<그림 IV-2-21> 평소 가정 내 돌봄 대상

40-50대 연령층에서 자녀(조카, 손자녀 등) 비율이 높은 반면, 25-39세 연령층에서 부모(친정부모, 시부모)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조카, 손자녀 등) 비율이 높은 반면, 낮을수록 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사무직과 상용근로, 임시/일용직에서 자녀(조카, 손자녀 등) 비율이 높은 반면, 판매/서비스직,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배우자 비율이 높았다.



<표 IV-2-19> 평소 가정 내 돌봄 대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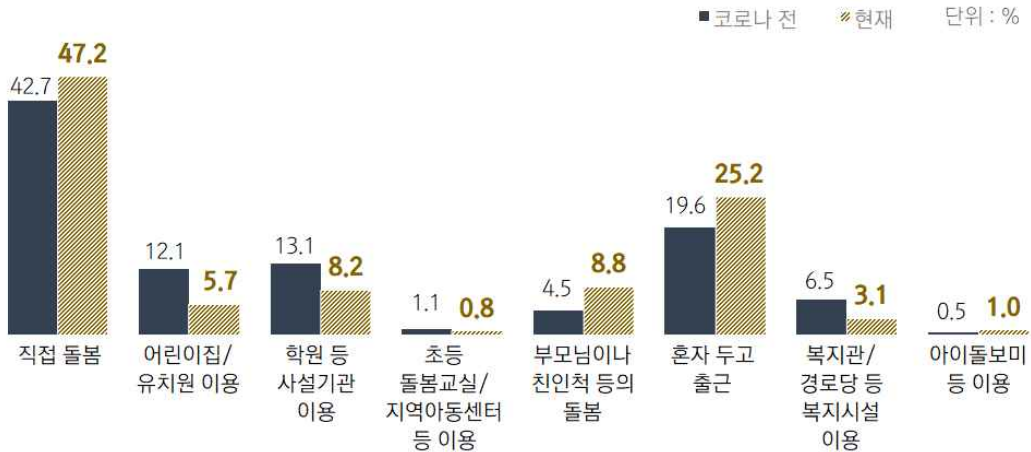
구분		자녀 (조카, 손자녀 등)	배우자	부모 (친정부모, 시부모)	기타	
합계		(371)	39.4	34.6	18.6	7.4
성별	남성	(201)	32.7	35.5	23.3	8.5
	여성	(171)	47.3	33.6	13.1	6.0
연령대	25-39세	(66)	27.2	16.3	39.0	17.4
	40-50대	(206)	55.6	19.8	17.8	6.8
	60대	(99)	13.7	77.5	6.8	2.0
결혼 여부	미혼	(51)	1.3	1.9	68.7	28.1
	기혼	(302)	45.3	42.2	9.1	3.3
	이혼/별거/사별	(14)	40.5		38.2	21.3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33)	5.9	6.0	49.8	38.3
	2세대	(314)	42.8	40.0	13.5	3.8
	3세대	(15)	49.6		37.4	12.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8)	18.9	50.2	20.1	10.8
	300-500만원 미만	(138)	47.9	28.0	20.3	3.9
	500만원 이상	(80)	64.7	14.5	14.4	6.3
직업	경영/사무직	(202)	52.3	18.4	22.6	6.8
	판매/서비스직	(111)	22.8	56.2	13.9	7.1
	전문기술직	(15)	19.9	53.2	26.9	
	일반작업직	(9)	39.0	40.2		20.8
	전업주부	(16)	39.5	42.9	11.3	6.3
	무직/기타	(18)	13.1	58.1	12.9	15.9
고용 형태	상용근로	(193)	52.6	18.8	22.7	5.9
	임시/일용직	(33)	42.2	25.3	20.7	11.9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97)	22.2	63.0	8.7	6.1
	해당 없음	(48)	19.1	47.0	20.8	13.1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6)	84.2	13.7	2.0	
	초등학교	(53)	90.5	5.7	1.9	1.9
	중학교 이상	(87)	55.7	26.0	12.6	5.7
	해당 없음	(182)	5.8	52.5	30.4	11.2



□ 코로나 전후 주된 돌봄 방법

코로나 전과 현재의 돌봄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직접 돌봄이 코로나 전 (42.7%)과 현재(47.2%) 모두 주된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혼자 두고 출근(코로나 전 19.6%, 현재 25.2%)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 전과 현재의 돌봄 방법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학원 등 사설기관 이용, 초등 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복지관/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등 코로나 전 시설 이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현재 이들 시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다소 더 낮아진 반면, 직접 돌보거나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의 돌봄, 혼자 두고 출근 비율은 약간 더 높아져 집단 돌봄 시설 이용률이 낮아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IV-2-22> 코로나 전후 주된 돌봄 방법

코로나 전 주된 돌봄 방법으로 영유아(~7세) 자녀가 있는 층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층에서 학원 등 사설기관 이용 비율이 높았다. 한편,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층에서 혼자 두고 출근 비율이 높았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20> 코로나 전 주된 돌봄 방법

단위 : %(명)

구분		직접 돌봄	어린이 집/유치원 이용	학원 등 시설 기관 이용	초등 돌봄 교실/지역 아동 센터 등 이용	부모님 이나 친인척 등의 돌봄	혼자 두고 출근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 시설 이용	아이 돌보미 등 이용
합계 (361)		42.7	12.1	13.1	1.1	4.5	19.6	6.5	0.5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6)	18.6	59.9	10.7		5.3	2.0	2.0	1.4
	초등학생 (53)	21.3	16.6	41.5	5.6	9.3	1.9	1.9	1.9
	중학생 이상 (86)	41.2	4.6	18.5	1.1	4.6	26.5	3.4	
	해당 없음 (172)	56.2	1.7	2.5		2.8	26.0	10.8	

현재 주된 돌봄 방법으로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직접 돌봄 비율이 코로나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혼자 두고 출근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1> 현재 주된 돌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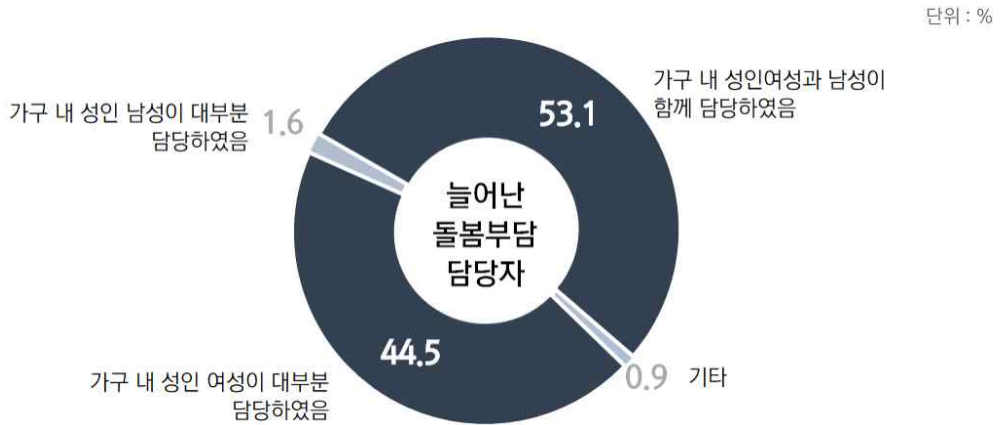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직접 돌봄	어린이 집/유치원 이용	학원 등 시설 기관 이용	초등 돌봄 교실/지역 아동 센터 등 이용	부모님 이나 친인척 등의 돌봄	혼자 두고 출근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 시설 이용	아이 돌보미 등 이용
합계 (357)		47.2	5.7	8.2	0.8	8.8	25.2	3.1	1.0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6)	24.3	37.1	10.8	1.7	16.4	6.2		3.6
	초등학생 (53)	45.8		20.7	1.9	16.6	13.2		1.9
	중학생 이상 (84)	43.4	1.2	14.2	1.2	8.2	30.7	1.2	
	해당 없음 (170)	55.5	1.2	0.9		4.7	31.2	6.0	0.6



□ 증가한 돌봄 부담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늘어난 돌봄 부담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구 내 성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담당했다는 층이 53.1%, 가구 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했다는 층이 44.5%인 반면, 가구 내 남성이 대부분 담당했다는 층은 1.6%로 주로 함께 하거나 여성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23> 늘어난 돌봄을 담당한 가족 구성원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가구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였음 비율이 다소 더 높은 반면, 남성에서 가구내 성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담당하였음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라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였음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층에서 가구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였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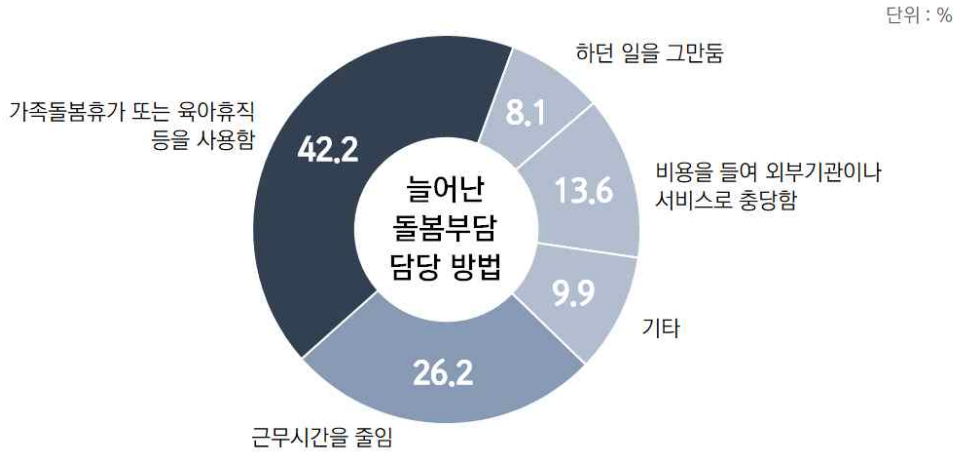
<표 IV-2-22> 늘어난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

단위 : %(명)

구분		가구내 성인 여성이 대부분 담당하였음	가구내 성인 남성이 대부분 담당하였음	가구내 성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담당하였음	기타
합계 (115)		44.5	1.6	53.1	0.9
성별	남성 (57)	34.9	1.7	63.3	
	여성 (58)	54.0	1.4	42.9	1.7
연령대	25-39세 (21)	37.1	3.8	59.1	
	40-50대 (86)	45.3	1.2	52.4	1.2
	60대 (9)	53.7		46.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0)	55.0	4.0	41.0	
	300-500만원 미만 (53)	42.7		55.4	1.9
	500만원 이상 (41)	42.6	2.4	55.0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34)	39.0	2.3	58.7	
	초등학생 (42)	47.2		50.4	2.4
	중학생 이상 (18)	27.8		72.2	
	해당 없음 (21)	61.9	4.7	33.4	

□ 증가한 돌봄 부담 담당하는 방법

늘어난 돌봄 부담을 담당하는 방법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층이 42.2%로 주로 휴가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무시간을 줄임(26.2%),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이나 서비스로 충당함(13.6%), 하던 일을 그만둠(8.1%) 순으로 일자리나 소득, 과도한 비용 발생에 영향 없이 돌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24> 늘어난 돌봄부담 담당 방법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가족돌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 비율이 다소 더 높은 반면(남성 52.6%, 여성 32.0%), 여성에서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이나 서비스로 총담함(남성 9.4%, 여성 17.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돌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무시간을 줄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층에서 가족돌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 비율이 높은 반면, 중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층에서 근무시간을 줄임 비율이 높았다.



<표 IV-2-23> 늘어난 돌봄부담 담당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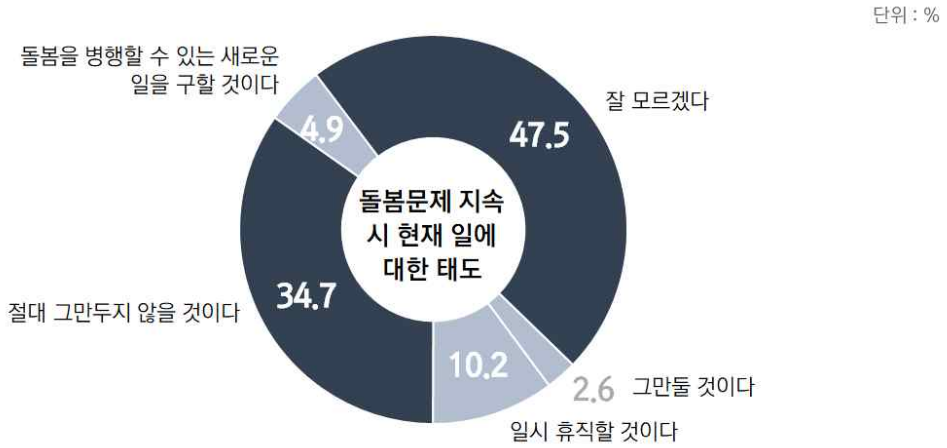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근무시간을 줄임	가족돌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	하던 일을 그만둠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이나 서비스로 총당함	기타
합계 (108)		26.2	42.2	8.1	13.6	9.9
성별	남성 (53)	24.2	52.6	6.5	9.4	7.4
	여성 (54)	28.1	32.0	9.8	17.8	12.4
연령대	25-39세 (17)	14.4	54.4	11.1	10.4	9.8
	40-50대 (83)	27.7	42.3	7.1	15.6	7.3
	60대 (8)	35.9	13.1	12.5		38.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7)	34.4	42.3		11.7	11.7
	300-500만원 미만 (49)	21.9	42.4	13.9	15.8	6.2
	500만원 이상 (41)	28.5	42.9	4.8	12.2	11.7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32)	27.1	52.2	9.8	5.6	5.3
	초등학생 (40)	17.1	48.1	7.3	17.6	10.0
	중학생 이상 (17)	35.3	29.4	5.9	11.6	17.8
	해당 없음 (19)	35.3	24.4	9.1	20.7	10.5

□ 돌봄문제 지속 시 현재 일에 대한 태도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층이 47.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일시 휴직할 것이다 10.2%,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구할 것이다 4.9%, 그만둘 것이다 2.6%로 응답해 17.7%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3.3%로 남성 42.3%에 비해 많았으며,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9.6%로 남성 34.7%에 비해 적었다.



<그림 IV-2-25> 돌봄문제 지속 시 현재 일에 대한 태도

계층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층에서 일시 휴직할 것이라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2-24> 돌봄문제 지속 시 현재 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합계	그만둘 것이다	일시 휴직할 것이다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구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합계		(473)	2.6	10.2	34.7	4.9	47.5
성별	남성	(249)	2.8	11.3	39.4	4.2	42.3
	여성	(224)	2.5	9.1	29.6	5.6	53.3
연령대	25-39세	(105)	2.5	12.9	28.4	2.3	53.9
	40-50대	(253)	1.6	11.8	41.0	7.0	38.6
	60대	(115)	5.2	4.4	26.8	2.4	61.3
결혼 여부	미혼	(99)	0.5	6.2	29.6	4.0	59.7
	기혼	(338)	3.0	12.2	36.6	4.8	43.5
	이혼/별거/사별	(32)	6.3	3.0	32.5	9.2	49.0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81)	3.0	4.0	32.8	4.9	55.3
	2세대	(361)	2.5	12.2	35.0	5.0	45.2
	3세대	(16)	6.0	6.3	30.2	6.0	51.4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구분		그만둘 것이다	일시 휴직할 것이다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구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합계 (473)		2.6	10.2	34.7	4.9	47.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01)	3.9	7.7	29.1	4.1	55.1
	300-500만원 미만 (165)	1.6	10.8	35.4	5.3	46.9
	500만원 이상 (101)	2.0	14.0	45.5	5.9	32.6
직업	경영/사무직 (260)	2.1	15.1	39.5	5.8	37.4
	판매/서비스직 (132)	2.8	4.5	35.9	3.6	53.2
	전문기술직 (25)			23.4	3.9	72.7
	일반작업직 (13)	15.0	7.6	42.0	6.0	29.4
	전업주부 (19)	7.6			5.1	87.3
	무직/기타 (23)		8.6	10.6	2.0	78.8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3)	1.6	14.3	40.0	6.3	37.8
	임시/일용직 (42)	6.1	8.7	24.1	9.0	52.2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14)	3.5	3.5	37.7	1.2	54.1
	해당 없음 (63)	3.1	7.0	15.4	3.0	71.4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4.4	23.4	33.4	5.0	33.9
	초등학생 (52)	1.8	26.8	31.6	7.6	32.1
	중학생 이상 (102)	2.0	6.8	47.3	5.9	38.1
	해당 없음 (267)	2.8	6.1	30.4	4.0	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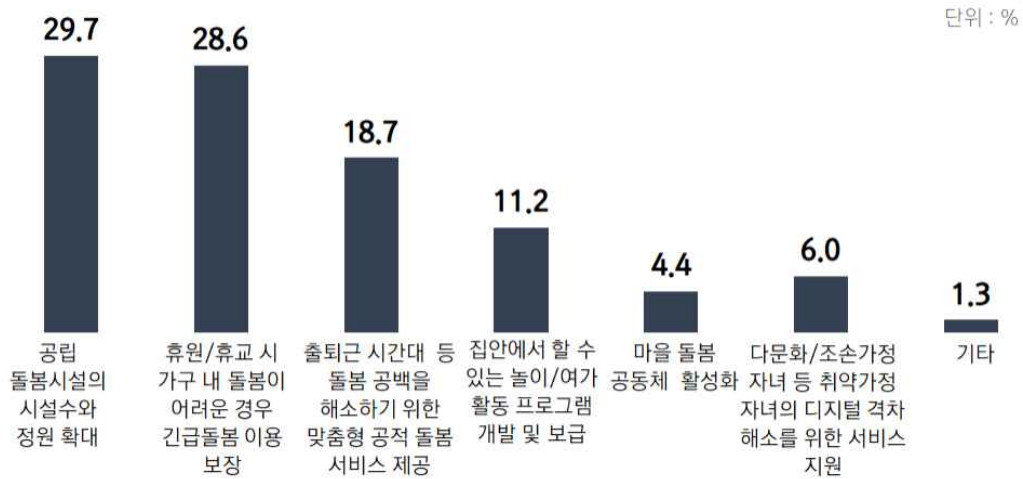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을 2순위까지로 알아본 결과(순위별 가중치 부여 후 100% 환산), 공립 돌봄시설의 시설 수와 정원 확대(29.7%), 휴원/휴교 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이용 보장(28.6%)이 가장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출퇴근시간대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18.7%),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1.2%), 다문화/조손가정 자녀 등 취약가정 자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6.0%), 마을돌봄공동체



활성화(4.4%) 순이었다.

지원 정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필요하다는 두 가지 정책은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외부 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다른 정책은 일부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성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26>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휴원/휴교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이용 보장(남성 26.4%, 여성 31.0%),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남성 3.5%, 여성 5.4%)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전업주부에서 공립 돌봄시설의 시설수와 정원 확대 비율이 다소 더 높으며, 영유아(~7세) 자녀가 있는 층에서 휴원/휴교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이용 보장 비율이 다소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25>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

중복응답 : 합계 100% 환산(1순위*2+2순위) / 단위 : %(명)

구분		공립 돌봄 시설의 시설수와 정원 확대	휴원/휴교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 돌봄 이용 보장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	다문화/조손 가정 자녀 등 취약 가정 자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기타
합계		(490) 29.7	28.6	18.7	11.2	4.4	6.0	1.3
성별	남성	(253) 29.5	26.4	19.4	13.5	3.5	6.3	1.5
	여성	(237) 30.0	31.0	18.0	9.0	5.4	5.6	1.1
연령대	25-39세	(102) 24.4	27.8	24.4	14.0	1.7	6.0	1.7
	40-50대	(260) 29.1	31.7	19.9	9.8	3.8	4.3	1.4
	60대	(128) 35.0	23.0	12.0	12.0	7.8	9.4	0.8
학력	고졸 이하	(167) 32.1	25.4	12.5	13.3	7.5	7.9	1.4
	대재/대졸	(310) 28.9	30.5	21.9	10.2	2.8	4.6	1.1
	대학원 이상	(10) 12.1	27.3	27.3	9.1	3.0	15.2	6.1
결혼 여부	미혼	(99) 24.7	23.3	27.1	15.1	1.7	6.5	1.7
	기혼	(350) 30.0	30.6	16.9	10.7	5.1	5.5	1.3
	이혼/별거/사별	(37) 38.0	25.0	12.0	8.3	5.6	10.2	0.9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0) 32.2	25.8	16.9	12.7	4.5	7.1	0.7
	2세대	(371) 29.2	29.5	18.8	11.0	4.5	5.7	1.3
	3세대	(15) 36.4	18.2	25.0	6.8	2.3	6.8	4.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4) 31.4	25.1	17.2	12.6	4.3	7.7	1.7
	300-500만원 미만	(170) 31.1	31.1	17.0	10.8	4.4	4.8	0.8
	500만원 이상	(102) 23.7	32.3	25.0	9.7	4.3	3.7	1.3
직업	경영/사무직	(262) 27.3	31.1	22.4	10.2	3.2	4.1	1.6
	판매/서비스직	(140) 31.2	30.0	15.2	11.6	5.6	6.3	0.2
	전문기술직	(26) 29.6	22.2	8.6	18.5	9.9	11.1	0.0
	일반직업직	(12) 46.2	25.6	10.3	7.7	2.6	7.7	0.0
	전업주부	(23) 40.6	23.2	10.1	5.8	8.7	10.1	1.4
	무직/기타	(27) 26.6	11.4	22.8	19.0	2.5	11.4	6.3



구분		공립 돌봄 시설의 시설수와 정원 확대	휴원/휴교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 돌봄 이용 보장	출퇴근 시간대 등 돌봄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	다문화/조손 가정 자녀 등 취약 가정 자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기타
합계		(490) 29.7	28.6	18.7	11.2	4.4	6.0	1.3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5) 28.3	31.2	21.4	10.4	3.2	4.6	0.9
	임시/일용직	(41) 37.2	25.6	16.5	7.4	5.0	5.8	2.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3) 31.3	30.2	15.1	11.5	5.8	5.8	0.3
	해당 없음	(71) 28.8	18.6	15.8	16.3	6.0	10.7	3.7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26.2	39.0	24.1	7.1	1.4	2.1	0.0
	초등학생	(53) 28.7	33.8	18.5	11.5	1.9	4.5	1.3
	중학생 이상	(104) 27.8	31.7	16.2	12.3	4.5	4.9	2.6
	해당 없음	(282) 31.6	24.5	18.6	11.8	5.4	7.1	1.1

3) 가족문제와 정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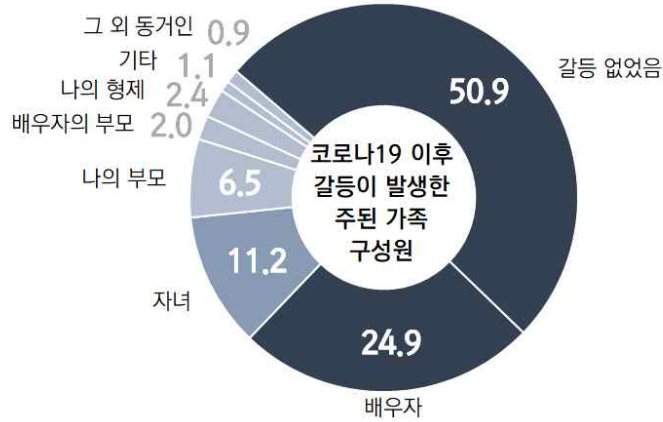
□ 갈등이 발생한 주된 가족 구성원

코로나 이후 주로 갈등이 발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 2순위까지로 알아본 결과(순위별 가중치 부여 후 100% 환산), 갈등이 없었다는 층이 50.9%로 절반 수준인 가운데, 배우자(24.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11.2%), 나의 부모(6.5%), 나의 형제(2.4%), 배우자의 부모(2.0%), 그 외 동거인(0.9%) 순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주된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단위 : %



<그림 IV-2-27> 코로나19 이후 갈등이 발생한 주된 가족 구성원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녀를 꼽은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 9.9%, 여성 12.7%).

계층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갈등이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영유아(~7세) 자녀가 있는 층에서 배우자 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업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이상 자녀가 있는 층에서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6> 코로나19 이후 갈등이 발생한 주된 가족 구성원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자녀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그 외 동거인	기타	갈등 없었음
합계		(495) 24.9	11.2	6.5	2.0	2.4	0.9	1.1	50.9
성별	남성	(258) 24.6	9.9	8.4	1.3	3.0	1.2	1.8	49.7
	여성	(237) 25.2	12.7	4.3	2.8	1.5	0.6	0.4	52.5
연령대	25-39세	(105) 14.0	3.9	13.5	1.7	3.1	0.0	1.3	62.4
	40-50대	(262) 24.1	16.6	5.9	2.0	1.8	0.5	0.5	48.7
	60대	(128) 35.2	6.1	2.0	2.4	3.1	2.4	2.4	46.4
결혼 여부	미혼	(102) 0.0	0.0	18.6	0.0	5.6	0.0	1.4	74.4
	기혼	(353) 33.1	14.3	3.0	2.8	1.5	0.7	1.2	43.5
	이혼/별거/사별	(36) 3.8	10.0	6.3	0.0	3.8	3.8	0.0	72.5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89) 2.7	0.0	9.6	0.0	4.8	2.1	0.0	80.7
	2세대	(376) 30.7	13.5	4.8	2.5	1.7	0.6	1.1	45.0
	3세대	(15) 16.2	10.8	24.3	2.7	2.7	2.7	8.1	32.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5) 23.3	5.3	6.7	1.3	2.3	1.3	1.5	58.4
	300-500만원 미만	(172) 27.1	16.7	8.0	2.2	2.5	0.5	1.2	41.8
	500만원 이상	(102) 22.1	14.0	3.8	3.0	1.7	0.9	0.4	54.0
직업	경영/사무직	(264) 20.7	14.6	7.7	2.6	2.1	0.3	0.7	51.3
	판매/서비스직	(140) 30.8	7.5	3.1	1.2	2.8	0.9	1.6	52.0
	전문기술직	(27) 27.1	0.0	13.6	0.0	5.1	1.7	1.7	50.8
	일반직업직	(13) 22.6	12.9	6.5	3.2	0.0	3.2	0.0	51.6
	전업주부	(22) 26.4	20.8	3.8	3.8	1.9	3.8	1.9	37.7
	무직/기타	(27) 31.6	0.0	7.0	0.0	0.0	1.8	3.5	56.1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5) 21.5	12.1	7.8	2.4	2.4	0.3	0.5	53.0
	임시/일용직	(44) 17.3	14.3	13.3	1.0	3.1	0.0	0.0	51.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4) 36.2	10.5	1.7	1.7	2.4	1.7	2.1	43.6
	해당 없음	(71) 22.2	7.6	5.7	1.9	1.3	1.9	2.5	57.0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42.7	13.7	3.4	6.0	0.0	0.0	0.0	34.2
	초등학생	(53) 29.4	23.0	2.4	1.6	0.0	0.0	0.8	42.9
	중학생 이상	(105) 22.1	25.3	5.6	0.8	1.6	0.4	0.4	43.8
	해당 없음	(285) 21.8	3.2	8.0	1.9	3.3	1.4	1.6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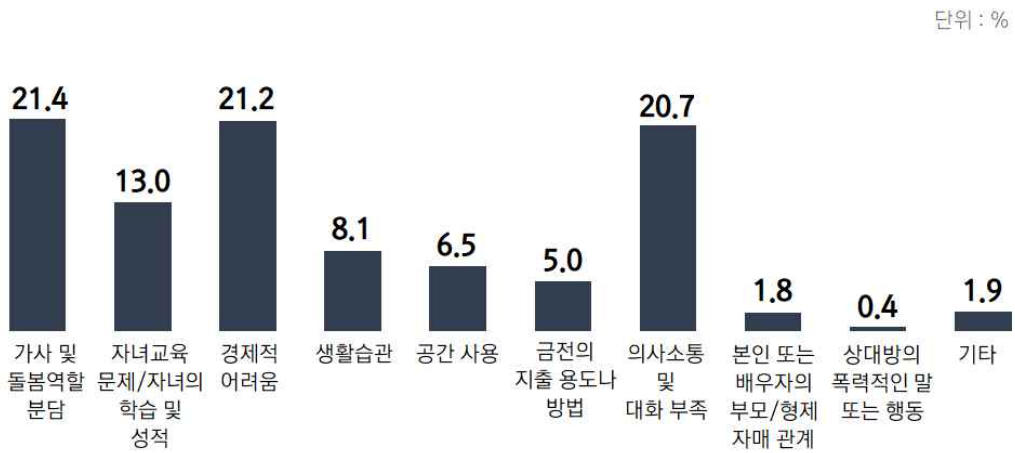
□ 가족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

1순위로 응답한 가족 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으로 가사 및 돌봄역할 분담 (21.4%), 경제적 어려움(21.2%), 의사소통 및 대화부족(20.7%)이 주된 원인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교육 문제/자녀의 학습 및 성적(13.0%), 생활습관(8.1%), 공간 사용(6.5%), 금전의 지출용도나 방법(5.0%),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관계(1.8%), 상대방의 폭력적인 말 또는 행동(0.4%) 순이었다.



<그림 IV-2-28> 주된 갈등 원인

갈등이 발생한 가족 구성원별 갈등 원인을 살펴 보면, 배우자는 가사 및 돌봄 역할 분담,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 및 대화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자녀의 학습 및 성적이 주된 원인이며, 나의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IV-2-27>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

단위 : %(명)

구분	가사 및 돌봄 역할 분담	자녀 교육 문제/ 자녀의 학습 및 성적	경제적 어려움	생활 습관	공간 사용	금전의 지출 용도나 방법	의사 소통 및 대화 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관계	상대방의 폭력적인 말 또는 행동	기타	
합계 (213)	21.4	13.0	21.2	8.1	6.5	5.0	20.7	1.8	0.4	1.9	
코로나19 이후 갈등이 컸던 가족 구성원(1순위)	배우자 (128)	26.6	7.2	23.7	5.4	6.2	4.4	22.8	1.5	0.6	1.6
	자녀 (41)	18.3	40.6	4.3	17.2		4.9	12.2			2.4
	나의 부모 (29)	5.8		32.3	11.9	17.0	7.0	19.1	3.5		3.5
	배우자의 부모 (5)		20.9	16.5		20.9		41.8			
	나의 형제자매 (5)	37.0		19.2				25.6	18.2		
	그 외 동거인 (1)			100.0							
	갈등 없었음 (4)	10.2	22.4	22.4			22.4	22.4			

계층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사무직, 상용근로자,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층에서 가사 및 돌봄역할 분담 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 연령층,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판매/서비스직, 전업주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에서 경제적 어려움 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표 IV-2-28>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

단위 : %(명)

구분		가사 및 돌봄 역할 분담	자녀 교육 문제/ 자녀의 학습 및 성적	경제적 어려움	생활 습관	공간 사용	금전의 지출도나 방법	의사소통 및 대화 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 관계	상대방의 폭력적인 말 또는 행동	기타	
합계		(213)	21.4	13.0	21.2	8.1	6.5	5.0	20.7	1.8	0.4	1.9
성별	남성	(113)	22.5	11.9	21.5	5.3	5.2	6.1	22.2	2.6		2.6
	여성	(100)	20.2	14.2	20.8	11.3	7.9	3.8	19.0	1.0	0.8	1.0
연령대	25-39세	(34)	34.4	8.4	13.0	7.3	5.7	2.7	25.5			3.0
	40-50대	(118)	24.5	21.0	14.3	7.6	5.9	5.9	16.8	2.5		1.7
	60대	(61)	8.2		39.2	9.7	8.2	4.6	25.6	1.6	1.3	1.6
결혼 여부	미혼	(23)	4.9		28.1	15.2	12.8		30.3	4.3		4.4
	기혼	(177)	23.4	15.0	20.8	6.7	5.6	4.3	20.9	1.1	0.4	1.7
	이혼/별거/사별	(9)	22.5	11.1	20.4	11.4		34.5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15)	23.1		27.1	9.9	19.7		13.6	6.6		
	2세대	(184)	21.5	14.5	20.9	7.5	5.9	4.2	21.9	1.1	0.4	2.2
	3세대	(9)	17.6	10.6	20.8	21.7			18.5	10.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0)	13.7	2.2	36.2	10.4	11.0	4.9	19.5		1.0	1.2
	300-500만원 미만	(88)	24.3	19.3	13.8	3.4	5.7	6.6	22.4	3.4		1.1
	500만원 이상	(41)	30.1	21.9	4.8	14.6		2.4	18.9	2.3		4.9
직업	경영/사무직	(109)	31.6	20.1	8.8	10.5	5.4	2.6	17.4	1.8		1.8
	판매/서비스직	(61)	10.8	6.3	38.3	3.2		9.9	26.9	1.6	1.3	1.6
	전문기술직	(13)			23.4	7.7	38.3	7.7	15.1	7.7		
	일반직업직	(7)	30.3		27.5	14.6			27.5			
	전업주부	(12)	11.7	15.8	32.8		16.6	6.5	16.6			
	무직/기타	(11)	9.8		30.1	17.4	8.7		25.3			8.7
고용 형태	상용근로	(104)	30.2	17.8	10.4	8.0	6.6	3.7	19.5	2.8		0.9
	임시/일용직	(20)	26.9	15.4	24.3	15.1			13.2			5.1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63)	10.3	6.7	35.2	6.4	1.6	9.6	25.8	1.6	1.3	1.6
	해당 없음	(26)	8.9	7.4	28.1	7.6	22.6	3.0	18.6			3.8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29)	63.1	16.9	3.5		3.5	3.5	9.5			
	초등학생	(27)	47.9	22.4	3.6	11.2	7.5		7.5			
	중학생 이상	(53)	5.6	28.3	28.1	9.5	1.9	7.6	15.2	1.9		1.9
	해당 없음	(102)	11.6	1.9	27.8	9.1	9.6	5.6	28.7	1.9	0.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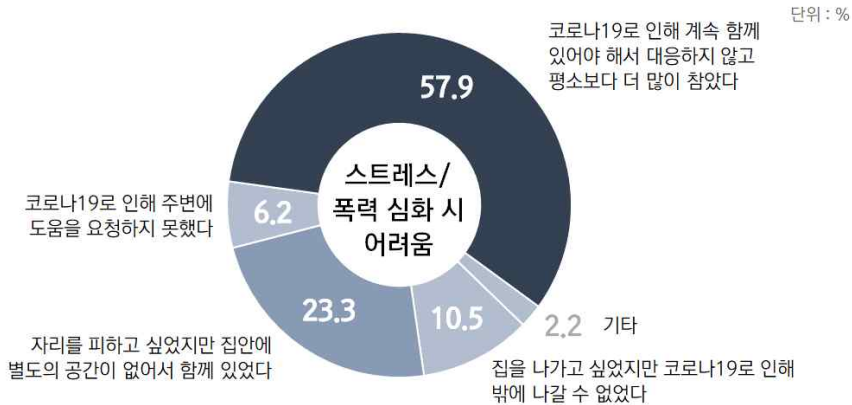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스트레스나 폭력 등이 심화되었을 때의 어려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 등이 심화되었을 때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함께 있어야 해서 대응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많이 참았다는 응답이 57.9%,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는 응답이 23.3%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가족 간 갈등이나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다는 응답이 10.5%,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2%였다.



<그림 IV-2-29>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으로 겪는 어려움

성별에 따라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에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남성 7.3%, 여성 13.2%)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29>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으로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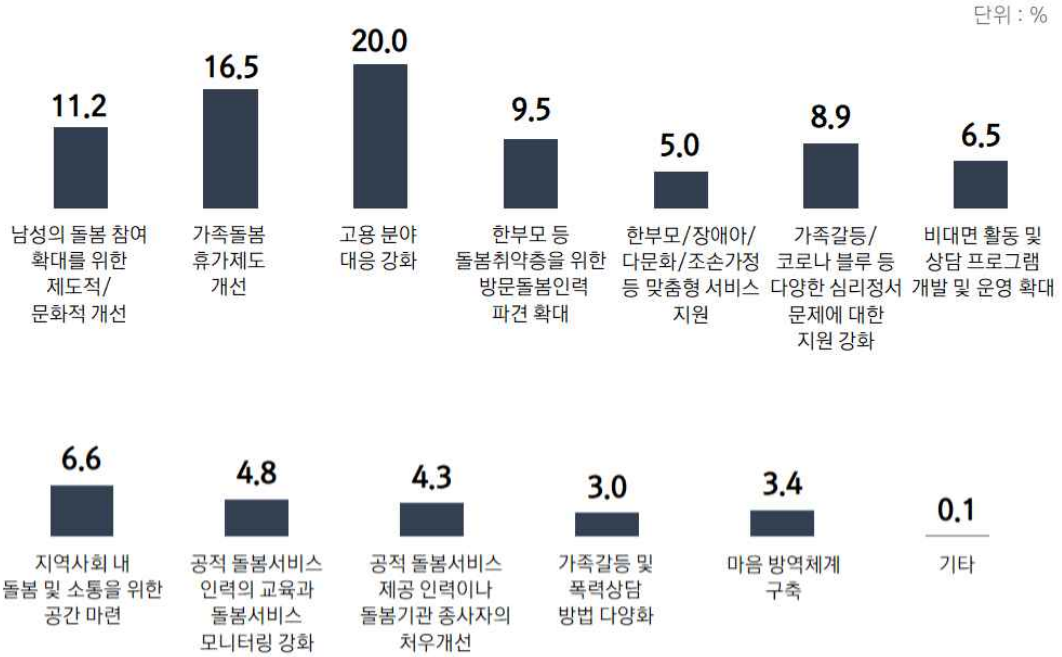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함께 있어야 해서 대응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많이 참았다	기타
합계		(92) 10.5	23.3	6.2	57.9	2.2
성별	남성	(42) 7.3	27.7	7.1	58.0	
	여성	(51) 13.2	19.6	5.4	57.8	3.9
연령대	25-39세	(11) 7.3	22.8	7.3	62.5	
	40-50대	(57) 10.5	23.0	8.6	54.5	3.5
	60대	(25) 12.0	24.2		63.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 16.6	18.0	12.4	53.0	
	300-500만원 미만	(38) 7.2	26.3	2.5	64.0	
	500만원 이상	(23) 8.7	26.2	4.3	52.1	8.7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19)	23.4	4.1	72.5	
	초등학생	(19) 26.6	10.7	5.3	52.0	5.3
	중학생 이상	(21) 28.8	28.8	4.5	61.9	4.8
	해당 없음	(33) 14.2	26.9	8.8	50.1	

□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에 대해 3순위까지로 알아본 결과(순위별 가중치 부여 후 100% 환산), 고용 분야 대응 강화(근무형태 다양화, 재택근무 여건 지원, 노동시간 단축 등)(20.0%)와 가족돌봄휴가제도 개선(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대상 확대 등)(16.5%)이 가장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 일자리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부모 등 취약층을 위한 방문돌봄인력 파견 확대(9.5%), 가족갈등/코로나블루 등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지원강화(8.9%),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6.6%), 비대면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6.5%)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30>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 돌봄 휴가 제도 개선(남성 15.4%, 여성 17.5%), 공적 돌봄 서비스 인력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남성 3.2%, 여성 6.5%)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계층에 상관없이 비슷한 견해를 보인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층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 개선(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대상 확대 등) 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30>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가족정책

중복응답 : 합계 100% 환산(1순위*3+2순위*2+3순위) / 단위 : %(명)

구분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	가족 돌봄 휴가 제도 개선	고용 분야 대응 강화	한부모 등 돌봄 취약층 을 위한 방문 돌봄 인력 파견 확대	한부모/ 장애아/ 다문화/ 조손 가정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족 갈등/ 코로나 블루 등 다양한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	비대면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합계		(500)	11.2	16.5	20.0	9.5	5.0	8.9	6.5
성별	남성	(260)	12.8	15.4	20.0	9.9	4.6	10.1	7.1
	여성	(240)	9.6	17.5	20.1	9.1	5.4	7.6	5.9
연령대	25-39세	(105)	16.5	18.4	16.6	7.3	4.1	8.9	6.8
	40-50대	(265)	9.2	17.7	21.0	9.9	4.5	8.3	7.8
	60대	(130)	11.2	12.2	20.4	10.8	7.1	10.3	3.8
학력	고졸 이하	(172)	10.2	12.7	21.0	11.2	5.8	9.6	5.8
	대재/대졸	(314)	12.1	18.8	19.3	8.8	4.4	8.4	7.0
	대학원 이상	(10)	7.6	12.1	25.8	4.5	10.6	7.6	7.6
결혼 여부	미혼	(103)	11.6	14.8	17.9	9.3	4.5	9.8	6.4
	기혼	(354)	11.2	17.3	20.8	9.4	4.9	8.8	6.1
	이혼/별거/사별	(39)	9.3	11.0	19.9	12.7	7.2	7.2	9.7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3)	9.8	14.3	18.4	9.9	5.1	8.7	6.7
	2세대	(376)	11.8	16.4	20.4	9.5	4.8	9.2	6.4
	3세대	(16)	6.3	29.2	24.0	1.0	8.3	10.4	6.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8)	11.7	13.8	19.7	11.3	5.3	9.9	5.4
	300-500만원 미만	(174)	10.6	18.4	19.3	9.5	4.7	9.7	8.3
	500만원 이상	(102)	11.3	18.8	21.3	5.9	4.9	6.1	6.2
직업	경영/사무직	(266)	11.9	18.5	19.7	8.0	4.4	7.7	7.6
	판매/서비스직	(142)	11.5	13.7	22.3	11.4	5.2	10.2	6.1
	전문기술직	(27)	9.5	16.7	19.6	13.7	6.5	10.1	3.0
	일반직업직	(13)	8.3	20.2	26.2	7.1	4.8	3.6	7.1
	전업주부	(23)	5.6	13.9	11.8	15.3	9.0	8.3	0.7
	무직/기타	(28)	11.8	9.5	17.2	7.7	6.5	14.2	5.3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12.8	19.5	20.2	7.6	3.8	7.1	7.2
	임시/일용직	(44)	9.4	17.2	27.0	7.1	4.5	5.6	4.1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10.3	12.8	20.0	12.9	6.6	11.8	6.5
	해당 없음	(73)	8.1	10.8	14.1	12.4	7.1	12.7	6.0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18.8	26.0	17.7	6.3	2.1	8.0	5.2
	초등학생	(53)	15.5	25.1	18.6	6.5	5.0	5.9	5.9
	중학생 이상	(105)	10.8	14.1	22.9	10.2	5.1	9.5	8.3
	해당 없음	(290)	9.5	14.2	19.6	10.5	5.4	9.3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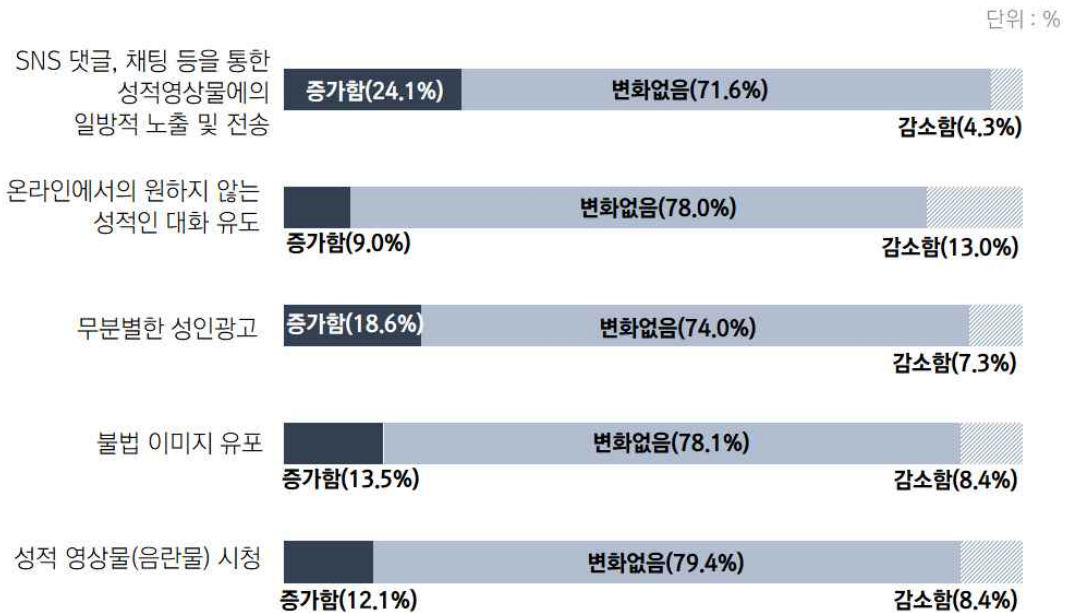
구분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	공적 돌봄 서비스 인력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이나 돌봄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가족갈등 및 폭력상담 방법 다양화	마음 방역체계 구축	기타	
합계		(500)	6.6	4.8	4.3	3.0	3.4	0.1
성별	남성	(260)	6.8	3.2	3.9	2.6	3.5	0.1
	여성	(240)	6.4	6.5	4.8	3.5	3.4	0.2
연령대	25-39세	(105)	4.4	6.5	5.7	2.1	2.8	0.0
	40-50대	(265)	5.5	5.4	4.5	3.0	3.0	0.3
	60대	(130)	10.5	2.6	2.7	3.8	4.7	0.0
학력	고졸 이하	(172)	7.7	3.6	3.8	3.9	4.5	0.2
	대재/대졸	(314)	5.8	5.5	4.6	2.3	2.9	0.1
	대학원 이상	(10)	7.6	1.5	9.1	6.1	0.0	0.0
결혼 여부	미혼	(103)	5.0	7.1	7.1	3.4	3.1	0.0
	기혼	(354)	6.7	4.3	3.7	3.1	3.3	0.2
	이혼/별거/사별	(39)	9.7	2.5	3.8	1.7	5.1	0.0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93)	8.0	5.8	6.3	2.9	4.2	0.0
	2세대	(376)	6.4	4.7	3.9	2.9	3.4	0.1
	3세대	(16)	2.1	4.2	3.1	5.2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8)	7.6	4.1	3.9	3.3	3.9	0.1
	300-500만원 미만	(174)	4.7	5.1	3.7	2.7	3.4	0.0
	500만원 이상	(102)	7.4	6.5	6.1	2.8	2.3	0.5
직업	경영/사무직	(266)	5.7	6.1	4.9	2.8	2.5	0.3
	판매/서비스직	(142)	6.3	4.2	2.7	2.3	4.2	0.0
	전문기술직	(27)	4.8	1.8	7.7	4.2	2.4	0.0
	일반작업직	(13)	7.1	0.0	3.6	4.8	7.1	0.0
	전업주부	(23)	13.9	6.3	3.5	4.9	6.9	0.0
	무직/기타	(28)	12.4	1.2	4.1	5.9	4.1	0.0
고용 형태	상용근로	(258)	5.3	6.2	5.0	2.3	2.8	0.1
	임시/일용직	(44)	7.1	6.4	6.7	1.9	3.0	0.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5)	6.7	2.2	2.4	3.9	3.9	0.0
	해당 없음	(73)	10.8	3.2	4.6	4.8	4.8	0.5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48)	4.2	6.6	4.9	0.0	0.3	0.0
	초등학생	(53)	3.7	6.2	3.1	1.9	2.5	0.3
	중학생 이상	(105)	6.2	3.5	3.8	2.7	2.4	0.5
	해당 없음	(290)	7.7	4.7	4.7	3.7	4.4	0.0



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 경험 정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에 대한 경험 정도를 확인한 결과, SNS 댓글, 채팅 등을 통한 성적영상물への 일방적 노출 및 전송에 대한 경험이 증가했다는 층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분별한 성인광고(18.6%), 불법 이미지 유포(13.5%), 성적 영상물(음란물) 시청(12.1%), 온라인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9.0%) 순이었다.

한편, 온라인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감소함 13.0%)를 제외하면 감소했다는 층에 비해 증가했다는 층이 많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에서의 위해요소 경험률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2-31>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 경험 정도



모든 문항에서 여성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남성 6.3%, 여성 15.4%), SNS 댓글 채팅 등을 통한 성적 영상물에의 일방적 노출 및 전송(남성 21.7%, 여성 29.6%), 무분별한 성인광고(남성 17.6%, 여성 21.2%) 경험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라인 상 위해요소가 대체로 다소 더 증가하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학생 이상 자녀층에서 성적인 대화 유도, 성인광고, 불법 이미지, 성적 영상물(음란물) 시청이 다소 더 증가하였다는 태도를 보였다.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표 IV-2-31>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 경험 정도

각 항목별 증가함 기준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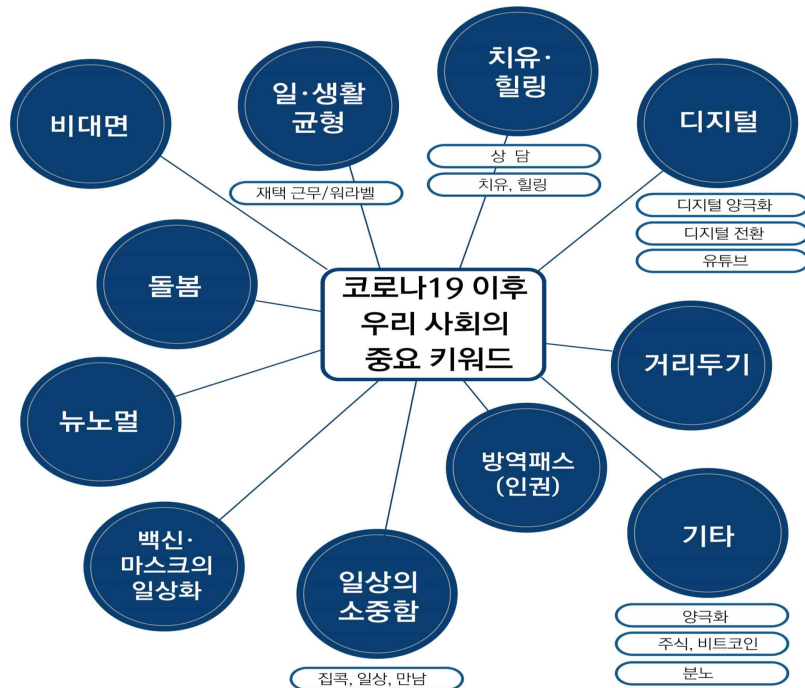
구분		SNS 댓글, 채팅 등을 통한 성적영상물에의 일방적 노출 및 전송		온라인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		무분별한 성인광고		불법 이미지 유포		성적 영상물(음란물) 시청	
		사례수	증가	사례수	증가	사례수	증가	사례수	증가	사례수	증가
합계		(139)	24.1	(122)	9.0	(135)	18.6	(130)	13.5	(129)	12.1
성별	남성	(96)	21.7	(86)	6.3	(96)	17.6	(90)	12.2	(92)	12.0
	여성	(43)	29.6	(37)	15.4	(39)	21.2	(40)	16.5	(38)	12.3
연령대	25-39세	(37)	18.6	(33)	6.6	(35)	6.7	(32)	5.3	(35)	5.2
	40-50대	(94)	24.4	(84)	9.4	(90)	20.9	(91)	16.4	(89)	12.3
	60대	(9)	44.4	(6)	16.7	(10)	40.0	(7)	14.3	(6)	50.0
학력	고졸 이하	(21)	30.8	(15)	6.8	(18)	19.5	(16)	2.9	(17)	17.9
	대재/대졸	(114)	22.2	(105)	9.6	(113)	18.3	(110)	14.6	(110)	11.5
	대학원 이상	(5)	40.2	(3)		(4)	24.9	(4)	24.9	(3)	
결혼 여부	미혼	(31)	15.0	(28)	8.5	(31)	6.9	(31)	11.3	(31)	6.5
	기혼	(103)	27.2	(88)	8.7	(99)	22.3	(93)	15.2	(91)	11.7
	이혼/별거/사별	(3)	29.4	(4)	22.7	(3)	29.4	(4)		(5)	55.5
가구 유형	1인 가구/형제자매	(15)	21.7	(15)	6.7	(15)	6.7	(18)	11.2	(19)	15.9
	2세대	(117)	24.4	(100)	10.0	(113)	21.4	(104)	14.0	(103)	12.3
	3세대	(4)	26.2	(3)		(3)		(3)		(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	29.5	(38)	12.4	(39)	13.8	(41)	11.5	(38)	12.6
	300-500만원 미만	(59)	21.8	(48)	7.3	(56)	19.5	(51)	15.6	(54)	11.2
	500만원 이상	(40)	22.3	(37)	7.8	(40)	22.2	(38)	12.8	(38)	12.9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7세)	(24)	25.8	(21)	3.8	(22)	10.1	(21)	5.9	(22)	3.5
	초등학생	(28)	7.2	(27)		(28)	7.3	(28)	3.7	(28)	3.6
	중학생 이상	(28)	24.8	(25)	15.9	(29)	34.4	(29)	17.1	(27)	22.2
	해당 없음	(58)	31.6	(49)	12.9	(55)	19.9	(51)	20.1	(51)	15.4



03 전문가 및 도민 의견조사 결과 분석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와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 전문가와 도민 36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인터뷰 및 서면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의 중요 키워드와 여성경제 활동, 가족생활/일·생활 균형, 출산·보육·돌봄, 폭력 예방과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 및 대응 과제, 각 기관 또는 개인이 겪은 어려움과 대응방안이 었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 키워드



<그림 IV-3-1>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 키워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디지털 양극화, 디지털 전환, 유튜브), 치유/힐링이 우리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비대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비대면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 접촉자와 비접종자에 대한 구별, 비대면 시장의 확대 등 생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디지털에 대한 의견으로는 세대간 디지털 매체에 접근에 대한 디지털 양극화, 기술 발달로 인한 디지털 전환, 유튜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치유/힐링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 외로움, 우울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집콕, 일상, 만남), 일·생활 균형(재택근무/워라벨), 뉴노멀, 돌봄, 방역 패스(인권), 백신, 마스크의 일상화, 기타(양극화, 주식/비트코인, 분노)에 대한 답도 있었다.

<표 IV-3-1>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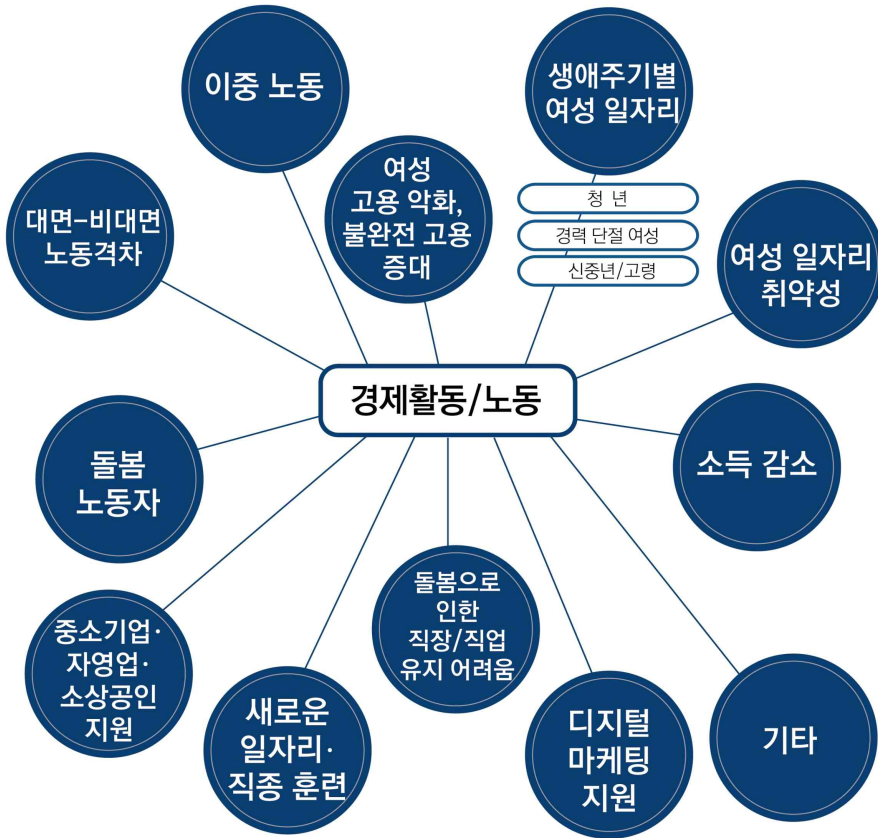
구분	키워드	이유
비대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해짐에 따라 비대면이 중요 •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잘 전달이 안되고 공간의 한계로 인해 활동의 제한도 존재함 • 비대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확산이 심각해짐(박명희) • 백신접종, 미접종 여부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나뉘어지는 어린이집 실정임 • 온라인 공간으로 전환되어 소통됨에 따라 정보의 양은 증대되었으나 팩트 체크에 대한 분별력 필요성 증대 • 생산, 소비, 교육, 훈련 등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산업의 시장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함 • 만남에 제한이 있으니 비대면 회의가 진행 되고 한정 된 공간에 늘 함께하는 공간이 형성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 함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속에서의 학습활동을 제한함. 취업 여성에게는 자녀 돌봄 부담 증가는 물론 온라인 학습과 과제를 챙겨야 하는 등 학교의 역할까지 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림 • 비대면 교육, 회의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 구직자, 구인업체와의 정서적 교감과 친밀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느낌 • 비대면으로 근무, 교육, 회의 등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비대면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디지털 (5)	디지털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의 활용능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 미취학,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원격교육과 학력 격차 •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거나 원활한 접근이 어려운 대상(장애인/고령자/중장년/주부 등)에게는 디지털소외 및 디지털 양극화가 나타남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이 혁명의 전제가 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빅데이터, AI, 네트워크 등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임 • 新기술(AI, 메타버스, 키오스크 등) 도입 가속화 및 파급 • MZ 세대와 화합하기 위한 새로운 관념 요구
	유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를 동반한 생활이 일상화 됨
치유, 힐링 (3)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에 대한 관점이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선 생각되고 있어서 개인 및 사회 갈등에서 치유가 어려움
	치유, 힐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상 불안감 지속으로 치유와 힐링이 필요 • 외로움, 우울함 등에 노출이 된 사람들에게 치유, 힐링이 필요함
거리두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코로나 거리두기단계를 파악하기 위함 • 상당수의 모임이나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우리 문화가 개인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화
일상의 소중함	집콕, 일상,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음 • 학생들의 수업이 원격으로 병행하는 날이 많아 졌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미접종한 사람을 구분하여 특정 장소에 이요하지 못하는 불편한 점이 생겨났다
일·생활 균형	재택근 무, 워라 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가 급증하면서 워라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뉴노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이다. 방역과 경제위기로 점철되는 사회의 논의구조를 이제는 바꾸어 낼 필요가 있다
돌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가 얼마나 돌봄에 취약한 사회였으며, 사적영역의 문제로 인식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방역 패스 (인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패스는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수자(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통한 분리, 배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
백신, 마스크의 일상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소하고 낯선 단어들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생활이 되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지켜야 할 예절로 자리를 잡아가는 현실. 다수의 의견에 묻힌 소수의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게 한다
기타 (3)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경제의 회복속도는 전반적인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
	주식, 비트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는 인류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아이러니 하게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임..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돈이 갈곳이 없어 자산시장으로 유입됨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서 불충분의 이유들로 자기본인들만 충족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로 해소할 수 없는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인 분노들로 가득 차 있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남



□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경제활동/노동)



<그림 IV-3-2>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경제활동/노동)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노동에 관련된 주요 이슈로 코로나로 인한 여성일자리감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됨, 여성인력 퇴직 등 여성 고용 악화/불완전 고용 증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20대 미취업 문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문제,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방안 등 생애주기별 여성 일자리(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중년/고령)에 대한 문제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에 관련해서는 영세업자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소상공인에 근무하는 노동자 일자리 등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한편, 여성일자리 취약성, 돌봄 노동자, 돌봄으로 인한 직장/직업 유지 어려움, 소득 감소, 대면-비대면 노동격차, 이중 노동, 새로운 일자리/직종 훈련, 디지털 마케팅 지원, 기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경제활동/노동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과제로 불완전 노동 증가에 따른 여성 취업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인력감소 실태조사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여성 노동자 차별 및 해고 예방, 여성 노동자 일자리 확보 등 여성 고용 악화, 불완전 고용 증대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애주기별 여성 일자리에 대한 대응 과제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기관 설립(청년), 경단녀 교육훈련 강화 필요(경력단절여성),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군 단위 지역 중심으로 시니어 활용해 지역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신중년/고령) 등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여성 일자리 취약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종의 여성 친화적 기업 지역 유치 필요하며, 임시직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금 제도 확대와 성별임금격차 및 근로조건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돌봄으로 인한 직장/직업 유지 어려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돌봄 노동자, 새로운 일자리, 직종 훈련, 대면-비대면 노동격차, 이중 노동, 새로운 일자리, 직종 훈련, 디지털 마케팅 지원, 기타 등에 대한 과제도 제시되었다.



<표 IV-3-2>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경제활동/노동)

구분	주요 이슈	
여성 고용 악화, 불안전 고용 증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의 불안전 고용 증대 • 여성근로자 권고 퇴직. 경영 위기로 인한 인력감소 시 여성인력 퇴직이 많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축소에 따라 여성일자리 감소 • 여성의 노동활동을 위축시켰고 일자리가 축소되는 어려움 • 코로나19관련 경제활동의 피해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었음이 확인됨 • 여성이던 소매점 서비스 일자리가 사라지고, 남성 일자리로 인식되는 플랫폼 일자리가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 일자리 확보 	
생애주 기별 여성 일자리 (5)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미취업 청년 문제 • 청년여성을 사업기획자로 양성하여 경북맞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문제
	신중 년/ 고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년 일자리 개발 • 여성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 온라인 경제활동을 제외한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성이 악화 • 소상공인들의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상공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들 중 인력을 축소하고 인건비 지출 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 고용의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 	
여성 일자리 취약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직종에 분포되어 있고 그 일자리는 비정규직형태가 많고, 영세사업장 등 열악한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 위기상황에서 취약 • 대면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는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일자리 감소 • 법적 보호가 미비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실업 가능성 높음 	
돌봄 노동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의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자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폭력적 행동이 증가했고, 그에 대응해야할 사회복지사들도 방역지침 준수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 다른 종사자들도 다 같은 날 접종을 해서 백신휴가를 내려면 모든 직원들이 같이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백신접종을 해서 어르신들 부작용을 관찰하느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많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지원이나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기관이 폐쇄됨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교육에 어려움. 취약계층은 온라인교육에 참여/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악순환 	



돌봄으로 인한 직장/직업 유지 어려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보육으로 권고할 당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자녀 보육을 위한 여성의 퇴직과 상대적인 가구소득의 하락 돌봄시설이 폐쇄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재직여성들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무급휴직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에게 돌봄에 대한 부담 가중 	
소득 감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생활에 타격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구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 	
대면-비대면 노동격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경우와 취약한 환경에서(물류, 병원, 돌봄시설 등) 근무하는 경우, 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실직 등. 주요 업종 및 근무형태의 변화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이중 노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경계 분리가 잘 안되면서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의 중첩으로 인한 이중노동 증대 	
새로운 일자리, 직종 훈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판매플랫폼의 수요 확대, 소규모, 소자본 서비스업의 급격한 사업 안정성의 하락 	
디지털 마케팅 지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적 활동 자제로 마케팅 활동 축소 	
기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 확진자를 만날지 알 수가 없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돌봄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하므로 기존인력의 임금을 보존해줄 수 없음 	
여성 고용 악화, 불완전 고용 증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완전 노동 증가에 따른 여성 취업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인력감소 실태조사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여성일자리 감소 실태 파악 및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확보 방안 제시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성 노동자 차별 및 해고 예방과 여성에게 집중된 것에 대해 비정규직사용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 필요함 사업장을 통한 지원이 아닌 근로관계 및 피해 입증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필요함 일자리 변화를 파악해야할 것이다. 위기상황에 취약한 일자리들이 주로 여성 일자리라면 취약성을 해소할 방안 필요함 공공과 기업 연계 	
생애주 기별 여성 일자리 (5)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같은 기관 설립 청년 기획단을 양성하여 청년이 고령자 사회적조직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경력 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단녀 교육훈련 강화(중장기 과정) 필요(기존 학력·경력 강화하거나 새로운 이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설계)
	신중년/고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군 단위 지역 중심으로 시니어 활용해 지역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여성고령자 사회적조직 설립/두레/부업 모색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여성 일자리 취약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일자리 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직종의 여성 친화적 기업 지역 유치 필요 • 임시직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지원금 제도 확대 • 특수직 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관련한 생활비 지원체계 확대 • 성별임금격차 및 근로조건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 구직여성들의 빠른 일자리 복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확대 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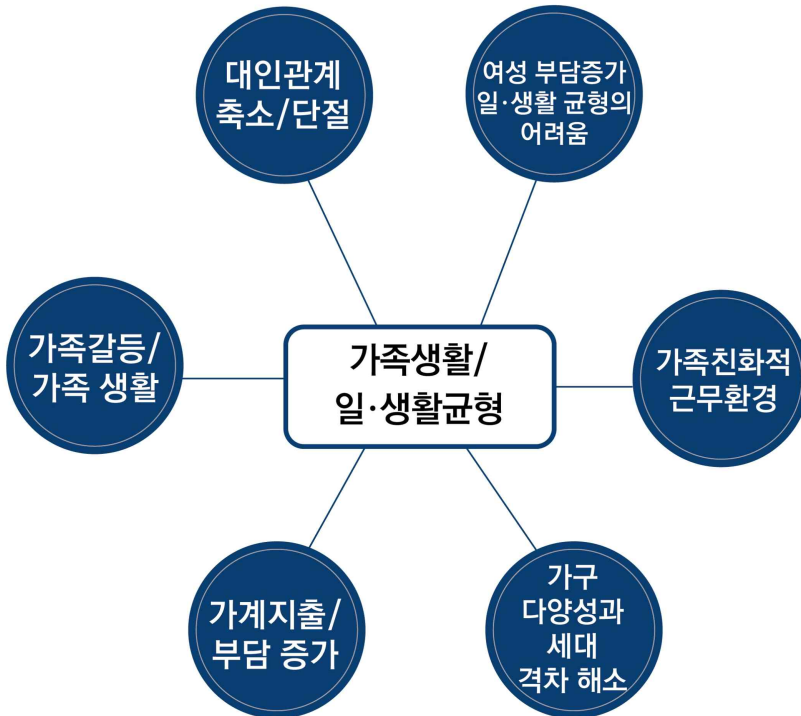
<표 IV-3-3>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경제활동/노동)

구분	대응과제
돌봄으로 인한 직장/직업 유지 어려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돌봄교실이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들이 편히 맡길수 있는 보육정책이 절실히 필요 • 초등학교 저학년은 신청시 무조건 방과후 교육활동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녀보육 관련 특별육아휴직제, 긴급 인력보충 지원금 제도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돌봄으로 인한 휴직 시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 제도 마련. •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더불어 이를 통해 파생되는 돌봄 직종 여성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경북 실태 파악하여 대안 마련 • 온라인 문화 비대면 문화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한 컨설팅등 자금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 보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또는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 매출 변화를 확인하여 자금 지원/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돌봄 노동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의 일선에 있기에 코로나블루나 자아소진을 해소하는 지원을 받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방안(실현 가능한!)을 찾아보면 좋겠다 • 고령자 접점자, 취약계층 접점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취약계층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별 교육이 필요
새로운 일자리, 직종 훈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동화 지원(생산설비, 장비 등) 및 지속적인 시장확보전략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필요 •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계획적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대면-비대면 노동격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경우와 취약한 환경에서(물류, 병원, 돌봄시설 등) 근무하는 경우, 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실적 등 주요 업종 및 근무형태의 변화 등에 대한 부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이중 노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노동과 직업 노동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방안 연구
소득 감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의 경우 비대면생활이나 각종 인원규제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기에 온라인구매를 돕는 지원서비스가 절실



디지털 마케팅 지원 (1)	• 디지털 마케팅 강화 및 새로운 근무 환경 조성
기타	•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 • 업무배제가 발생하면 유급휴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가족생활/일생활 균형)



<그림 IV-3-3>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가족생활/일생활 균형)



가족생활/일·생활균형에 대한 주요 이슈로 소통과 양성평등한 관계, 대외적 활동 축소로 인한 가족 대면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갈등 발생, 일과 생활의 불균형, 폐쇄적인 가족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가족갈등/가족생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성 부담 증가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 대한 답이 많았으며, 세부 의견으로는 가사, 자녀 교육, 직업 노동의 중첩에 의한 여성 부담 증가로 일·생활 불균형 심화, 자녀 돌봄이 여전히 여성 몫임, 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의 생활 제한으로 인한 가사노동 증가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대인관계 축소/단절,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가계지출, 부담 증가, 가구 다양성과 세대 격차 해소에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가족생활/일·생활균형에 대한 대응 과제 또한 가족갈등/가족 생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세부적으로 일·생활 불균형이 심화될 것에 대한 새로운 가족생활 방안 연구 필요, 가족상담지원과 비대면 가족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가족공동생활 증가와 공동 활동 실태 파악 및 가족 워라벨을 위한 정책 대안, 가족 간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할 대응 과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부담 증가로 인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남녀에게 기울어진 일과 돌봄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며, 워드 코로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 유도, 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대인관계 축소/단절,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가구 다양성과 세대 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표 IV-3-4>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가족생활/일·생활 균형)

구분	주요 이슈
가족갈등/ 가족 생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양성평등한 관계와 관련된 가족 갈등 • 대외적 활동이 최소화되면서 가족들이 부딪힐 일이 많아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 가족 개별 구성원 역할 수행강화를 위한 세부적 접근이 필요함 • 가사노동 분담문제, 각자의 생활습관문제, 여가활동의 의견차이로 인해 가족의 갈등이 발생 • 사회적보육, 돌봄이 무너지고 (휴원, 자가격리, 업무배제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어져 부부사이에도 갈등이 발생 • 자녀들의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외부생활의 제한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회생활의 제한을 받고 교육 문제, 식생활 문제 등 • 가족공동활동 시간이 증가했으나 활용방법 부재 • 다양한 여가 문화 개발 필요 • 가족 간 폭력 예방 필요 • 가족 간 폐쇄적이게 되고, 갇혀있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
여성 부담 증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자녀 교육, 직업 노동의 중첩에 의한 여성 부담 증가로 일·생활 불균형 심화 • 자녀 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이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 서비스의 축소는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떠넘겨졌고 이는 여성의 부담이 되었다 • 가족생활은 제한(넷플릭스-배달)되고, 고용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 경제활동 위축으로 직장에서의 압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전반의 활동 위축으로 가족 내 돌봄의 확대로 인한 내적 압력으로 인해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던 일·생활 균형 급격이 붕괴 • 먹고 사는 문제, 집 대출, 아이들 학비 등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위기 •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부양할 가족(노부모)의 활동 제한으로 인해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늘고, 자녀와 노부모의 방역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의 불비 • 소규모회사에서는 자택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 일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계에 위험을 받고 있다 • 경제활동과 보육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하는 보육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하는 한부모 취업 여성에 있어서는 더욱 힘들어할 수밖에 없음.
대인관계 축소/단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축소 및 주변과의 단절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움이 제한될 수 있음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에게 사업자금/직원의 휴직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라던지, 근로자에 가정돌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지원서비스 또한 필요. • 가족생활과 일·생활균형이 과거 보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계지출, 부담 증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수만큼 매일 바꾸어야하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되어 가계에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
가구 다양성과 세대 격차 해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 비혼가구, MZ세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캠페인

<표 IV-3-5>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가족생활/일·생활 균형)

구분	대응과제
가족갈등/ 가족 생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사회 구조적 변화로 가족생활, 일·생활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가족생활 방안 연구 필요 • 가족프로그램,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먼저 가족들이 힘이 되는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을 지원 • 구성원의 개별 역할 수행이 중요,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등의 정보 제공 • 가족상담지원과 비대면으로 가족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비대면서비스가 불가능한 직업군의 대체인력을 운영 • 마음양성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의 성취를 북돋워 주기위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식비 제공 • 가족공동생활 증가와 공동 활동 실태 파악 및 가족 워라벨을 위한 정책 대안 • 가정 내 여가 문화 개발, 비대면으로 영화,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접근 기회 제공 • 가족 간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안전하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방법을 제시
여성 부담 증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에게 기울어진 일과 돌봄의 균형추를 바로 잡는 데 있어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 • 남성육아 휴직의무와 공동육아 정책의 지원확대가 필요 • TIME OFF의 다양한 시도 필요. 독박 돌봄자의 휴식기 제공(단시간 공공 돌봄 파견) • 워드 코로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 유도(감염병 위험과 사회적 위험의 균형 있는 접근 필요) • 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사회분위기를 조금은 바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한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사례 증가와 이에 대응해야하는 기업의 대응 환경 실태 파악 및 워킹맘대디 가족돌봄 지원 정책 대안 제시(기업 대응 방안 중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공백 대처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체적으로 자택업무가 가능할 수 있게 지원 •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할 있는 여건을 만들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업이 왜 일·가정양립 제도를 반기지 않는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대인관계 축소/단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동아리 지원 등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사업 추진이 필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야근 축소, 꼭 필요한 회의·모임 진행, 재택근무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은 물론 기업 경영의 효율성 증대,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유지, 기업의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등의 기회로 삼아야 함.
가구 다양성과 세대 격차 해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세대의 생각과 가치관 변화 프로그램 개설

□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출산·보육·돌봄)



<그림 IV-3-4>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출산·보육·돌봄)



코로나19 위기에 출산·보육·돌봄과 관련하여 돌봄 부담과 저출산 심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돌봄 부담 관련 주요 이슈로는 여성의 돌봄 스트레스 심화, 가정보육으로 인한 맞벌이부부 업무 어려움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저출산 심화에 대해서는 임신과 출산 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기관 이용 불편함 등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그 외에도 교육격차 심화, 사각지대, 출산 등 의료 접근성, 돌봄기관 감염 위험, 보육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대응과제로는 돌봄 부담의 경우 돌봄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 긴급휴가지원정책, 긴급보육전담교사 증원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권고 및 홍보 등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저출산 심화 관련해서는 임신부를 위한 의료지원 체계 연구와 산후조리와 아기 돌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 연구, 일반기업에서도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교육격차 심화, 사각지대, 출산 등 의료 접근성, 돌봄기관 감염 위험에 대한 응답도 나왔다.

<표 IV-3-6>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출산·보육·돌봄)

구분	주요 이슈
<p>돌봄 부담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돌봄 스트레스가 문제 될 수 있음 • 돌봄의 위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증폭 • 부모입장에서는 집에서 보육해야함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돌봄 공백에 대해 책임 있는 운영과 대책이 필요 •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양육자 1인이 휴가, 휴업을 해야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긴급보육서비스 또한 갈등이 되는 현실 •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인 부부라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 •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긴급보육시 담당 교사 지원, 점심급식지원, 위생용품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학습 지원 뿐 만아니라 교재지원, 도시락이나 간식지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재료지원이 필요 • 아이 부모 중 한명은 어쩔 수 없이 휴직 등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보육과 돌봄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힘든 점이 많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위기 상황에 돌봄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 사회적 돌봄이 가정으로 돌아감에 따라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에 대한 돌봄공백이 생겼을 때,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 • 돌봄노동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탈피 • 갑자기 휴원이나 휴교가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은 혼자 집에서 온라인클래스 진행이 가능하나, 저학년은 그것이 어렵고 급하게 긴급돌봄을 신청하여도 구하기 어려움 • 미취학아동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시설에 출근하면서 함께 데려오게 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미안하고 아이에게도 미안함 • 코로나로 인해 동생 갖기를 미루시거나 포기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셨고 어린이집의 갑작스런 하원 조치나 휴교령으로 원아들을 맡길 곳이 막막한 부모님들이 계셔 힘들어하셨다
저출산 심화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와 태아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등으로 임신과 출산을 기피할 것이므로 저출산 심화될 것임 • 돌봄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맞벌이하기 힘든 현실이라 출산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 같습니다 • 불확실성에 의한 결혼 연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산율 0.6%대 돌입 • 출산 후 신생아 돌봄의 과정 외부인의 도움이 제한적이고, 불안감이 있어 가족의 희생만이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병상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면서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 발생 • 일반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지자체의 출산정책 변화 필요 • 임신부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갈 병원이 없다
교육격차 심화, 사각지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 교육과 경제력 약화 등으로 교육 격차가 심화 • 자녀 돌봄 및 교육 사각지대의 확대 • 출퇴근이 일정치 않는 경북 여성 직종으로는 자녀의 비대면 수업 대처의 위기 초래, 아동의 학업 격차 양극화
출산 등 의료 접근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 질병 등의 우려 심해질 수 있음 • 대학병원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
돌봄기관 감염 위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아동의 경우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긴 하지만 장시간 함께 놀다보면 벗어버리거나 상대방의 마스크를 만지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의 형평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는 보육재난지원금을 불평등하게 지급함에 따라 힘든 와중에도 차별까지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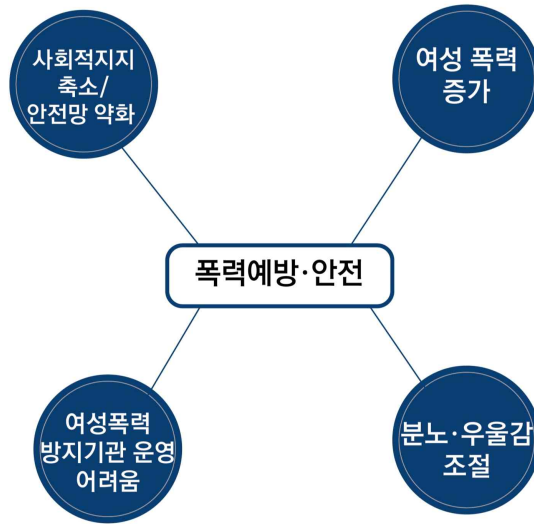
<표 IV-3-7>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출산·보육·돌봄)

구분	대응과제
<p>돌봄 부담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환경 개선 및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원의 조기설치(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역할 확대, 기능강화를 통한 돌봄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긴급휴가지원정책이 필요 • 긴급보육전담교사의 증원이 필요 • 어린이집 긴급보육시 담당교사 지원 • 점심 급식 지원, 위생용품 지원(• 초등생 온라인 학습 지원, 교재 지원 • 초등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재료 지원 • 시설 중심의 돌봄은 감염병과 위기의 상황에 취약하기에 탈시설 및 최근 대두되는 커뮤니티케어로 돌봄의 체계를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 •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젠더화 된 가정 내 돌봄 및 성불평등의 문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심화된 것. 가정 내 양성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한 성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재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부의 돌봄지원과 직장차원에서의 돌봄휴가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 • 남성 육아휴직 권고, 남성 육아휴직 홍보 • 요리하는 아빠, 빨래하는 아빠, 김장하는 사위, 돌봄노동하는 아들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홍보 • 긴급돌봄 등 대체인력 확충으로 워킹맘에게 아이가 짐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 •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은 안전한 곳에서 지원해주는 가정 돌봄이 있었으면 한다
<p>저출산 심화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를 위한 의료지원 체계 연구와 산후조리와 아기 돌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 연구 • 돌봄센터가 많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 좀 더 많은 보육료 지원 • 여성의 안전과 모성보호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별도의 병상과 회복실을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일반기업에서도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지자체 출산정책 중 첫째부터 지원하는 출산 장려정책 도입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은 사회와 가족의 동일선상에서 시작하여 언제, 어디서든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 • 출산 시 병원 입·출입 통제를 완화



교육격차 심화, 사각지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교육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제공 •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체계(시설, 인력, 비용) 실태 파악 및 비상가족 돌봄 체계 마련 방안 제시(일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돌봄 시설, 경력단절여성돌봄인력 고용, 예산 지원) • 아동 방과 후 돌봄 시설 차량 운영
출산 등 의료 접근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돌봄기관 감염 위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에서 근무중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 물품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

□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폭력예방, 안전)



<그림 IV-3-5>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제(폭력예방, 안전)

코로나19 이후 폭력예방과 안전 관련 키워드는 여성 폭력 증가, 여성폭력 방지기관 운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폭력이 증가했다는 주요 이슈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이 늘고 있음, 디지털성폭력의 증가, 신고의무



자들의 대면접촉이 어려워 문제 발견 가능성 감소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여성폭력 방지기관 운영 어려움으로는 불안한 상황에서 상담소 이용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 가족 서비스 특성상 대면이 일반화되어야 정서 지지와 공감이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 외에도 사회적지지 축소/안전망 약화, 분노·우울감 조절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폭력예방과 안전 관련 대응과제 중 여성 폭력 증가의 대응과제로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위기 가정에 대한 전담 상담원 배치 및 센터 연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여성폭력 방지기관 운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과제로는 상담원들의 심리적지원이 필요, 비대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그 외에도 사회적지지 축소/안전망 약화, 분노·우울감 조절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과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표 IV-3-8> 코로나19 위기 주요 이슈(폭력예방, 안전)

구분	주요 이슈
여성 폭력 증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이 늘고 있음 • 생활고로 인한 분노 표출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고 있음 • 가정폭력상담 전문기관 휴관과 쉼터 입소 제한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 했던 아픈 경험으로 남아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될 우려와 새로운 유형의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 등 폭력과 안전 문제가 여전히 주요한 이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 디지털성폭력의 증가와 특히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의 증가 • 가정 폭력 증가 등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집단(수용)시설 거주인의 경우 집단(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해 지는 악순환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 • 젊은 청소년, 청년들의 데이트폭력 등 사회구석구석 안전불감증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현실 • 경기위축과 스트레스 지수 증가는 가정 내 갈등과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고 외부와의 노출이 줄어들면서 신고 가능성이 낮아짐.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같이 신고의무자들이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 •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 필요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낙인효과를 씌움으로 추가피해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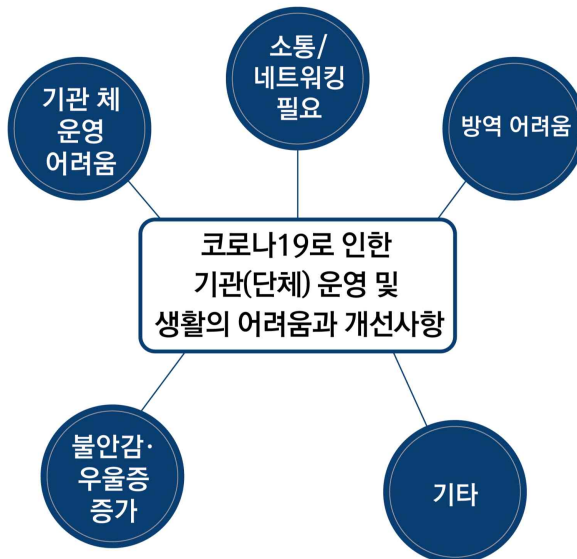
<p>여성폭력 방지 기관 운영 어려움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한 상황에서 상담소 이용자들을 지원해야하는 어려움 • 가족 서비스 특성상 대면이 일반화되어야 정서 지지와 공감이가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있음. 집합 교육의 경우 소수정원에 사업비가 비효율적이라 권장할 수 없는 상황 •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서 근무를 함에도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위험수당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무방비로 일을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가부에서는 마스크 한 장도 이렇게 지원이 안 됐었던 상황 • 저희 같은 시민단체나 여성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각지대 •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더 플러스 하게 되는 것
<p>사회적지지 축소, 안전망 약화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고 공적 서비스가 방역 등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지지 축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p>분노, 우울감 조절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높은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가 나는 경우도 많고 화 풀이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IV-3-9>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제(폭력예방, 안전)

구분	대응과제
<p>여성 폭력 증가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 교육 강화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의무화(연간 이수시간 설정) 시키는 동시에 부모들의 가치관, 취업관, 결혼관 등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있거나 폭력 발생 사례가 있는 위기 가정에 대한 전담 상담원 배치 등 예방적·사후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가정폭력 피해 상담센터 및 보호 쉼터에 대한 신속한 연계와 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는 공익적 캠페인을 방송매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함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 • 도내 피해자 쉼터 시설 확충 • 가정폭력/가스라이팅 신고교육 확대 • 성범죄자 알림e 등 범죄자 조회가능 어플 홍보 • 여성폭력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해결 방안 연구 • 생활고와 스트레스 증가, 폭행의 성별, 세대별 실태 파악 및 기존 지원 체계와 연계, 보완, 신설 등의 대안 제시 •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 후 가정복귀를 한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특히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폭력 재발을 예방할 필요 • 디지털 기반 성폭력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확진자와 불안감 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넘어 전 사회적인 심리, 정서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수용) 방식의 거주시설 정책에서,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정책으로 위험의 집중에서 위험의 분산 필요
여성폭력 방지 기관 운영 어려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들의 심리적지원이 필요 • 온라인 상담 강화를 위한 교육, 줌이나 화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떻게 내담자와 연결하고 지원할지 교육도 필요 • 소수 정원의 운영 상시화 필요 • 비대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매뉴얼 개발 • 여성폭력 방지 기관/시설 방역 지원 • 심리상담을 하는 부서가 생겨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을 상담 해줄 수 있는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심신 갈등 해소 방법으로 가족캠프 및 힐링 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지지 축소, 안전망 약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서비스 영역에 폭력 예방과 안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활성화로 위협요인 최소화 노력 필요함
여성폭력 방지 기관 운영 어려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위험수당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그림 IV-3-6>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으로는 기관 단체 운영 어려움, 불안감, 우울증 증가, 방역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기관 단체 운영 어려움 관련 주요 이슈로는 대면 활동 및 사업의 중단되거나 유보되면서 단체 활동 위축과 다양한 후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상 어려움 직면, 감염에 대한 불안정성 등이 있었다. 불안감, 우울증 증가로는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우울증이 높아졌다는 의견과 방역 어려움으로는 치매어르신들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이 힘이 든다는 등 대상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다. 그 외에 소통, 네트워킹 필요, 불안감, 우울증 증가 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대응과제로는 기관 단체 운영 어려움에 대해 유증상자 중심의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검사로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진입 필요, 동일한 거리두기 지침 적용 및 준수를 권고하여 운영의 혼란을 줄이도록 유도, 방역관리 인원에 대한 지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 외에 소통, 네트워킹 필요, 불안감, 우울증 증가 등에 대한 답이 있었다.

<표 IV-3-10>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 주요 이슈

구분	주요 이슈
기관 단체 운영 어려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활동 및 사업의 중단되거나 유보되면서 단체 활동 위축과 다양한 후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재정 운영상 어려움 직면 •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돌봄 노동자와 피돌봄가정에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지만 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음 • 정부와 지자체의 거리두기 지침의 불안정성에 따른 일선 기관의 성과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 유료 직업훈련과 사회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한 현실이며, 심지어 국비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찾아오는 교육 훈련 인원도 매우 감소하여 교육훈련 운영이 과거와 비교해 어려운 상황 • 방역관리 인원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기존 직원 중 관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어 담당직원의 업무 피로도도 확대
불안감, 우울증 증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우울증이 높아짐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전파원이 되는 것에 대한 항상적인 불안감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및 인간관계 제약으로 인한 고독감 증가



IV. 경북도민의 생활변화 및 인식조사 분석

방역 어려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시에는 비접종자의 프로그램 이용시 PCR 검사 이행 여부에 대한 민원 발생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선 • 치매어르신의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이 힘이 든다.
소통, 네트워킹 필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까지 지속하던 생활 방식과 사업 추진 및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관(단체)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음. 적절한 지원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기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로 인해 여성/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위기로 인해 드러난 취약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 • 코로나19 때문에 혐오나 차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 독거 어르신의 경우 혼자 아파도 약을 드실 수 없고 응급상황이 생길 시 연락의 어려움

<표 IV-3-11>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단체) 운영 및 생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 대응과제

구분	대응과제
기관 단체 운영 어려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 중심의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검사로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진입 필요 • 다양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동일한 거리두기 지침 적용 및 준수를 권고하여 운영의 혼란을 줄이도록 유도 • 방역관리 인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업무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소통, 네트워킹 필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불안감, 우울증 증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사회적 관계 유지 활동 강화(전화, 메시지 주고받기, 화상회의 등), 야외 활동 확대 및 운동 증대
기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어르신들의 경우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다녀서 가정에서의 요양서비스를 못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간을 더 늘려 주시면 시설입장에선 어르신들이 집에서의 시간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V. 워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V.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01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목표 전략, 과제

선행연구 분석과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코로나 위기와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의 목표와 전략과제, 세부 정책과제를 경제활동/노동, 돌봄, 가족, 젠더폭력의 4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각 영역별 목표와 전략과제, 세부 정책과제는 아래 <표 V-1-1>과 같다.

먼저, 경제 영역의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 대응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확산,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여성일자리 정보격차 완화, 여성집중 일자리 노동 여건 개선,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를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7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돌봄 영역의 목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중심의 평등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강화,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5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가족 영역의 목표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의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로 설정하고 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젠더폭력 영역의 목표는 새로운 젠더폭력 및 코로나 대응력 강화로 설



정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강화, 코로나 대응 기반 및 체계 강화를 주요한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V-1-1>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목표	전략 과제	세부 정책과제
새로운 일자리 대응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확산	여성 취업 취약업종의 일자리 확대 지원기관 강화를 통한 4차 산업 대응 여성 일자리 교육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여성일자리 정보 격차 완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면단위 까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운영 쉽고 빠른 매칭, 여성 누구나 일자리 플랫폼 구축
	여성집중 일자리 노동 여건 개선	고대면, 필수 노동 근로자 지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제도권화 기반 구축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다양한 근무유형과 제도 활용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지원 원격, 재택 근무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기반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	아동중심의 평등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 지자체-정부 협력 아동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아동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운영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학교-마을돌봄협의회 구성·운영 아동돌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 경북지역 다양한 가족의 성평등 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의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새로운 젠더폭력 및 코로나 대응력 강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 강화	디지털 성폭력 대응기반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코로나 대응 기반 및 체계 강화	경북형 폭력예방 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방지 유관기관/시설 지원강화



02 세부 정책과제

목표 1

새로운 일자리 대응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1-1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확산

1-1-1 여성 취업 취약업종의 일자리 확대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의 경제위기로 여성의 고용구조가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을 분명하게 드러냄
 - 2020년 여성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업종으로는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임. 여성 취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여성 고용 비중이 낮은 기술직이나 기능 등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업종이 주를 이룸
 - 2020년 직종별 여성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전국 11.4%/경북 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전국 11.4%/경북 14.5%)로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제조업은 본국 회귀 추세와 함께, 최근 로봇 도입이 늘어나고 있어 여성 인력의 주요 취업 시장으로 부각할 수 있음
- 제조업, 기술 및 숙련 노동 등 여성 취업이 적은 업종에 대한 적극적 고용 구조 개선으로 여성 고용 여건 변화 필요.



□ 사업 내용

- 기술 및 기능직 분야의 여성 취업 확대
 - 경북여성일자리본부 및 메이크스페이스 등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기술 및 기능직 훈련 교육 과정 강화, 현장형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 등으로 인력 양성
 - 기술 및 기능직분야 기업을 여성친화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으로 발굴하여 훈련생 연계, 적극적 여성 일자리 발굴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여성 취업 확대
 - 여성직업 훈련 교육 기관의 STEM 분야 교육 활성화로 인력 양성
 - 대학 진학시 진로 지도 및 이공계 여대생들을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
 - 정부 및 민간의 STEM 분야 기관에서 여성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대효과

- 여성 일자리의 다양성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양성
- 숙련 기능직 및 STEM 분야 일자리 확대로 임금의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



1-1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확산

1-1-2 지원기관 강화를 통한 4차 산업 대응 여성 일자리 교육 활성화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강타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업무와 일상 모두에서는 ‘언택트(Untact, 비대면)’가 빠르게 확산 정착되며 삶의 형태 변화가 나타남
 -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여성의 고용을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남. 이는 고대면서비스업 집중도가 높고, 이공계 및 기술 등 4차 산업 적합 직종에 낮은 성별 직종분리의 영향이기도 함. 향후 변화되는 산업 구조 변화에 여성의 고용 취약성은 더 커질 것으로 평가됨
- 경북여성일자리 본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기존 여성취창업 지원 및 교육 기관의 4차 사업 적합형 여성 일자리 교육 활성화가 요구됨

□ 사업 내용

- 여성 취창업 교육 기관의 4차산업 대비 적합 교육과정 확대
 - STEM 관련 기관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여성인재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강의 개설
 - 기술 및 기능직 훈련 프로그램 다각적 개발 다양화
 - 오프라인 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과정까지 교육 방법 다각화(온라인 교육 채널 상시 개설, 오프라인 집합 교육 분기별 개설)로 교육 기회 확대



- 음식 배달업의 급성장과 가정 간편식, 밀키트 소비 급증
→ 지역 특산물 및 향토 음식 개발 및 판매(밀키트 교육, 판매 및 홍보 교육 과정 개설)

- 경북의 여성취창업 지원기관 미설치 15개 시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미설치 시·군의 학교 및 기관등을 교육 거점 기관을 선정하여 취창업 교육 활성화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교육 코디네이터 양성
- 교육 타겟과 교육 레벨에 맞춘 다각적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 격차 없는 경북형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 STEM분야 미래 인재(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등) 양성을 위한 교육 개설 및 멘토링 제도 운영

□ 기대효과

- 4차 산업 적합형 여성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 직종 다양성 확보
- 직종 분리에 의한 여성 일자리 취약성 해소로 일자리의 성별격차 해소



1-2 디지털격차 해소를 통한 여성일자리 정보 격차 완화

1-2-1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면단위까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운영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4차산업 혁명은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킴
 - 정보격차는 저소득, 고령층 등 연령별 사회계층별로 취약성이 두드러짐. 또한 도농간에도 정보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중요 키워드로 비대면과 디지털을 꼽았으며, 세대간 디지털 양극화 기술 발달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실제 학교의 폐쇄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소득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됨
 - 고령 여성이 많으며, 시군간 격차가 큰 경북에서는 특히 정보격차의 문제가 정보 접근성에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 고령 여성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 등 정보 인프라 구축에 취약성이 뚜렷한 경북은 교육 기회 및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북형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마을단위까지 확장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 고령층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를 위한 읍면 단위까지 확대된 지역 사회 차원의 지속 교육 기반 마련
 - 면 단위 마을에 키오스크나 스마트 폰 활용을 위한 찾아가는 실습 현장 운영
- 고령층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를 위한 읍면 단위까지 확대된 지역



사회 차원의 지속 교육 기반 마련

- 면 단위 마을에 키오스크나 스마트 폰 활용을 위한 찾아가는 실습 현장 운영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 각 지역별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강사가 운영되고 있음. 고령화된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의 여건을 고려해 집합 교육 뿐 아니라 읍면 단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및 정책 홍보, 디지털 기기 대여 및 활용 교육 등 생활 밀착형 멘토, 또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수합
→ 전달하여 향후 수요자 맞춤형 기기 개선 등 역할 수행

□ 기대효과

-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일자리 사업 정보 전달성을 확대
- 코디네이터 및 교육 사업 운영을 통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



1-2-2

쉽고 빠른 매칭, 여성 누구나 일자리 플랫폼 구축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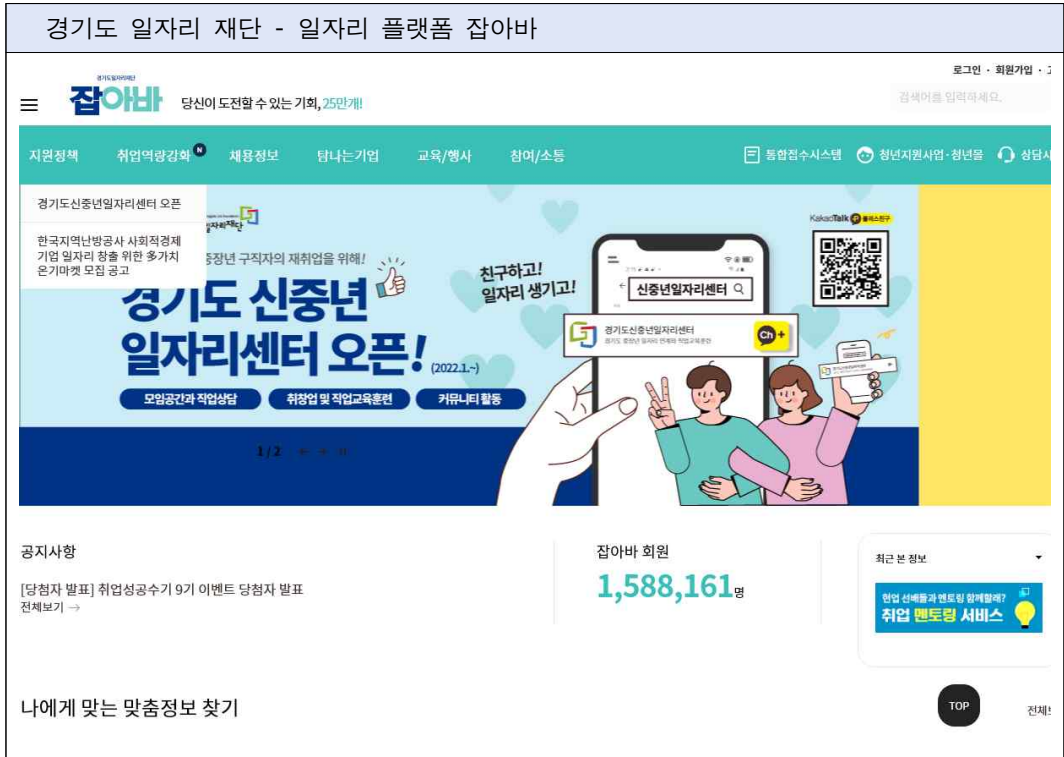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확산은 여성 일자리 정보 및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로 이어짐
 - 전문가 및 도민 면담 조사 결과 전문 경단녀 일자리, 신규 일자리, 중장년층 일자리 등 다변화된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또한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고객 발굴과 직원 확보의 어려움이 커지며,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함.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의 거주지 및 연령대, 병중에 따라 자격요건을 고려해 매칭해야 하지만 일할 사람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 다양한 경북 여성 일자리 정보와 기업과 여성 인력의 쉽고 빠른 매칭, 다양한 직업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플랫폼 구축 필요

□ 사업 내용

- 중고령층의 경북 여성 취업자를 고려해 스마트 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구인 구직자를 위한 정보 등록 앱 개발
 -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후 등록 시스템이 없어, 구인도 어렵고 구직도 어려운 미스매칭이 심함
 - 앱을 통해 구직자의 정보가 수집되면, 이후 구직 기업의 채용 정보를 통해 적합자를 매칭
 - 양쪽 정보의 일치로 수요와 공급을 맞춘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 각 마을별로 부녀회 등을 통해 앱을 홍보하고, 중고령층이 많은 지역에는 경북의 취창업 연계 기관에서 찾아가는 정보 등록 교육 진행하여 활용성 제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 향후 경북의 오프라인 취창업 연계 기관과 여성 취창업 교육 기관을 통합하는 허브 기관 구축으로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 채용 정보 및 구직정보, 일자리 교육 홍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통합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지역 여성과 구인 기업의 미스매칭 해소로 구직자과 기업 만족도 제고
- 구인 기업 및 구직자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여성일자리 정책 효율성 제고



1-3 여성집중 일자리 노동 여건 개선

1-3-1 고대면, 필수 노동 근로자 지원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는 노동자들의 계급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분열시키고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특성	내용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택근무, 화상회의, 전자문서를 다룰수 있으며, 코로나 위기에서 비교적 안전함(전문직, 관리직, 기술 인력 등)
필수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일을 해야함.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감염 위험이라는 부담 따름(의료인력, 육아 및 돌봄 노동자, 배달원 등)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 근무 불가능하여 임금을 받지못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큼(소매점, 대인 서비스업체 직원 등)
잊혀진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노출(이주 노동자, 콜센터 직원, 가사 도우미, 학습지강사 등 사각지대 노동자)

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혁신과제 연구

-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까지 이어지며 나타난, 이와같은 변화 속에서 여성 일자리는 육아 및 돌봄 노동자라는 고대면 필수 직종부터, 실업으로 이어져 향후에도 전망이 밝지 않은 판매업이나 대인 서비스 직종, 제도권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음
 -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30% 가량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 이중 전체 돌봄 노동자도 90%가 여성이며, 요양보호사는 94.9%가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59.6세임. 여성 돌봄 노동은 필수적 노동임에 불구하고 한국 현실에서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문제에 더해 인권 침해까지



- 이어지고 있음(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한국일보, 2021.11.10.)
- 돌봄 노동에 대한 여성활동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
- 코로나19로 보건 및 의료 분야와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위험의 부담과 함께,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으며 노동여건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에 고대면 필수 직종 노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사업 내용

- 고대면, 필수 노동 근로자 지원 제도
 - 요양보호사 및 영유아 돌봄 노동자 등 고대면 필수 노동자들의 요양 보호사의 임금 및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여성 집종의 돌봄 노동 분야의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등으로 역량 강화와 함께 숙련노동자로서의 가치 인식
 -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 구축

돌봄 노동 여건 개선 해외 사례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노조는 돌봄노동 분야의 저임금이 '여성 집중 직무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탓이라고 보고 정부에 진정을 냄 · 2012년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8년 이내 19~41%의 임금인상 결정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노동 노조의 '여성의 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절하로 남성이 수행했다면 받았을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됐다'라는 법원 소 제기 ·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노조와 정부의 교섭 시작, 2017년 4월 '돌봄 및 지원노동자 형평 임금 협약'을 체결 (반값 돌봄 노동자의 논문 '돌봄=여자일' 규정하고 임금 후려치기 팽배, 한국일보, 2021.11.10.)

□ 기대효과

- 전체 여성취업자의 30% 가량이 종사하는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 향상으로 여성고용 여건 개선 효과 기대



1-3-2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 지대 노동자의 제도권화 기반 구축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산업이 활성화 되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하지만 전통적인 여성 직종에서도 가사도우미, 서비스업 노동자, 학습지 강사 등이 플랫폼 노동자로 일찍부터 자리하고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도우미나 방과후 교사, 학습지 강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악화 문제가 제기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표적인 돌봄 및 교육서비스 직종이면서 여성 집중도가 높은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및 소득 변화와 정책요구를 조사하였음.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서 일자리 및 소득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함. 가사근로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대면서비스 기반이면서 비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아이돌보미는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으나, 감염 우려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가구가 증가해 소득 감소를 경험함(김난주·이선행, 2020)
- 가사도우미나 아이돌보미, 학습지 강사 등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실업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의 타켓형 소득 보전 정책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업 내용

-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정적 소득 및 지위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 가사 도우미 특별법 등 플랫폼 노동자별 여건에 맞춘 제도권화 기반 구축 필요
- 플랫폼 노동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손실 지원 제도 개설



-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특별법 재정으로 손실 지원 필요함

※ 사각지대 여성 노동자들의 70~80% 가량이 소득 손실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함

□ 기대효과

-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각지대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취약성이 큰 여성 경제활동의 파악 가능
- 사각지대 여성 노동자들의 제도권화를 통해 여성 노동의 질적 개선의 기반 마련



1-4 여성친화적 근무 환경 및 시간 변화 제도 기반 조성

1-4-1 다양한 근무유형과 제도 활용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지원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노동시장 충격은 여성,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았음
 - 코로나19로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의 조사 결과 남성은 무응답인 ‘자녀 등 가족 돌봄 문제’의 응답률이 여성의 경우 17.7%로 나타남
 - 또한 막내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 제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7세 이하인 경우 재택근무(42.0%), 시차출퇴근제(35.2%), 가족돌봄휴가(휴직)(53.3%), 시간선택제(31.7%)로 다른 자녀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큰 여성 취업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활용 수요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자들의 실제 이용률은 낮게 나타남
-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재택 근무나 가족 돌봄 휴가 등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무 등으로 여성근로자의 제도 활용성이 낮음
-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가칭) 일생활 균형 지원 센터 개설과 활성화로 경북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정책의 지속 추진
 - 기업 교육 및 우수 사례 공모전 등을 지속 추진하여 남녀가 모두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의 공감대 확산



- 지역내 지원 사업에 여성 인력 및 관리자 비중에 따라 가점 제공

□ 기대효과

-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중소기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확산을 통해 경북의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확산 기대



1-4-2

원격, 재택 근무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기반 구축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무 환경 및 근무 시간 유연화 확산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재택 근무 근로자는 2019년 8월 95천명에서 2020년 8월 503천명, 2021년 8월 1,140천명으로 약 12배 증가함(고용노동부)
- 코로나19는 근로자를 원격 근무 가능여부에 따라 새롭게 계급 구분을 하고 있음. 여성 근로자는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고대면 업종 비중이 높음
 - 기업 규모별 재택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70.5%, 중견기업 67.8%, 공공기관 67.4%, 중소기업 43.4%로 기업 규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2021년 4월 현황을 비교하면 대기업은 절반 이상이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12.2%에 불과함((주) 한국콘텐츠 미디어 공식 블로그)
- 경북의 여성 근로자는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고대면 업종 비중이 높아 재택근무의 어려움이 큼
 - 경북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중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양육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업무나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24% 가량으로 중학생 이상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여성(12.0%)이 남성 응답자(5.8%)의 두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원격,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상 기업의 인프라 비용 구축 지원과 함께, 여성 근로자 지원이 요구됨



□ 사업 내용

- 지역 거점 스마트워크 센터(원격근무용 업무공간) 구축
 -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 가까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 운영
 - 현재 경북도청에 공공 스마트워크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이를 여성 근로자 비중이 큰 지역 중심으로 읍면동까지 확장 운영 필요
- 재택근무에 필요한 중소기업적합형 프로그램 구축과 컴퓨터 등 기자재 렌탈 지원
 - 재택근무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축 운영과 활용 교육 실시
 -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 등 기자재 대여 시스템 운영

□ 기대효과

-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 해소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목표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

2-1 아동중심의 평등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2-1-1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원·휴업 기간 동안 경북지역의 초등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
 - 돌봄 공백을 겪은 가구는 2020년 3월 36.2%, 2020년 7월 37.5%로 증가하였고,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가구에는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구, 특별재난지역의 가구, 취약가구,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가구의 돌봄 취약특성이 드러났음
 - 코로나19 이후 경북지역 초등 돌봄 방과후돌봄서비스 필요도에서는 2020년(39.4%)에 비해 2021년(47.6%)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저학년 일수록 돌봄서비스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경북지역 학교 안팎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경북지역의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양육가구 돌봄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 사업 내용

- 경북형 학교 안팎 온(溫)종일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강화
 - 경상북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돌봄 수요의 급증에 따라 2021년부터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교 안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오후연장 및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 안팎 온(溫)종일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



구분	오후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 전학년 확대가능, 추천학생 수용 • (추가수용)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학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운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돌봄교실) 방과후~17시 - 학교여건 및 돌봄 수요에 따라 단력 운영, 연장 운영 • (방학중돌봄) 오전~학기중 돌봄 종료시간 • (저녁돌봄) 5명 미만 참여 돌봄교실은 가급적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17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돌봄 전용·겸용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겸용 교실 운영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당 25명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당 25명 내외
운영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전담사(전담), 현직교원, 단체활동 지도강사, 대체인력, 돌봄봉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교원, 돌봄 봉사인력
간식 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중과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학생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제공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2021), 「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 발췌하였음.²³⁾

23) 경상북도교육청(2021), 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2021년 9월 기준, 경북지역 23개 시·군 중 오후연장 및 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군지역은 영주시, 고령군, 영양군, 군위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이었으며, 이들 시·군지역의 지역특성과 아동돌봄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 지원할 필요 있음

○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 학교돌봄터는 2021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돌봄터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지역돌봄협의회를 통한 협의로 진행
-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예산 편성 및 돌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예산 편성 및 지원을, 학교는 활용가능 교실 등을 제공하고 학교 시설의 이용 지원
- 학교돌봄터는 학교당 관리자 1명, 교실당 업무담당자 1명을 필수로 배치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본돌봄을 운영하되, 자녀양육가구의 돌봄 수요를 고려해 틈새돌봄 또는 돌봄 시간 연장 제공 초등돌봄교실(아침돌봄 7:00~9:00 / 기본돌봄 13:00~17:00 / 저녁돌봄 17:00~19:00) 운영

□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아동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역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의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가정의 돌봄보호자의 돌봄부담 완화



2-1-2

지자체-정부 협력 아동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과 감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 증가
 - 초·중·고등학교와 돌봄교실, 유치원·어린이집과 도서관 등의 공적교육·돌봄체계가 5차례 이상의 휴원·휴업·휴관 조치로 인해 아동돌봄 및 학습의 저하뿐만 아니라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전업주부 등 아동돌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심화되었고 양육스트레스 또한 증가하였음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가정내·외 아동돌봄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아동의 복지증진과 아동돌봄 보호자들의 양육부담 완화 및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수요-공급의 안정적인 매칭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아동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 경북지역 지자체-정부 협력 주요 아동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

기관유형	주요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취업 한부모, 맞벌이, 장애부모 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시간제 이용가정 27,820가구, 종일제 이용가정 1,446가구, 이용실적 792,141건, 시 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이용률이 저조함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아동 대상
공동육아나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V.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장남감 및 육아물품지원, 동화구연 등의 상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남감 및 도서대여,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총 20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되었고, 2021년에 신규로 8개소(포항, 경주(6), 울진)가 확대 개설될 예정임(경상북도 업무편람, 2021) - 2020년 기준, 86그룹 371가정이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였고, 24,002명이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p>마을돌봄터 운영 (다함께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상시·일시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17개소)과 2020년(19개소)까지 총 36개소가 설치되었고 2021년에는 16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임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상시·일시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 아동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 제공
<p>지역아동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만18세미만미아동으로서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아동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등·하원 안심 알리미 구축,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2021년 기준 총 27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이상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토요일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센터 지원 • 2021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운영 센터(총 14개소) 지원
<p>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 저소득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p>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온종일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 방과후아카데미 배정 요청 및 신규 개소 추진 고려 - 경상북도는 12개 시·군 17개소(2020년 대상 인원: 초등학생 403명, 중학생 283명)가 운영되고 있는데 초·중등대상 기관은 10개 시·군 13개소이고 중학생 대상 기관은 2개 시·군 4개소임
--	--

자료: 김수연·정서린·진혜민·유은경(2021). 경상북도 마을돌봄지원센터(가칭) 운영 방안 연구에서 요약 발췌함.²⁴⁾

□ 기대효과

- 코로나19에 대응한 경북지역의 아동돌봄 공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적아동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가정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아동의 돌봄과 학습권을 고려한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적인 기본돌봄 지원을 기반한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양육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및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24) 김수연·정서린·진혜민·유은경(2021). 경상북도 마을돌봄지원센터(가칭) 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1-5.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2-1-3

아동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운영 지원 강화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북지역의 다양한 유형의 자녀양육가구가 각 가정의 특성(아동의 특성, 양육돌봄자의 특성 등)에 맞는 공적돌봄서비스를 찾지 못해 양육보호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른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코로나19로 돌봄위기를 경험한 자녀양육가구의 60% 이상이 경제적 피해보다도 돌봄 공백이 더 큰 위기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의 요구 증가, 즉 지역사회 내 아동중심의 공적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유아·초등학생 등 아동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및 교육(학습), 안전한 생활방역, 생활교육, 여가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 수요의 증가
- 아동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아동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내 아동돌봄과 지역사회내 아동돌봄의 유기적 연계·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돌봄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 아동·돌봄보호자 특성에 맞는 공적돌봄체계의 다양화와 지원 강화
 - 틈새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아동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존의 틈새돌봄 및 긴급돌봄서비스의 재정비
ex. 경북지역의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운영 등
- 도서관의 기능 혁신을 통한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 지차제와 교육청 직속 도서관, 마을의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기존 도서관의 기능(책 읽는 장소, 도서대여 등)을 돌봄과 교육의 기능으로 전환
 - 돌봄 접근성과 아동의 생활교육 및 학습지원, 지역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음



- 마을을 찾아가는 아동돌봄교실 운영
 - 마을의 아파트 단지 내 유희공간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아동돌봄+교육 지원
 - 학교나 공적돌봄기관 위주의 한계를 보완한 형태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아동틈새돌봄을 책임지는 형태
 - 돌봄접근성과 아동의 생활교육 및 학습지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음
- 아동 교육(학습)지원과 연계한 돌봄정보 통합플랫폼 서비스 지원
 - 코로나19 이후로 아동의 학습 저하와 교육격차의 심화로 온라인 교육(학습)지원 통합플랫폼 서비스 보편적 지원
ex. 송파쌤(SSEM-Songpa Smart Education Model) 교육포털
- 포괄적 수요자(아동+돌봄보호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 밥상돌봄, 아이돌봄, 다양한 놀이 공간 등 맞춤형 돌봄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노원형 아이휴센터는 초등돌봄을 초등학교 정규학습 전후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양육과 보육의 일체’로서 보다 포괄적으로 수요자(아동과 부모)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1층이나 학교 인근 일반주택 등을 활용하여 아픈아이돌봄, 밥상돌봄, 다양한 놀이 공간 등 맞춤형 돌봄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음(ex. 거점형, 융합형 등)

구형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
병원동행부터 **병상돌봄**까지!

이용신청 → 평가·비밀 → 전과제 진행 → 평가·비밀 → 평가·비밀 → 평가·비밀

대상 만 4세 ~ 초등학생 전학년 (신청일 기준)
이용료 무료 - 병원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
이용시간 평일 09:00 ~ 19:00
주소 노원구 덕릉로 70길 100, 3층
이용문의 아픈아이 돌봄센터 02-930-4290

QR코드스캔해서 다운로드

아픈아이 돌봄센터





V. 위드 코로나 시대 경북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2019년에 시행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만4세 이상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아픈아이 병원동행 및 병상돌봄 서비스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원구가 직영으로 운영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은 사업임



아동 결식 대안(평일저녁 및 방학 중 점심 제공) 및 방과 후 돌봄을 결합하여 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 콘텐츠(보드게임카페, 북카페, 전래놀이방, 자유놀이방, 도서관)를 지원하는 **노원구청 직영 밥상돌봄서비스 사업**임



자료: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s://www.nowon.kr/www/info/info2/info2_06/info2_06_01/info2_06_01_09.jsp); 서울시정일보(<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20>); 서울특별시내 손안에 서울(<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72074>)²⁵⁾



□ 기대효과

- 아동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아동돌봄 안전망 강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정내 아동돌봄과 지역사회내 아동돌봄의 유기적 연계·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돌봄 환경 조성

25) 노원구청 홈페이지(2021.6.21., https://www.nowon.kr/www/info/info2/info2_06/info2_06_01/info2_06_01_09.jsp); 서울시정일보, (2020.10.26., <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20>); 서울특별시_내 손안에 서울(2020.03.04.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72074>)



2-2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2-2-1 학교-마을돌봄협의회 구성·운영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경북지역의 학교 안팎 온종일 행복한 초등돌봄지원체계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 생활권 내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한 학교-마을돌봄협의회의 구성·운영 필요
- 학교-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해 돌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 공유,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의 다양화 등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위한 읍·면·동 또는 생활권역 중심의 마을돌봄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돌봄시설 간의 기능 강화와 다양한 돌봄 지역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마을단위의 초등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 마을돌봄협의회 구성
 - 읍·면·동 또는 권역별 학교안 초등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과 학교 밖 초등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운영기관, 아이돌봄서비스운영기관, 공동육아나눔)을 중심으로 구성
 - 마을돌봄협의회 위원은 학교 안팎 초등돌봄기관 관련 종사자, 동별 아동 위원, 전문가(선택) 등을 중심으로 구성
- 마을돌봄협의회 운영
 - 마을돌봄협의회 운영은 분기별 1회(연4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필요시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마을돌봄협의회 운영 내용
 - 학교 안팎 온종일 초등돌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굿센스’ 연계 지원)
 - 마을단위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수요 조정·배정을 통한 돌봄서



비스 및 사업방식 등을 결정

-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아동의 대상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방역 강화, 가정 내 돌봄에 대한 매뉴얼 개발 등 마을단위 공동 돌봄 의제 발굴·해결
-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돌봄지원 강화
- 돌봄 기관 간의 돌봄 이슈 공유 및 연계·협력 지원(위기아동 사례관리 등)
- 돌봄 희망아동 상황에 적합한 돌봄 기관 및 지역자원 연계
- 학부모(수요자) 홍보 및 교육·상담 실시
- 학교-마을돌봄 제공기관 간 상시적인 소통기반 마련 및 활성화(실무협의회 등)

□ 기대효과

- 경상북도 학교-마을돌봄 초등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례적인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
- 지역 내 돌봄 제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으로 수요자 중심(아동, 학부모)의 맞춤형 초등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



2-2-2

경상북도 아동돌봄플랫폼 구축·운영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 이후 아동돌봄 정책이나 관련 시설의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은 개별 사이트에서 아동돌봄 수요자들이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과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부족 및 홍보의 부재로 경북지역 아동 돌봄의 공백 발생
- 수요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경상북도 아동돌봄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경북지역 내 아동돌봄서비스 공백발생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아동중심의 돌봄 실현

□ 사업 내용

- 경상북도 지역별 아동돌봄 정책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PC/모바일 접속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아동돌봄서비스의 상담-신청-배치-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 도내 23개 시·군별 학교 안팎 아동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마을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육아나눔터) 이용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포털)를 연계·통합하여 돌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경북지역 마을 돌봄 기관 찾기 검색서비스 운영
 - 온·오프라인 아동·학부모·교사 돌봄상담창구 및 돌봄기관 종사자 소통창구 운영
 - 돌봄 콘텐츠·프로그램의 다양화(ex. 가정내 돌봄매뉴얼) 및 전문 인력풀 관리운영 및 지원
- 단계적으로 경상북도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돌봄 관련 다양한 정책과 시설운영 정보를 일원화하여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통합정보플랫폼으로 확대
 - 광주시와 부산시는 임신·출산·육아·돌봄 관련 정책 및 시설 운영 정보를



일원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13B경기도 워라밸링크(2019)’에서는 도내 모든 아동돌봄시설 2,490곳과 정부24를 비롯해 아동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연계해 시민들이 돌봄과 관련하여 원하는 정보 검색 편의와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



자료: 경기도 아동돌봄플랫폼(https://m.blog.naver.com/gyeonggi_gov/222253796545)²⁶⁾

□ 기대효과

- 수요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아동돌봄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경북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실현

26) 경기뉴스광장(2021.2.23.).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여기 다 모였다. 아동돌봄플랫폼 서비스 시작.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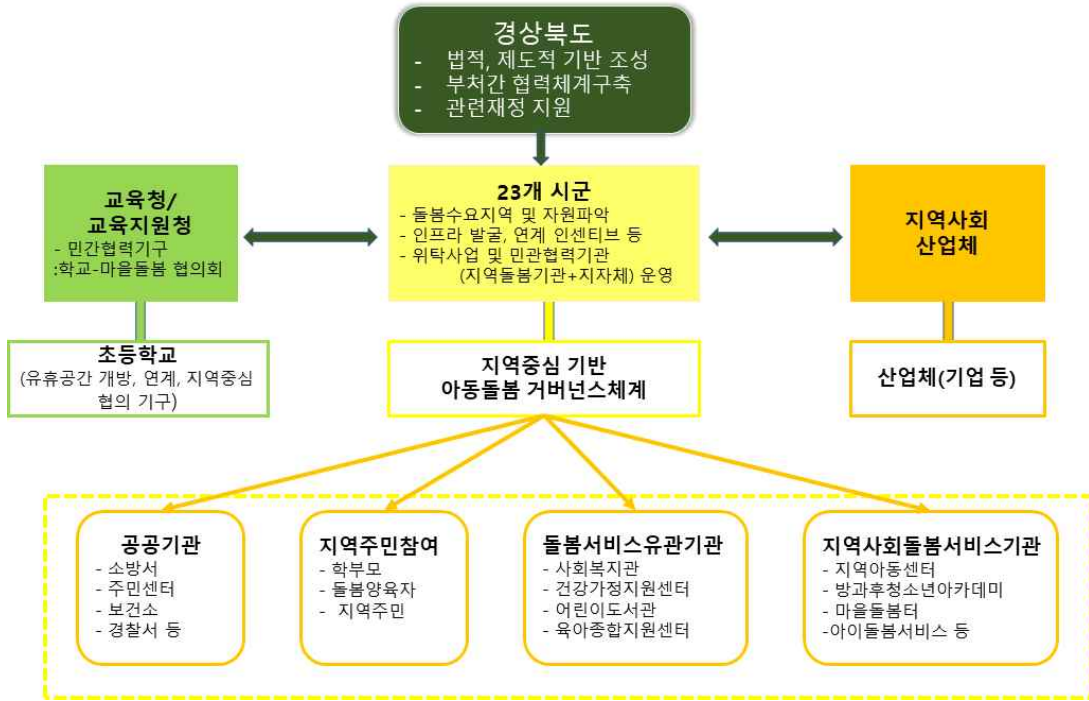
경상북도 아동돌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돌봄 아동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이 폐쇄되면서 아동 돌봄의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두거나 무급휴직을 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아동돌봄에 대한 부담가중되었음
- 경북지역의 전반적인 아동돌봄 공백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을 돌보는 부모·양육자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거버넌스 체계(지역 돌봄 기관+지자체+산업체) 구축 및 운영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 있음

□ 사업 내용

- 경상북도 아동돌봄 지역기관-지자체-산업체의 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환경 조성
 - 민·관협력 기구 구성 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육청, 초등학교는 필수로 포함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기관, 주민참여 보장 등 운영주체를 명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과 추진단/전담부서/담당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 법적·제도적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아동 돌봄 영역의 민관(지역돌봄기관+지자체+산업체)협력체계는 다음과 같음
 - 지역 산업체의 가족친화 인증 및 여성친화인증 기업 인센티브 제공
 - 지역중심 기반 아동돌봄 기관을 활용하여 확대
 - 지역중심 기반 돌봄 환경을 병행한 업무 형태 발굴 및 모델 개발 등



□ 기대효과

- 전반적인 아동돌봄 공백문제를 해소하여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중심 아동돌봄을 통해 양육가정의 돌봄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돌봄 욕구 해소



목표 ③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③-1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③-1-1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면서 급속한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별(한부모·다문화 가족·1·2인 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보완하고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라는 목표로 향후 5년 간의 정책 비전(4개 영역, 11개 과제, 25개 소과제)을 제시하고 있음
- 경북지역 가족의 다양성 포용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인식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식 확산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사업 내용

- 경상북도 가족 다양성 위원회 구성·운영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가족의 범위 설정, 차별 없는 가족 다양성 수용 문화 방안 모색
- 다양한 가족 포용,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을 위해 지역 차원의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등 캠페인 운영





- 다문화 가정, 장애가정, 1인가구 등의 차별 예방 및 다양한 계층의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문화 확산과 인권 보호
- 가족의 다양성 포용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확산과 지역 사회 성평등 실현



3-1-2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의 성평등 문화 확산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의 문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가사노동, 양육 스트레스의 심화는 돌봄을 주로 맡고 있는 여성(전업주부, 맞벌이가정의 여성 등)에게서 가중되고 있고 재난 취약·위 가정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난취약·위기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기능 회복과 심리·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와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 사업 내용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지원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운영
 - 사업내용: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사업
- 성평등한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 취약위기가족의 자녀학습지원, 심리·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교육·자조모임 등 지원
- 장애 아동·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운영/성인권 시민학교 운영
- 일-돌봄/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다양한 가정 내 여성폭력 예방 대응 강화
 - 체계적인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대응 강화
 - 가정 내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경상북도 지역성평등 수준 향상

□ 기대효과

- 다양한 가족형태, 생애주기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가족서비스 지원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 체계적인 성인권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성가치관 형성 및 여성폭력 대응 강화



3-2 다양한 가족의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3-2-1 다양한 가족의 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양한 가족의 자녀돌봄과 비대면 교육지원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청소년, 돌봄보호자 등 불안감 등의 심리·정서적 변화가 전반적인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함
 - 경북지역의 아동돌봄가구에서는 돌봄 공백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경제활동 및 소득의 변화, 직장생활유지의 어려움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가구 등 돌봄 취약특성이 드러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와 비교하여 부모-자녀관계(취약 가구 14.2% 비취약가구 5.2%)와 부부관계(20.4%, 9.4%)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 다양한 가족의 아동·청소년 및 돌봄보호자의 건강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부담자의 스트레스를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서비스 강화
 - ex. 비대면 상황에서의 또래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비대면 상담서비스의 채널을 다각화하여 촘촘한 청소년 심리·정서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생활패턴(활동저하, 수면의 질 저하, 초조 등)으로 인해 우울과 외로움,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가족은 가족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참고_본문에 있음)



-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및 재난 취약·위기 가정의 심리·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강화
- 미취학·초등 저학년 아동 대상 언어 치료 지원
- 영유아·아동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비 지원
- 가족관계(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 젠더 관점의 여성 건강 인프라 구축·운영
- 가정내·외 돌봄보호자의 돌봄휴가제 운영 및 지원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가족의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사회성 발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 다양한 가족 및 양육돌봄자를 위한 건강지원 및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목표 4

새로운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4-1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 강화

4-1-1 디지털 성폭력 대응 기반 마련 및 예방 교육 강화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한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상 위해요소에 대한 경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온라인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감소함 13.0%)를 제외하면 온라인 상에서 위해요소 경험률이 증가했다는 층이 많아 대응 필요
 - 온라인 상 위해 요소에 대해서는 SNS 댓글, 채팅 등을 통한 성적영상물의 일방적 노출 및 전송에 대한 경험이 증가했다는 층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무분별한 성인광고(18.6%), 불법 이미지 유포(13.5%), 성적 영상물(음란물) 시청(12.1%), 온라인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 유도(9.0%)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사전 교육 필요성 증대

□ 사업 내용

-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광역 시도 단위 :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제주, 경기, 충남, 충북, 경남, 전남)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시민감시단 양성 : 모니터링
 - 디지털 성폭력 실태 파악 및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사례 발표, 이슈화 및 개선방안 제시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청소년 가·피해자가 발생·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 기를 수 있도록 교육안 구성 및 추진
-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여성의 전화)	
<p><2종의 포스터> : ‘디지털 성폭력 당신이 멈출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p> <p>-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시민들이 ‘다함께 NO’ 라고 단호하게 외칠 때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p> <p><리플렛> :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인지, 유형과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데이트 성폭력, 아동 성착취 등과 관련한 영상물 사례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알림</p>	

-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확대
- 디지털 성폭력 위험성 홍보,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여성폭력추방주간 연합 캠페인 개최 및 토론회 개최

여성폭력추방주간 : 1999년 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안 11월 25일부터 ‘세계 인권선언기념일’ 인 12월 10일까지임. 폭력없는 환경조성, 여성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올해 2회를 맞음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 기반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효과 창출



4-2 코로나 대응 기반 및 체계 강화

4-2-1 경북형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공적 서비스가 방역 등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지지 축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관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며, 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활성화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함
-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광역단위 정책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최근 자치경찰제도 시행되면서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폭력의 유형도 청소년, 청년들의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지속 증가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여성 1인가구의 안전도 중요한 이슈임

□ 사업 내용

- 위기가정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 가정폭력 2회 이상 재신고되는 가정에 대해 통합적 지원 제공 및 지역활동가를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 경찰, 지자체, 전문상담소가 협업해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자치경찰·행정·민간 거버넌스 구축
 -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하에서 자치경찰, 행정, 민간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협업기반 구축



자치경찰제 :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자치경찰은 지역 순찰, 범죄 예방,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등 생활안전 영역과 교통 단속 및 관리,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을 주로 담당함.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해 지역 상황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확충
 - 경북도내에는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동반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2곳(포항, 상주)만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임무를 충분히 할 수 없어 피해여성과 아동을 타 지역으로 연계해야 함(배옥현, 2021). 일반보호시설을 가족보호가 가능한 시설로 전환 및 피해자보호시설 확충이 요구됨
- 여성1인가구 대상 성범죄예방 시스템 대응체계 구축
 - 여성1인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지원
 - 여성1인가구 호신술 교육 등 지원
 -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에 방법용 CCTV, 보안등 등 방법시설물 설치 강화

□ 기대효과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4-2-2

여성폭력 유관기관/시설 지원 강화

□ 필요성 및 사업 목적

- 여성폭력 상담 및 유관기관의 경우 피해자의 구호·지원 역할을 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상당한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특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연계조치가 대면으로 이루어져야할 경우 감염병 위협에 대한 우려도 높음. 현재 이러한 위협 상황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조사에서는 상담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폐쇄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담자의 보호, 상담, 입소 연계 등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점, 마스크나 방역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였음
- 시설종사자들의 낮은 처우는 높은 이직률과 잦은 종사자 교체를 초래해 여성폭력 피해자인 내담자에 대한 불안정한 지원을 초래하므로 민간기관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종사자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소진을 방지해야 함(아시아타임즈, 2021. 11.28일 기사)
 - 여성 보건 인력(간호사, 요양보호사)이나 돌봄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보수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목소리는 높으나 여성폭력 방지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보수에 대한 관심 낮음
- 여성폭력 유관기관/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 있음

□ 사업 내용

- 여성폭력 방지 기관/시설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
 - 감염병 확산시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 및 방역 등 지원
 - 감염병 발생시 행동지침 및 가이드 라인 제작·배포해 명확한 업무 수행 및 대응력 제고



- 여성폭력 방지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 등 종사자에게 위험 수당 제공 등 처우 개선
 - 국가 법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센터 종사자들의 임금 체계 개선
- 여성폭력 방지 기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기대효과

- 여성폭력 방지 유관기관/시설의 안정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여성폭력 방지 유관기관/시설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 및 역량 강화



참고문헌

- 강희영·김도현(2020), 서울시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경상북도교육청(2021), 2021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김난주·이선행(2020),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KWDI Brief 59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수연·정서린·진혜민·유은경(2021). 경상북도 마을돌봄지원센터(가칭) 운영 방안 연구.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60호
- 김원정(2020), 젠더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와 정책대응 과제, KWDI Brief 6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정(2021),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변동과 고용위기 대응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63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현(2021). 코로나19는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복지국가연구센터 [이슈특집]
- 김효정(2020),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여성연구, 2020. Vol. 107, No.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민정(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울산지역 여성고용 특성과 정책과제,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 배옥현(2021), 경상북도 폭력피해 여성 지원방안 연구, 2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손제희(2020). 2020 젠더통계로 보는 경북 여성가족의 삶. 연구보고서 2020-10.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신선미·오은진·정성미(2021), 코로나19 이후 여성일자리 정책의 전망과 과제, 젠더리뷰 2021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심지현(2021), 한국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코로나시대 국가적 차원의 여성인적 자원관리방안, 202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학술대회
- 오삼일·이중하(2021),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팬데믹 vs 일반적인 경기침체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 2021-6호, 한국은행
-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 이경숙·이지인·정영태(2020), 코로나19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대구여성가족재단
- 이봉주·장희선·선우진희·길보라(2020).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I.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이소희(2021).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유행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대한 소아청소년저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장미혜, 코로나19가 바꾼 한국사회 성평등지형: 위기와 기회, 젠더리뷰 2021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은하·김희(2020),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KWDI Brief 54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현수(2020), 포스트코로나시대 강원도 초등돌봄 및 생활실태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정여진·손태주·선민정·이화진(2020),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여성의 삶과 가족의 변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여름호 Vol.13
-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언·이재림·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 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Environ.Res. Vol.58, No3
-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보건복지포럼 (2020.12.)



최윤정(2011). 코로나19와 아동 돌봄. 통계청·통계개발원 2021 사회동향
최청락·김혜정·문정희·이자형·박금식·이진숙(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
가족 분야 대응 전략,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issue paper
2017-420, 산업연구원

경기뉴스광장(2021.2.23.).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여기 다 모였다.
아돌돌봄플랫폼 서비스 시작.

내일신문(2020.5.4.) “초등생 절반, 코로나19 개학연기 기간 성인보호자 없이 지내”
매일신문(2021.11.15.) ‘온(온)종일 행복한 돌봄교실...경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매일경제, 2021. 12.7. ‘코로나속 디지털 성범죄 급증...작년 1만 6,866명 적발’
복지타임즈(2021.7.5.) “코로나19 1년...경제 불평등.돌봄 공백. 양육 스트레스 심화(인출
일: 2021.12.17.)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01>

통계청, 계절 조정 경제활동 인구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경북e 보이는 젠더 통계(<http://gs.forwoman.or.kr/main/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s://www.nowon.kr/www/info/info2/info2_06/info2_06_01/info2_06_01_09.jsp)

서울시정일보

(<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20>)

서울특별시_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72074>)

용인시 아동돌봄플랫폼(<https://www.yongin.go.kr/idolbom/index.do>)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홈페이지(<http://www.elis.go.kr/>)

양성평등
경북
+
여성일자리
창출

부록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민 생활 변화 및 정책요구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 산하의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입니다. 본원은 2021년 연구과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경북도민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요구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답변하시는 내용은 경북의 여성가족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하신 모든 내용은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순수한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 34조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조사주관기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명화 연구위원(054-650-7921)/박민정 연구원(054-650-7929)
조사대행 : 지식네트웍스 / 담당자 : 조한윤 연구팀장(010-4323-0726)

응답자 현황

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Q2 연령	만 ()세
Q3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 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재학포함)		
Q4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배우자 있음) ③ 이혼/별거 ④ 사별		
Q5 가구 유형	① 1인 가구 ④ 부부 및 기혼자녀 ⑦ 형제자매	② 부부가족 ⑤ 한부모 및 자녀 ⑥ 부부와 부모	③ 부부 및 미혼자녀 ⑥ 3세대 이상(손자녀, 조모부)
Q6 월평균 가구소득	① 소득없음 ④ 200~300만원 미만 ⑦ 500~6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이상~	③ 100~2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Q7 직업	① 관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⑫ 무직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군인 ⑬ 기타 ()	③ 사무종사자 ⑥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⑪ 전업주부
Q8 고용 형태	① 상용근로 ④ 자영업 ⑦ 기타 ()	② 임시근로 ⑤ 무급가족종사자	③ 일용직 근로 ⑥ 해당 없음
Q9 막내 자녀 연령	① 영유아(~7세)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이상 ④ 해당 없음		



01-1 귀하의 삶이 나빠졌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1) 경제적 상황(일자리, 소득 등)					
(2) 가족생활(돌봄, 가족관계 등)					
(3) 심리적 상태(우울감, 불안 등)					
(4)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친목 등)					
(5) 신체적 건강(건강 정도)					
(6) 여가, 자기계발 등 개인적 활동					

02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소득, 지출 등 경제적 문제
- ②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
- ③ 일자리 문제
- ④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문제
- ⑤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 ⑥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
- ⑦ 가족구성원 갈등 등 가족관계 문제
- ⑧ 각종 앱 설치 등 온라인 사용 어려움
- ⑨ 기타 (구체적으로:)

03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여성,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코로나19 종식 이후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코로나19 종식 이후 남녀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배달,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생활 방식이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적돌봄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01-1 귀하의 삶이 나빠졌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1) 경제적 상황(일자리, 소득 등)					
(2) 가족생활(돌봄, 가족관계 등)					
(3) 심리적 상태(우울감, 불안 등)					
(4)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친목 등)					
(5) 신체적 건강(건강 정도)					
(6) 여가, 자기개발 등 개인적 활동					

02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소득, 지출 등 경제적 문제
- ② 가족구성원 등 돌봄 문제
- ③ 일자리 문제
- ④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문제
- ⑤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 ⑥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
- ⑦ 가족구성원 갈등 등 가족관계 문제
- ⑧ 각종 앱 설치 등 온라인 사용 어려움
- ⑨ 기타 (구체적으로:)

03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여성,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코로나19 종식 이후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코로나19 종식 이후 남녀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 배달,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생활 방식이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적돌봄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성평등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07 [취업자만 응답] 귀하의 현재 근무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 ① 임금근로자(정규직) ② 임금근로자(계약직 등) ③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문 07번에서 ①, ② 응답자만

08-1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안전문제(코로나19 감염 위험) ② 휴가사용 어려움(연차, 가족돌봄휴가 등)
 ③ 무급 휴가/휴직 강요 ④ 권고사직/계약해지/해고 등 고용불안
 ⑤ 임금체불/임금삭감(반납) ⑥ 업무량(강도) 증가
 ⑦ 재택근무 사용 어려움 ⑧ 업무상의 제약이 많아짐
 ⑨ 기타 () ⑩ 어려움 없음

08-2 귀하의 직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는 무엇입니까?

(1) 재택근무(원격근무)	① 해당 ② 비해당	(2) 선택근무제	① 해당 ② 비해당
(3) 시차출퇴근제	① 해당 ② 비해당	(4) 가족돌봄휴가(휴직)	① 해당 ② 비해당
(5) 시간선택제	① 해당 ② 비해당	(6) 기타 ()	
(7) 해당사항 없음	① 예 ② 아니오		

- **선택근무제:**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선택·조정해 필요에 따라 시간 활용하는 제도 (예: 주4일제: 1일 10시간 주 40시간 근무 등)
-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가(휴직):**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 **시간선택제:** 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시간 근무하는 제도

08-3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나 부모님 등 가족 돌봄을 이유로 평소보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가 등을 더 자주 사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연차 사용	① 해당 ② 비해당	(2) 가족돌봄휴가 사용	① 해당 ② 비해당
(3) 야근 등 근무시간 줄임	① 해당 ② 비해당	(4) 해당사항 없음	① 예 ② 아니오



08-3-1 [문 07-3번 (1), (2), (3) 중 해당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때문에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함	① 해당 ② 비해당
(2)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평판을 얻음	① 해당 ② 비해당
(3) 기존의 업무나 부서가 변경됨	① 해당 ② 비해당
(4) 업무나 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경고 받음	① 해당 ② 비해당
(5) 낮은 고과평가 또는 진급이 누락됨	① 해당 ② 비해당
(6) 낮은 고과평가 또는 진급누락을 경고 받음	① 해당 ② 비해당
(7)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됨	① 해당 ② 비해당
(8) 가족돌봄이 지속되어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① 해당 ② 비해당
(9) 기타	

문 07번에서 ③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09 코로나19로 인해 귀하의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취소, 매출(일감) 감소
- ②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
- ③ 부품 및 재료 공급 중단
- ④ 일시휴업상태로 인한 소득 감소
- ⑤ 종업원 축소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
- ⑥ 기타 ()

10 귀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대책
- ② 소득보전 지원 대책(지원금 확대 등)
- ③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
- ④ 일·생활 균형(돌봄) 지원 대책
- ⑤ 감염병 유행기(코로나19 등) 위기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집중 관리
- ⑥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대책
- ⑦ 기타 ()

11 [일하는 여성만] 귀하가 필요로 하는 코로나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재난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
- ② 가족돌봄휴가 확대
- ③ 무급휴직자 지원 강화
- ④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⑤ 여성노동자 차별 및 해고 예방
- ⑥ 심리적 어려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⑦ 긴급보전 기간 및 금액 확대
- ⑧ 폐업 위기 및 휴업 사업장 지원 강화
- ⑨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 방안 강화
- ⑩ 사회보험료 지원
- ⑪ 여성 고용 위기 업종 및 사업장 집중 관리
- ⑫ 여성고용창출장려금 특별 지급
- ⑬ 기타 ()



08-3-1 [문 07-3번 (1), (2), (3) 중 해당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때문에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함	① 해당 ② 비해당
(2)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평판을 얻음	① 해당 ② 비해당
(3) 기존의 업무나 부서가 변경됨	① 해당 ② 비해당
(4) 업무나 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경고 받음	① 해당 ② 비해당
(5) 낮은 고과평가 또는 진급이 누락됨	① 해당 ② 비해당
(6) 낮은 고과평가 또는 진급누락을 경고 받음	① 해당 ② 비해당
(7)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업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됨	① 해당 ② 비해당
(8) 가족돌봄이 지속되어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① 해당 ② 비해당
(9) 기타	

문 07번에서 ③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09 코로나19로 인해 귀하의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코로나19로 인한 주문 취소, 매출(일감) 감소
- ② 영업시간 및 기타 규제
- ③ 부품 및 재료 공급 중단
- ④ 일시휴업상태로 인한 소득 감소
- ⑤ 종업원 축소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
- ⑥ 기타()

10 귀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대책
- ② 소득보전 지원 대책(지원금 확대 등)
- ③ 실업자 및 일시 휴직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
- ④ 일·생활 균형(돌봄) 지원 대책
- ⑤ 감염병 유행기(코로나19 등) 위기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집중 관리
- ⑥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대책
- ⑦ 기타 ()

11 [일하는 여성만] 귀하가 필요로 하는 코로나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재난시 기본소득 지급 확대
- ② 가족돌봄휴가 확대
- ③ 무급휴직자 지원 강화
- ④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⑤ 여성노동자 차별 및 해고 예방
- ⑥ 심리적 어려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⑦ 긴급보전 기간 및 금액 확대
- ⑧ 폐업 위기 및 휴업 사업장 지원 강화
- ⑨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 방안 강화
- ⑩ 사회보험료 지원
- ⑪ 여성 고용 위기 업종 및 사업장 집중 관리
- ⑫ 여성고용창출장려금 특별 지급
- ⑬ 기타 ()



17 (문 15의 (1)-(3) 중 어느 하나라도 ④, ⑤ 응답한 응답자만) 귀 가구 내에서 늘어난 돌봄부담을 담당한 사람은 어떻게 수행하셨습니다?

- ① 근무시간을 줄임 ② 가족돌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 ③ 하던 일을 그만둠
- ④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이나 서비스로 총당함 ⑤ 기타 ()

18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① 그만둘 것이다 ② 일시 휴직할 것이다 ③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 ④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구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19 (문 15의 (4)-(9) 중 어느 하나라도 ④, ⑤ 응답한 응답자만)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 등이 심화되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
- ②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다
- ③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 ④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함께 있어야 해서 대응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많이 참았다
- ⑤ 기타 ()

20 코로나19 이후(2020년 1월 이후)에 귀하는 가족구성원 중 누구와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나의 부모
-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나의 형제자매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⑦ 그 외 동거인 ⑧ 기타 () ⑨ 갈등 없었음

21 (문 20에서 1순위 응답 기준) 가족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가사 및 돌봄역할 분담 ② 자녀교육 문제/자녀의 학습 및 성적
-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생활습관(늦잠/음주 및 흡연/늦은 귀가/잔소리 등)
- ⑤ 공간사용 ⑥ 금전의 지출 용도나 방법
- ⑦ 의사소통 및 대화부족 ⑧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관계
- ⑨ 상대방의 폭력적인 말 또는 행동 ⑩ 기타 ()

22 코로나19 이후(2020년 1월 이후) 가장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공립 돌봄시설의 시설수와 정원 확대
- ② 휴원/휴교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이용 보장
- ③ 출퇴근시간대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
- ④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⑤ 마을돌봄공동체 활성화
- ⑥ 다문화, 조손가정 자녀 등 취약가정 자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 ⑦ 기타 ()



17 (문 15의 (1)-(3) 중 어느 하나라도 ④, ⑤ 응답한 응답자만) 귀 가구 내에서 늘어난 돌봄부담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하셨습니다?

- ① 근무시간을 줄임 ② 가족돌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 ③ 하던 일을 그만둠
④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이나 서비스로 총당함 ⑤ 기타 ()

18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① 그만둘 것이다 ② 일시 휴직할 것이다 ③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④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구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19 (문 15의 (4)-(9) 중 어느 하나라도 ④, ⑤ 응답한 응답자만)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스트레스나 폭력 등이 심화되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집안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함께 있었다
②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다
③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④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함께 있어야 해서 대응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많이 참았다
⑤ 기타 ()

20 코로나19 이후(2020년 1월 이후)에 귀하는 가족구성원 중 누구와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나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나의 형제자매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⑦ 그 외 동거인 ⑧ 기타 () ⑨ 갈등 없었음

21 (문 20에서 1순위 응답 기준) 가족구성원과의 주된 갈등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가사 및 돌봄역할 분담 ② 자녀교육 문제/자녀의 학습 및 성적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생활습관(늦잠/음주 및 흡연/늦은 귀가/잔소리 등)
⑤ 공간사용 ⑥ 금전의 지출 용도나 방법
⑦ 의사소통 및 대화부족 ⑧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관계
⑨ 상대방의 폭력적인 말 또는 행동 ⑩ 기타 ()

22 코로나19 이후(2020년 1월 이후) 가장 필요한 보육/자녀양육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공립 돌봄시설의 시설수와 정원 확대
② 휴원/휴교시 가구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 이용 보장
③ 출퇴근시간대 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
④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⑤ 마을돌봄공동체 활성화
⑥ 다문화, 조손가정 자녀 등 취약가정 자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⑦ 기타 ()

연구기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자

- 김명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박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유은경(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발행명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발행일 |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53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3층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화 054) 650-7900, 팩스 054) 654-7991

디자인·인쇄 | 청솔애드 / 054-841-3751

<비매품>